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이 연 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해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농업의 축소 등 농촌 사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변화로 현재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고령화와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기여도는 제주의 농업과 농촌의 성장동력이었지만 여성의 기여도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으며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여성들이 원하는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영농실태, 가사노동, 돌봄노동, 교육, 건강, 안전,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복지,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등을 조사했으며 또한, 농촌 여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농촌 여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다섯 분의 자문위원들과 세 분의 연구평가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조사에 도움을 주셨던 관련 여성 농업인 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이연화 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연구가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5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혜 순**

연구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와 달리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2014년 제주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인구는 109,510명이며 여성 농업인의 수는 53,996(49.3%)명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 제주지역 농업종사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농업기여도에 비해 적합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역량강화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수립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촌지역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부족’ 등으로 나타남(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 본 연구에서는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노동, 양육, 건강, 안전 등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함

2. 연구내용

- 전국 및 제주 농촌지역 여성(귀농·귀촌, 농가 및 여성 농업인) 관련 통계 파악
- 국외, 국내, 제주 농촌지역 정책, 농업정책, 여성 농업인 지원정책 분석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조사 실시: 경제활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교육, 건강, 안전,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복지, 정책인지도 및 수요 등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제안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관련연구, 여성 농업인 실태 관련 통계, 관계법령, 타 지자체 사례 등 문헌 연구
- 중앙 및 제주 관련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나.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 관련 부서 의견수렴
 - 내용: 연구범위, 설문지(안) 검토,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 일시: 2016. 2.24(1차), 3.7(2차), 5.26 & 5.30(3차)
-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 내용: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자문
 - 일시: 자문회의 (2016. 2.4 & 5.3)(2회), 설문지(안) 의견수렴(2016. 3.2~3.7)

다.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농업/비농업 성인여성 509명(인구·연령할당 후 유의표집)
- 조사 방법 : 농업여부 고려한 유의표집 후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교육, 건강, 안전,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복지, 정책인지도, 정책욕구 등임
- 조사기간 : 3.21 ~ 3.31

라. 심층면접

-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농업/비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 산업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
-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 산업 관계자에 관한 질문에는 농촌지역에 살게 된 이유,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 현 직업을 갖게 된 이유, 가정생활의 어려움, 농업종사의 어려움, 구인·구직의 어려움, 건강 및 사회참여 경험, 지원정책 경험과 욕구, 일자리 욕구 등이 포함됨

4.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연구절차 〉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검토
	▷ 자문회의(1차) ▷ 1,2차 간담회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 설문지(안)논의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2.24~3.7)
2단계	▷ 설문지설계	⇔	▷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 문항 수 등 최종 설문지 작성
	▷ 설문지(안)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6. 3.2~3.7)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3.24~3.7) ▷ 사전조사 실시(2016. 2.25~3.7)
3단계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 실태조사(설문 조사)		▷ 「제주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2016. 3.21~3.31)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 실태조사(당사자 인터뷰)		▷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산업 관계자 인터뷰 (2016. 2.25~4.12)
4단계	▷ 자문회의(2차)	⇔	▷ 전문가 의견 수렴(2016. 5.3)
	▷ 3차 간담회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5.26 & 5.30)
	▷ 지원방안 마련		▷ 연구결과에 기초한 지원방안 자문

제2장 이론적 논의

1. 용어의 개념

가. 농촌 및 농촌지역 여성의 개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촌이란 읍·면 지역, 또는 읍·면 지역 외 그 지역에서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농촌과 어촌에 대한 구분 없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거주 지역 중 농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함
-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이란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을 말함

나. 여성 농업인과 여성 비농업인의 개념

-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동법에 의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여성 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여성을 말함
- 농가란 10a(약300평)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의미함(통계청, e-나라지표)
- 전업농가란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 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임. 겸업농가란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 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함(통계청, 2014)
- 본 연구에서 여성 농업인은 전업농가 또는 겸업농가의 여성 가구원을 의미하며 여성 비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여성 가구원으로 정의함

2. 선행연구 검토

가. 농촌관련 연구

- 농촌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연구, 농촌 일자리창출 연구, 농촌의 노동력 확보방안 등의 연구가 있음
- 먼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연구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경제생활, 보건복지·안전, 교육, 문화·여가, 경제생활로 삶의 질을 측정함. 그러나 가정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하고 있음. 농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하는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가정생활은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촌일자리관련 연구는 농촌의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과 판로지원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농촌의 노동력 확보관련 연구는 농업분야의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안정화 방안을 강조함
- 농촌관련연구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하고 발굴된 농촌관련 일자리에 대한 판로지원과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함

나. 농촌지역 여성관련 연구

- 농촌지역 여성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농촌지역 여성 보육지원,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지역 생활경험연구 등이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촌지역 여성들은 농촌지역이라는 공간보다 농촌지역의 문화와 보건·문화시설,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업외 일자리를 선호하는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다. 여성 농업인관련 연구

- 여성 농업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조사, 여성 농업인 일자리지원방안, 선진국 여성 농업인 지원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를 영농경력, 농업활동 담당정도, 농사소득에

대한 기여도, 농업생산외 소득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이라는 분명한 개념과 여성후계자 양성교육마련 등 여성 농업인 자신의 인식변화를 강조하지만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변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조성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경제생활, 보건복지·안전, 교육, 문화·여가, 경제생활, 특히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지속적인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여성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조성과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도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농촌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농촌지역의 여성일자리실태로 나누어서 연구하려고함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관련 현황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농촌·농업 일반현황,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관련 조례, 관련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가. 농촌지역 및 농업 일반현황

- 우리나라의 1970년 이후 2012년까지 농촌의 농가인구를 살펴본 결과 10대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60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12년 이후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농가의 47%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고령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전국 17개 시도별 남녀농가인구현황 및 농가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라남도가 20.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18.8%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통계청, 2014)

나.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농가인구 중 전업농가에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70년대 28.3%, 2005년에는 51.9%, 2012년에는 53.0%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여성 농업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가경영체 등록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18.5%, 16.2%로 농촌지역의 농가인구 중 여성의 인구가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남성에 비해 농가경영체 등록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남

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관련 정책

1)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지역 농가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제주지역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성의 인구는 50.2%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이후 2014년 49.3%로 농가여성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과 비교해볼 때, 전국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2)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관련 지원조례

- 제주 농촌지역 관련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노업인육성기금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농촌지역 여성과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켜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의 주체로 발전·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조례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과 여성 농업인관련 조례는

하나밖에 없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도 거주환경의 개선, 농업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육성, 고령농민과 여성농민에 대한 권익보호 및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농촌지역의 문화지원, 농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을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첫째는 여성 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향상과 권리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둘째는 여성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셋째는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로 육성하고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넷째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다섯 번째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육성계획을 세워 해마다 수립 후 그 시행실적을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라 수혜대상자들이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최근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구성원의 변화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지원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함.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행된 적이 없었음. 따라서 여성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제주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성인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함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지는 7개읍(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과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3개면(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성인여성 509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표집방법은 실태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읍면),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표집 후 농업과 비농업을 고려한 유의표집을 실시 함

○ 조사방법은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면접원에 의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 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3월21일 ~ 3월 31일 임

○ 유의수준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4\%$ p임

나.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경제생활, 가족생활, 여가·문화·교육·지역사회활동, 건강·복지·안전, 농촌지 역 및 농업관련 정책수요, 개인관련 사항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였음. 조사영역과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

조사영역	조사내용
경제생활	농업활동유무, 겸업유형·이유, 직업의 종류 및 월소득·가구
	농업경력, 농업종사이유
	농사일담당, 영농시간, 농기계, 농지규모, 농업종사형태, 주작목
	판매금액, 전체농가소득, 자산규모, 농업경영체등록유무, 농가경영주, 농지소유
	의사결정, 가구소득의 본인기여율, 소득사용권한정도, 가계부채, 본인재산
	농업의향, 애로사항
	창업의향, 희망분야
가족생활	가사노동시간
	보육 유무, 보육 시간
	학령기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족생활의 어려움
	대화시간, 가족여가횟수, 가족만족도
여가·문화·교육·지역사회 활동	여가시간, 여가활동
	문화활동 경험, 어려운 점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교육경험, 교육내용, 교육수요, 교육참여 애로사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건강·복지·안전실태	지역모임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생활만족
	건강정도, 종합검진 여부, 우울증여부
	지역만족도, 거주환경불만사항, 이사의향
	여성, 아동, 노인의 안전실태
농촌 및 농업관련정책 수요	농촌지역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농촌 및 여성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복지수요
개인관련사항	정책수요(과중노동, 자녀보육,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참여, 고령노동, 후계영농, 젊은층 유입)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유무, 자녀 수
	세대주여부
	최종학력
	배우자 직업, 국민연금 가입유·무
	수급여부, 가계부담되는 비용
	제우고향여부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09	100.0	전체		509	100.0
지역	제주시 읍면	288	(56.6)	배우자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61	(12.0)
	서귀포시 읍면	221	(43.4)		서비스·판매직	29	(5.7)
	제주시 동부	107	(21.0)		생산직·단순노무직	13	(2.6)
	제주시 서부	181	(35.6)		자영업자	48	(9.4)
지역구분 (읍면)	서귀포시 동부	133	(26.1)		농업·어업·수산업·농수산물	214	(42.0)
	서귀포시 서부	88	(17.3)		제조·농촌 체험	17	(3.3)
	20~29세	37	(7.3)		일하지 않음	127	(25.0)
	30~39세	73	(14.3)		배우자 없음	509	100.0
연령	40~49세	90	(17.7)	가구 형태	합계	67	(13.2)
	50~59세	104	(20.4)		1인가구	135	(26.5)
	60~69세	67	(13.2)		부부가구(2인)	204	(40.1)
	70~79세	87	(17.1)		부부+미혼자녀	69	(13.6)
	80세 이상	51	10.0)		한부모+자녀	69	(13.6)
	미혼	40	(7.9)		조부모+부부+자녀	13	(2.6)
혼인상태	기혼	378	(74.3)		가타(조손부부+노부모)		
	이혼·별거	10	(2.0)				
	사별	81	(15.9)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학력	초졸이하	161	(31.6)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2	(2.4)
	중졸	52	(10.2)		차상위가구	12	(2.4)
	고졸	168	(33.0)		일반가구	485	(95.3)
	전문대졸이상	128	(25.1)		합계	509	100.0
고향	제주	418	(82.1)	농업	농업	368	(72.3)
	비제주	91	(17.9)		비농업	141	(27.7)

2.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가. 개인생활

1) 건강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좋음(대체로 좋음+매우 좋음)이라는 응답비율이 39.6%로 나타남
- 우울증에 대해 최근 1년간 연속 2주 동안 슬프거나 절망할 때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 라는 응답이 90.2%로 나타났지만 다른 가구보다 이혼·별거 중인 한부모 여성가장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여가 및 문화생활

-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여가활동시간을 물어 본 농촌지역 여성의 1주일 평균 여가활동시간은 6시간 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고 1주일 평균 8.8시간 정도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아니면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음.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적었음
-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26.5%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서는 일이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유시간이 있어도 집 근처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집 근처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함

- 농촌지역 여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점척도로 평균 2.71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교육활동

- 농촌지역 여성의 지난 3년간 교육훈련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4.8%가 지난 3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지역 여성들이 경험한 이수 훈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22.2%로 가장 많고 건강·운동 17.7%, 교양·취미 14.7%, 자녀교육·상담 11.3%, 자격증취득교육 10.9%, 컴퓨터 정보화교육 10.2%순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28.9%,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자격증취득교육이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이 평소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40.3%)가 가장 많았으며, 언제·어디서·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름(18.3%), 교육 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10.6%)순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집 근처에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촌지역 여성이 희망교육은 건강·운동 27.9%, 컴퓨터 정보화교육 16.1%,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11.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외국어교육, 30대 이상의 경우 건강·운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60대만 농업(기초)기술·기계·가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나. 가정생활

- 농촌지역 여성의 가사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가사노동의 경우 본인 '1시간~2시간' 47.9%로 가장 많지만, 배우자의 경우 '하지 않음'이 31.0%로 가장 많음
- 농촌지역 여성의 16.3%가 돌봐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1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여성 농업인에 비해 미취학 아동이 19.1%로 높았음
- 여성 비농업인은 가정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 돌봄지원을 통한 경제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아쉬운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특별히 아쉬움은 없다(24.2%)를 제외하고 근처에 도서관 문화시설 적다 21.6%로 가장 많았으며 집 근처에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적다 16.9%, 대중교통 미비 통학 불편 13.2% 순으로 나타남
- 가족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일·가정의 병행의 어려움 30.6%로 가장 많고, 본인과 가족의 질병 및 장애 23.2%, 경제적 어려움 19.3%, 자녀교육 13.2%순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 여성 농업인의 35.6%가 '일·가정의 병행어려움'이라고 응답함. 그러나 여성 비농업인의 24.8%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다. 지역사회활동

- 농촌지역 여성의 58.7%는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여성들이 현재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계(친목,동창회) 35.8%, 마을 부녀회 31.8%, 여성 농업인 단체 12.2%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이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 35.2%, '어떤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른다' 10.5%순으로 나타남

라. 경제적 상황

1) 가구소득

- 여성 농업인의 1년 전체 농가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0~3,000만원이 1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농업인의 1년 전체 농가소득이 2,000~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응답자 여성 농업인의 57.2%로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인구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14년 농가소득 평균 34,950,000원보다 적으며 같은 자료 도시근로자 평균 월 가구소득(1인가구이상) 427만원(약 400만원×12개월=4,800만원)보다 약 1.5~2배정도 낮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많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미만이 3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297만원임

- 이는 통계청 인구가구조사에서 나타난 도시근로자 평균 월 가구소득(1인가구 이상) 427만원보다 약 1.4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재산

- 농촌지역 여성에게 본인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여부를 살펴본 결과 본인명의에 금통장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명의보험 22.1%, 기타금융자산 10.1%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가계부채

- 농촌지역 여성에게 가계부채를 질문한 결과 ‘없음’을 제외하고 1,000~3,000만원 미만이 1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0만원~1억원 미만이 11.6%, 1억 이상이 10.6% 순으로 나타남
- 가계부채의 경우 연령과 여성 농업인 가구소득,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에서 5,000만원~1억 이상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으며 여성 농업인 가구소득 ‘4천만원~1억 이상’에서 5,000만원~1억 이상의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이 1,000만원~1억 이상에서 여성 비농업인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 농업인가구는 가계부채도 다른 가구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계부채가 많음을 알 수 있음

4) 본인연금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또는 농어민 연금가입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가입된 경우가 51.9%로 나타남. 또한 연령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0대·50대·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연금가입비율이 높았음.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5) 살림살이에서 부담이 되는 비용

-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 중 가장 부담이 되었던 비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료비 23.6%, 식생활비 19.6%, 가족부채상환비 16.1% 순으로 나타남

6) 경제적 기여정도

- 농촌지역 여성에게 전체 소득 중 본인 기여정도를 질문한 결과, 절반정도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전부(19.1%), 30% 미만(17.3%), 30~40% 정도(16.7%)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에게 가구소득 중 본인이 어느 정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정도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전부(26.5%), 80%정도(12.4%)순으로 나타남

마. 거주환경

- 지역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이 78.8%로 높게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불만요인을 조사한 결과, 여가·문화시설부족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의료시설부족 23.4%, 대중교통불편 13.8%순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6%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사하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구직 및 직장문제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 및 보육시설 문제와 주거 문제가 18.3%, 교통 문제 11.3%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아동·노인이 마을의 범죄·사고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질문한 결과, 안전(대체로 안전+매우 안전)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53.8%, 49.9%, 52.8%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이 마을의 범죄·사고로부터 경험하는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위험없음'을 제외하고 교통사고 15.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성폭력 10.7%순으로 나타남. 아동의 경우는 교통사고 34.3%, 성폭력 4.8%순으로 나타남. 노인의 경우는 교통사고 26.3%, 농기계사고 12.0%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아동·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 안전한 농기계개발 및 사용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구됨

바.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 욕구

1) 기관·제도 인지 및 이용여부

-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제도(50.9%)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0.6%)를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제도 이용여부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59.1%)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제도를 ‘아는’ 만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을 농업후계자로 육성하는 사업과 여성 비농업인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2) 복지욕구

-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약간 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중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확대’에 대한 욕구가 91.3%로 가장 많았음
- 조사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필요없음 ~ 5 매우 필요)이며 조사한 결과 5점척도 평균 중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확대’에 대한 욕구가(4.49)로 가장 높았음.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 노부모 및 노약자 요양보호사 제도확대’(평균 4.37), ‘출산전·후 여성농가도우미 지원’(평균 4.33), ‘지역내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등·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평균 4.30),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지원’(평균 4.25), ‘농촌지역 중·장년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마련’(평균 4.24),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보육제도 확대’(평균 4.21), ‘취학자녀 통학버스운영 및 방과후학습확대’(평균 4.13), ‘농촌지역 지역 여성의 취·창업지원센터 건립’(평균 4.10),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전문상담기

관확충(평균 4.02), '농번기 가족식사 및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제도'(평균 3.97)순으로 나타남

- 모든 문항에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먼저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검진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 농촌지역 여성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가족의 이해(31.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농촌지역 여성의 고령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28.5%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의 후계여성농민을 위해서는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해결'이 35.0%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보육시설·교육기관·의료시설 등 복지시설확충'이 48.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

가. 영농실태

-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을 살펴보면 결혼 전에도 농사경험을 가진 여성은 전체 368명중 121명으로 32.9%이며 평균 2.5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결혼이후 농사경력은 28.9년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은 주로 결혼과 함께 시작됨을 알 수 있음
- 여성 농업인의 겸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농업인 368명중 전업 여성 226명(44.4%), 겸업 여성 농업인 142명(27.9%)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농사규모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시설'의 경우 없음이 7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00평 미만(9.8%)으로 나타남. 반면 '노지'의 경우는 1,000~2,000평 미만이 24.5%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1,000평 미만(18.3%), 2,000~3,000평 미만(16.3%), 3,000~5,000평 미만(14.7%), 5,000평~10,000평 미만(13.4%)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시설농사보다는 '노지'농사를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농업인의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을 질문한 결과 1,000~3,000만원 미만(3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1,000만원 미만(20.4%), 100만원~500만원 미만(16.8%), 3,000~5,000만원 미만(10.3%)순으로 나타남
- 농사일 분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농업인은 절반정도분담(38.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거의 전부'(22.5%), '30~40% 정도'(13.6%), '80%정도'(10.9%), '30% 미만'(10.1%) 순으로 나타남
- 하루에 농사를 하는 시간을 질문한 결과 1일 평균 농사시간은 7-10시간이 38.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4-6시간으로 35.1%, 1-3시간이 25.0%순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시 필요한 농기계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소형동력농약 분무기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소형 파쇄기(19.0%), 소형 트랙터(18.2%)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는 소형 트랙터, 40대 이상은 소형동력농약 분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지역과 특정 연령대에서는 특정 농기계를 필요로 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됨

나. 의사결정권

- 여성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농가경영주가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54.9%로 나타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는 연령대와 농가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45%이하로 낮게 나타남. 또한 농가소득별로는 농가소득이 높을수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여성의 농가경영등록이 농가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가경영주는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남편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인 32.6%로 나타남
- 농지소유자로는 남편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인(19.3%), 친척 혹은 타인(17.7%)순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과 관련해 의사결정참여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소 관여'(54.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적으로 관여'(38.3%)순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참여정도에 관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30대의 경우 다소관여와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4.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

가. 일자리유형

- 겸업 여성 농업인에게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자영업과 일반직장 취업이 각각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근무(19.9%), 해녀(19.1%) 순으로 나타났다
- 겸업 여성 농업인에게 겸업을 하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겸업 여성 농업인의 55.7%가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겸업을 한다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2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 17.0%, 사무직 16.3%, 자영업 12.9% 순으로 나타남
- 농업 외 농촌의 일자리로는 자영업, 일반직장, 해녀, 서비스·판매직, 전업주부로 나타남. 농촌지역에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함

나. 농업 유지 또는 창업의향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농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에게 농업관련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들의 62.9%는 농업을 계속 또는 신규농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은 78.8%, 여성 비농업인은 21.3%로 나타났다
- 농업을 계속할 의향 또는 신규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으로는 무리가 3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직업 있어서 21.2%, 여자에게 힘든 일 13.8% 순으로 나타났다
-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때문에 농사를 계속 또는 신규로 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음.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에서 건강에 무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활동을 위해서는 60대 이상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창업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여성에 농업관련 희망하는 분야를 물어 본 결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 사업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농가민박 펜션 24.0%, 농촌지역 체험·교육농장 18.0%, 농산물 가공 10.0% 순으로 나타남

다.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욕구

- 농촌지역 여성에게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질문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이 32.4%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문화·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 13.8%,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 13.0%, 농촌지역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12.8%, 여성농업 경영인 육성 및 여성영농후계자 양성사업 12.4%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소득증대를 위해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이 29.5%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17.5%, 가사와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 13.2%, 취업·창업관련 교육지원 12.4%, 창업 후 판로개척 지원 10.0% 순임

제4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심층면접 조사개요

-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여성 농업인 19명과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6명의 성인 여성 비농업인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조사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임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	지역	직업	연령	거주기간	비고
사례1	제주시서부	농업(전업)	47세	18년	
사례2	제주시서부	농업(겸업)	50세	17년	
사례3	제주시서부	농업(6차산업)	39세	10년	
사례4	제주시서부	방문교사	44세	6년	
사례5	제주시서부	자영업	53세	25년	
사례6	서귀포시서부	농업(전업)	56세	55년	
사례7	서귀포시서부	농업(겸업)	55세	50년	
사례8	제주시서부	농업(겸업)	56세	25년	
사례9	제주시서부	농업(전업)	61세	62년	

대상자	지역	직업	연령	거주기간	비고
사례10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58세	36년	
사례11	서귀포시동부	수산물중개업	49세	25년	
사례12	서귀포시서부	농업(6차산업)	56세	15년	
사례13	서귀포시서부	농업(전업)	60세	33년	
사례14	제주시서부	농업(축산)	54세	23년	
사례15	제주시서부	자영업	57세	30년	
사례16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48세	10년	
사례17	제주시동부	농업(협동조합)	70세	7년	
사례18	제주시동부	농업(전업)	56세	7년	
사례19	서귀포시동부	농업(어업)	60세	25년	
사례20	서귀포시동부	사무직	36세	30년	
사례21	서귀포시동부	사무직	36세	10년	
사례22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50세	21년	
사례23	서귀포시동부	농업(겸업)	36세	10년	
사례24	제주시 동부	농업(전업)	54세	54년	
사례25	제주시 동부	농업(겸업)	57세	30년	

- 조사내용은 농촌지역에 살게 된 이유,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 현 직업을 갖게 된 이유, 가정생활의 어려움, 농업종사의 어려움, 구인·구직의 어려움, 건강 및 사회참여 경험, 지원정책 경험과 욕구, 일자리 욕구 등임

2. 분석결과

가.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생활의 어려움은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시설이 없다는 점 외에도 제주도 농업의 특징과 제주도 여성들의 일하는 문화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세대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농업인의 세대별 소통의 어려움의 원인은 세대별 경험의 차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문화공간이 없어 소통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지적됨.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농촌지역 여성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부녀회 활동은 여성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어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인 가사와 돌봄을 공적영역에서도 부녀회활동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결과 나타남. 이러한 농촌지역의 성차별은 양성평등교육의 부재로 봄
- 농촌지역에 자녀교육환경의 미비로 인한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녀성장 후 다시 '귀농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까지는 농촌지역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아예 이사를 가거나 또는 자녀대학입학 후 다시 농촌지역 으로 돌아오는 제주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사회활동의 어려움은 남편의 허락과 다른 여성들의 시샘으로 설명됨. 특히, 같은 여성끼리 위로와 덕담이 아닌 시기 질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여성들의 시기질투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서 풀 수가 없어 여성들이 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부정적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음

나.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사계절 밤낮으로 일하지만 빗을 갚으면 또 빗을 내야 그 다음 농사를 짓는 농업구조임. 또한 농사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과중노동 그리고 농사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농업은 노지 밀감에서 하우스 밀감으로 바뀌고 있으며 밀감가격이 하락하면서 단일작물을 통한 영농활동이 복합영농으로 바뀌었음. 이러한 농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사계절 밤낮으로 비오는 날에도 하우스에서 일을 하게하는 농한기가 사라진 농촌지역으로 만들고 있음
-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여성 농업인의 농가살림은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함으로 농산물의 가격불안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높은 인건비, 비료, 농약값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에게 농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며, 지금의 농기계는 여성에게 너무 크며 너무 길며 너무 소리가 커서 무서울 정도로 여성에게 적합한 기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농기계사용은 쉬는 날 남편에게 부탁해야할 정도로 여성에게 불편한 문제점으로 도출됨

- 심층면접을 통해 농업의 어려운 점으로 농번기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혼자농사를 짓는 여성의 경우 남자일손을 구하는 어려움이 발견됨. 또한, 여성 농업인들은 밭에서 남성과 똑같이 역할을 나누어 일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농업인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오랜 농사로 인한 허리, 다리, 어깨 등 근골격계통의 극심한 통증이며, 판로개척을 위해 택배를 한 이후 근골격계통증외에 신경을 쓰다보니 머리와 소화가 안되는 위장장애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는 창업의 어려움,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6차산업의 어려움, 다양하지 않은 농촌지역 일자리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음. 농사대신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장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돈으로 장사 후 손해를 보면 빚만 지게 될까봐 두려워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지역 여성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집근처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어 이 일에 종사하길 원하지만, 이 사업이 인건비가 될 만큼의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사업이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마을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로 6차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농촌지역 여성들은 6차산업의 활성화를 판로개척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내 내수시장에서 가공상품들이 소비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 농촌지역 여성들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호텔과 식당일 등 서비스직으로 나타남

라.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욕구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본인의 사회활동을 위

한지원, 건강, 자녀양육 및 본인의 교육지원, 문화 및 행정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은 먼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농사짓는 지역을 관광화해 자신의 밭에서 생산물의 관광, 판매, 숙박관련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했음
- 또한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과 특히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힐링프로그램이 제공되길 원했음
-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여성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홍보는 문화의 개선과 남녀의 인식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있음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지원방안

- 이상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함

1. 요약 및 시사점

가.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1) ‘쉽’ 이 필요한 농촌

- 농촌여성의 농가소득기여도는 높고 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사기간·농업경영에서 의사결정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농가소득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이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 및 문화 만족도는 2.71로 가족 관계 만족도(3.62), 지역만족도(3.60), 건강만족도(3.12)보다 낮게 나타났음. 또한 농촌지역 여성의 1주일 평균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 6시간 이하가 50.1%로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하루 1시간의 여가시간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이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심층면접결과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공간의 부재, 농촌의 열악한 경제상황, 농촌의 일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농촌지역 여성들의 거주지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여가·문화시설부족(25.1%)이었으며 복지관련 제도의 필요성욕구에서도 농촌지역

의 문화생활지원이 평균 4.25로 높게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에게 휴식이 없다는 사실은 노동력 피폐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여가’가 없다는 사실은 농촌지역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그 결과 타인에 대한 관심도, 주변 환경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여성에게 ‘쉼’ 즉 여가생활이 필요함

2)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

- 농촌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제문화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남편의 허락, 농사는 반반 남녀가 나누어 하지만 가사는 여성의 책임,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문화 등임
-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문화는 여성끼리의 연대를 저해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촌지역 주민대상 양성평등교육이 농촌에 필요함

3)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농현상’

- 제주지역에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역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이 나타남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젊은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후 자녀가 대학을 갈 때까지 시내로 이사한 후 다시 자녀가 대학을 입학한 후 농촌으로 재이주하는 경향이 많았음. 또한 남편은 농사를 짓고 여성들만 자녀와 함께 시내로 이주하는 ‘분거가족’ 또한 농촌지역에 많았음. 설문조사에서도 이사할 의향이 있는 30~40대 농촌지역 여성은 보육 및 보육시설문제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나.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1)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인력지원 필요

- 심층면접결과 혼자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의 어려운 점은 농번기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남자일손을 구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농사의 경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적절한 시기에 일손부족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기 어려워 농사수확량이 적어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세대간 소통을 위한 모임장소 필요

- 조사결과 젊은 여성 농업인은 모임을 통해 세대 간 소통 및 정보교환을 원했으며 이러한 소통과 정보교환은 농업관련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더 효율적 영농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봄. 심층면접결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40~70대는 농촌의 복지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특히, 젊은 여성 농업인과 나이든 농업인을 연결하는 멘토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후계양성과 여성이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음

3) 피로를 풀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지원 필요

- 설문조사결과 60대 이상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상태가 다른 연령대보다 좋지 않았으며 우울증의 경우도 이혼·별거 중인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이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건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다. 농촌지역의 일자리 실태

1) 6차산업, 마을기업, 창업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할 대행서비스 기관 필요

- 농촌지역 여성들은 창업과 6차산업은 몫돈마련과 판로개척이 어렵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며 고용유지도 어려워 농업 관련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설문조사결과 30~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향후 농업관련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농업인보다 여성 비농업인이 더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창업할 의사가 있어도 농사일이 바빠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언제 시작을 해야 하며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를 관리하는지를 잘 몰라 창업을 하지 못했음. 따라서 6차산업, 마을사업, 창업에 농촌지역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서비스 기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일자리 관련 교육센터 필요

-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사업'(32.4%)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외자 유치기업 등으로 농촌지역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의 변화를 반영한 농촌지역의 인적자원구축 교육컨텐츠가 필요함. 이를 수행할 교육센터도 필요함.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들의 직종발굴을 위해 집근처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이에 적합한 자격증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농촌 전 지역의 브랜드개발

- 심층면접결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자신의 밭에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로 봄.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전 지역을 관광화해 사계절 브랜드개발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2. 지원방안

-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지원방안은 아래 표와 같음

〈 분야별 지원방안 〉

구분	지원방안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지원 필요 ▶ 농촌지역 주민 대상 양성평등교육실시 ▶ '농촌지역 여성 문화의 날' 제정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 농번기 일손부족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 판로개척지원 ▶ 여성 농업인 전담공무원 필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	▶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인프라구축 ▶ 농촌지역 관광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일자리 연구지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4. 연구절차	7

제2장 이론적 논의

1. 용어의 개념	11
가. 농촌 및 농촌지역 여성의 개념	11
나. 여성 농업인과 여성 비농업인의 개념	11
2. 선행연구 검토	12
가. 농촌관련 연구	12
나. 농촌지역 여성관련 연구	14
다. 여성 농업인관련 연구	15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관련 현황	16
가. 농촌지역 및 농업 일반현황	16
나.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19
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관련 정책	20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7
가. 조사대상 및 방법	27
나. 조사내용	29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2.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31
가. 개인생활	31

나. 가정생활	46
다. 지역사회활동	53
라. 경제적 상황	56
마. 거주환경	64
바.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욕구	70
3.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	76
가. 영농실태	76
나. 의사결정권	86
4.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	90
가. 일자리유형	90
나. 농업 유지 또는 창업의향	93
다.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욕구	97
5. 소결	99

제4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심층면접 조사개요	107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기간	107
나. 면접내용	108
2. 분석결과	109
가.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109
나.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115
다.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	120
라.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욕구	123
3. 소결	131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지원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137
2. 지원방안	141

표 목 차

〈표 1-1〉 제주지역 귀농·귀촌 인구(2009~2013)	3
〈표 1-2〉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2014)	3
〈표 1-3〉 성별 농가 인구(2010~2014)	4
〈표 1-4〉 연구절차	7
〈표 2-1〉 연도별 전국 성별 농가 인구 추이	17
〈표 2-2〉 연도별 연령별 전국 농가인구 추이	17
〈표 2-3〉 전국 시·도별 남녀 농가인구현황 및 농가인구비율(2014)	18
〈표 2-4〉 전국 여성농가인구의 농업 주종사자 변화추이	19
〈표 2-5〉 전국 연도별 여성경영주 비중	19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농촌지역 여성인구현황	20
〈표 2-7〉 제주지역 성별 농가 인구(2010~2014)	21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20세 이상 연령별 모집단 여성인구현황	28
〈표 3-2〉 조사표본	28
〈표 3-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29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3-5〉 연령·농업여부별 건강상태	32
〈표 3-6〉 연령·혼인유형·가구형태·농업여부별 우울증 경험	33
〈표 3-7〉 연령·농업여부별 종합건강검진	34
〈표 3-8〉 연령·농업여부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35
〈표 3-9〉 연령·농업여부별 여가시간	36
〈표 3-10〉 연령·농업여부별 여가활동	37
〈표 3-11〉 연령·농업여부별 문화생활	38
〈표 3-12〉 연령·농업여부별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1순위)	39
〈표 3-13〉 연령·농업여부별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	40

〈표 3-14〉 지역 · 연령 · 농업여부별 교육경험	41
〈표 3-15〉 연령 · 농업여부별 교육훈련프로그램(복수응답)	42
〈표 3-16〉 연령 · 농업여부별 교육훈련 참여시 불편 사항(1순위)	43
〈표 3-17〉 연령 · 농업여부 · 고향별 교육훈련 희망여부	44
〈표 3-18〉 연령 · 농업여부별 희망 교육프로그램	45
〈표 3-19〉 연령 · 농업여부별 1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본인)	46
〈표 3-20〉 연령 · 농업여부별 1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배우자)	47
〈표 3-21〉 연령 · 농업여부별 돌봄노동 유무	48
〈표 3-22〉 연령 · 농업여부별 미취학 아동 주요 돌봄자	49
〈표 3-23〉 연령 · 농업여부별 학령기 자녀 양육 시 아쉬운 조건	50
〈표 3-24〉 연령 · 농업여부별 가족생활 중 힘든 점	51
〈표 3-25〉 가족 간 대화빈도	52
〈표 3-26〉 가족 관계 만족도	53
〈표 3-27〉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모임 · 단체 유무	54
〈표 3-28〉 연령 · 농업여부별 가입단체(복수응답)	55
〈표 3-29〉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모임 ·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56
〈표 3-30〉 지역별 여성 농업인 1년 전체 농가소득	57
〈표 3-31〉 여성 비농업인 월평균 근로소득	58
〈표 3-32〉 여성 비농업인 월평균 가구소득	58
〈표 3-33〉 연령 · 농업여부별 재산(복수응답)	59
〈표 3-34〉 연령 · 농업여부별 가계부채	60
〈표 3-35〉 연령 · 농업여부별 국민연금(농어민연금) 가입	61
〈표 3-36〉 연령 · 농업여부별 지출부담(1순위)	62
〈표 3-37〉 연령 · 농업여부별 가구 전체 소득 중 본인 기여도	63
〈표 3-38〉 연령 · 농업여부별 가구 전체소득 중 사용권한(경제권)정도	64
〈표 3-39〉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 만족도	65

<표 3-40> 지역별 · 연령 · 농업여부별 거주지역 불편한 점	66
<표 3-41> 연령 · 미성년 자녀 · 농업여부별 이사 의향	67
<표 3-42> 연령 · 미성년 자녀 · 농업여부별 이사 이유	68
<표 3-43> 여성 · 아동 · 노인의 범죄 · 사고 위험정도	69
<표 3-44>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 · 제도 인지 · 이용여부	70
<표 3-45> 농촌지역 여성의 복지제도 확대 욕구	71
<표 3-46>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72
<표 3-47> 연령 · 농업여부별 고령여성 지원정책	73
<표 3-48> 지역 · 연령 · 농업여부별 후계여성 농업인 영농정착 위한 제도	74
<표 3-49> 연령 · 농업여부별 젊은 여성유입을 위한 선결과제	75
<표 3-50>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결혼 전 농사경력	76
<표 3-51>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결혼 후 농사경력	77
<표 3-5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규모(시설)	78
<표 3-53>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규모(노지)	80
<표 3-54>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업 생산물	81
<표 3-55>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축산물 판매소득	82
<표 3-56>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사일 분담정도	83
<표 3-57>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하루 평균 농사시간	84
<표 3-58> 여성 농업인의 지역 · 연령별 필요한 농작업 기계	85
<표 3-59> 여성 농업인의 연령 · 농가소득별 농업경영체 등록	86
<표 3-60>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가 경영주	88
<표 3-61>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자	88
<표 3-6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업경영 시 의사결정 정도	89
<표 3-63> 여성농업인의 지역 · 연령별 겸업 유형	90
<표 3-64> 여성 농업인의 연령 · 미성년 자녀유무별 겸업이유 (1순위)	91
<표 3-65> 여성 비농업인의 연령별 직업유형	92

〈표 3-66〉 연령·농업여부별 유지 또는 신규 농사 의향	93
〈표 3-67〉 연령·농업여부별 유지 또는 신규 농사 의향이 없는 이유	94
〈표 3-68〉 연령·농업여부별 향후 농업관련 다른 분야 창업 의사	95
〈표 3-69〉 연령·농업여부별 농업관련 창업 희망 분야	96
〈표 3-70〉 연령·농업여부별 농촌지역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97
〈표 3-71〉 연령·농업여부별 농촌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소득증대위한 사업 ..	99
〈표 4-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07
〈표 4-2〉 심층면접 질문내용	108

그 립 목 차

〈그림 3-1〉 노인·아동·여성의 위험 종류(복수응답)	69
〈그림 3-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겸업여부	78
〈그림 3-3〉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경 방식	8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97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쇠퇴 및 농업의 축소 등 농촌지역 사회의 위기를 초래함. 이러한 농촌지역의 변화는 농가수의 감소, 농촌지역의 여성화, 고령화로 나타남
-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와 전원생활 희망, 대안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의 증가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농촌지역 인구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함

〈표 1-1〉 제주지역 귀농·귀촌 인구(2009~2013)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2	2013
귀농·귀촌	48	177	245	422	478	1,04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실태조사 및 정착지원방안 연구」(2014)

- 국가차원에서도 2004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 지역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1차 기본계획(2005~2009년), 제2차 기본계획(2010~2014년), 제3차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와 달리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2012년부터 2014년 산업별 성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64.4%에서 53.5%로 줄어들었지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2〉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2014)

(단위: 천명)

구분	2012			2013			201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농림어업	64.4	27.2	37.1	65.2	30.0	35.2	53.5	24.8	28.7
제조업	11.8	4.7	7.1	13.3	4.8	8.5	11.7	4.2	7.4
건설업	26.0	1.9	24.1	24.4	1.5	22.9	23.2	1.5	21.7
도소매업	36.6	18.4	18.2	39.9	20.5	19.4	46.0	22.5	23.5
운수업	14.1	1.2	12.8	16.6	0.8	15.8	21.8	2.0	19.8
숙박 및 음식점업	25.2	18.0	7.3	29.9	19.6	10.3	42.8	26.6	16.1

자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2015)

- 2014년 제주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인구는 109,510명이며 여성 농업인의 수는 53,996(49.3%)명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2010년부터 2014년 성별 농가 인구를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수가 줄어들고 있음

〈표 1-3〉 성별 농가 인구(2010~2014)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0	전체	114,539	57,555	56,984	50.2
	제주시	64,880	32,619	32,261	50.3
	서귀포시	49,659	24,936	24,723	50.2
2011	전체	114,062	56,704	57,357	49.7
	제주시	65,476	32,537	32,939	49.7
	서귀포시	48,586	24,167	24,419	49.7
2012	전체	113,298	56,554	56,744	49.9
	제주시	66,127	32,803	33,324	49.6
	서귀포시	47,171	23,751	23,421	50.4
2013	전체	111,745	55,340	56,405	49.5
	제주시	66,994	32,932	34,063	49.2
	서귀포시	44,751	22,408	22,343	50.1
2014	전체	109,510	53,996	55,515	49.3
	제주시	64,509	31,628	32,881	49.0
	서귀포시	45,001	22,367	22,634	49.7

자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2015)

- 제주지역 농업종사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농업기여도에 비해 적합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가구를 살펴보면 전체 45,382호 중 여성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는 12,253호로 26.9%였음
 -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또한 2011년 10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한 반면, 2014년에는 위원회가 6개로 줄었으며 6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이 41.6%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 도우미지원사업(영농, 가사)의 경우 2011년 1,175명이 지원을 받은 반면 2014년에는 795명만 지원을 받았음. 관련 예산 또한 742백만원에서 267백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현재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역량강화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수립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제3차 기본계획('11~'15) 5개 영역: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인프라 강화
 - 제4차 기본계획('16~'20) 5개 영역: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지역 구현, 여성 농업인 직업역량강화, 여성 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 지역 여성 주체 양성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촌지역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부족' 등으로 나타남(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생활, 복지, 일자리육구 및 정책육구 등 실태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7개읍(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과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3개면(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여성의 노동, 양육, 건강, 안전 등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전국 및 제주 농촌지역 여성(귀농·귀촌, 농가 및 여성 농업인) 관련 통계파악
- 국외, 국내, 제주 농촌지역 정책, 농업정책, 여성 농업인 지원정책 분석
- 농촌지역 여성 실태 조사 실시: 경제활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교육, 건강, 안전,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복지, 정책인지도 및 수요 등
-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제안

3.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농촌 및 농업, 여성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조사, 관련 농촌지역 여성 및 농어촌계 관계자 25명을 인터뷰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문헌연구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관련연구, 여성 농업인 실태 관련 통계, 관계법령, 타 지자체 사례 등 문헌 연구
- 중앙 및 제주 관련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나.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관련 부서 의견수렴
 - 내용: 연구범위, 설문지(안) 검토,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 일시: 2016. 2.24(1차), 3.7(2차), 5.26 & 5.30(3차)
-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 내용: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자문
 - 일시: 자문회의 (2016. 2.4 & 5.3)(2회), 설문지(안) 의견수렴(2016. 3.2~3.7)

다.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농업/비농업 성인여성 509명(인구·연령할당 후 유의표집)
 - 조사 방법 : 농업여부 고려한 유의표집 후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교육, 건강, 안전,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복지, 정책인지도, 정책욕구 등임
 - 조사기간 : 3.21 ~ 3.31

라. 심층면접 조사

- 제주지역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농업/비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 산업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조사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됐음
-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 산업 관계자에 관한 질문에는 농촌지역에 살게 된

이유,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 현 직업을 갖게 된 이유, 가정생활의 어려움, 농업종사의 어려움, 구인·구직의 어려움, 건강 및 사회참여 경험, 지원정책 경험과 욕구, 일자리 욕구 등이 포함됨

4. 연구절차

- 본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의 노동, 양육, 건강, 안전 등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조사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1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음. 또한 1·2차 관련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연구범위, 설문지(안)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쳤음. 그리고 설문지(안)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지역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반영해 설문지를 수정보완 했음. 마지막으로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결과와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정리했음
-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표 1-4>과 같음

<표 1-4> 연구절차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검토
	▷ 자문회의(1차) ▷ 1·2차 간담회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 설문지(안)논의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2.24~3.7)
2단계	▷ 설문지설계	⇔	▷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 문항 수 등 최종 설문지 작성
	▷ 설문지(안)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6. 3.2~3.7)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3.24~3.7) ▷ 사전조사 실시(2016. 2.25~3.7)
3단계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조사(설문 조사)	⇔	▷ 「제주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2016. 3.21~3.31)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조사(당사자 인터뷰)		▷ 농촌지역 여성 및 농촌지역 6차산업 관계자 인터뷰 (2016. 2.25~4.12)
4단계	▷ 자문회의(2차)	⇔	▷ 전문가 의견 수렴(2016. 5.3)
	▷ 3차 간담회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6. 5.26 & 5.30)
	▷ 지원방안 마련		▷ 연구결과에 기초한 지원방안 자문

이론적 논의

1. 용어의 개념
2. 선행연구 검토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관련 현황

1. 용어의 개념

가. 농촌 및 농촌지역 여성의 개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촌이란 읍·면 지역, 또는 읍·면 지역 외 그 지역에서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농촌과 어촌에 대한 구분 없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거주 지역 중 농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좁은 의미의 읍면으로 한정함.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농복합지역이며 동지역까지 포함하면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대한 연구가 되기 때문에 12개 읍면을 농촌지역으로 정의함
-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이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말함

나. 여성 농업인과 여성 비농업인의 개념

-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법에 의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여성 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여성을 말함. 농업인의 범위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함(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근거함)
- 농가란 10a(약300평)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의미함.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인척을 의미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함(통계청, e-나라지표)

- 전업농가란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임. 겸업농가란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함(통계청, 201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농업인은 전업농가 또는 겸업농가의 여성 가구원을 의미하며 여성 비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여성 가구원으로 정의함

2. 선행연구 검토

가. 농촌관련 연구

- 농촌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연구, 농촌 일자리 창출연구, 농촌의 노동력 확보방안 등의 연구가 있음
- 농촌지역의 삶의 질 연구로는 송미령·노승철(2013)의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연구가 있으며 송미령·노승철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은 주거환경, 경제활동, 보건·복지, 교육여건, 문화·여가생활, 환경으로 나누어지며 농촌지역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각 영역을 도시와 비교해 도시의 수준으로 농촌지역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성주인·김용욱·박자경(2015)은 「협업과 현장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삶의 질을 보건복지·안전, 교육, 문화·여가, 경제·일자리, 환경경관·정주로 분류함. 성주인·김용욱·박자경(2015)은 농촌지역 노인을 고려해 복지관을 찾아가는 복지가 아닌 복지수혜자들에게 찾아오는 복지를 제안하고 있음. 또한, 휴일과 휴식이 없는 농촌지역 생활이 삶의 질을 낮추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송미령·권인혜(2014)는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통해 농촌지역 마을

-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양호하나 문화·여가, 지역경제, 주거생활이 보건·복지, 교육, 지역사회교류보다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삶의 질은 주거환경, 경제생활, 보건복지·안전, 교육, 문화·여가, 경제생활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음.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음.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가정은 경제와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기초임. 특히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농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일자리의 경우 송미령·민자혜(2013)는 「농촌의 일자리 창출사례78선」에서 농촌의 일자리를 농업기반 6차산업, 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일자리로 분류하고 크게 3가지 유형을 농촌지역 일자리로 제시하고 있음. 심재현·노승철(2014)은 「농촌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의 문제는 한시적 일자리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부족현상이 늘 나타남. 그래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가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제조업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의 일자리는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 판로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촌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승진·김철민(2013)은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 노동력확보 방안」 연구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근로인력·외국인근로자·이주여성에 대한 DB구축과 이들이 장기계약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인력은행 등을 설치해 잠재노동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김병률 외(2010)는 농업부문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농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농업분야의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함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주요 노동력인 여성을 후계영농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나. 농촌지역 여성관련 연구

- 농촌지역 여성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농촌지역 여성 보육지원,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지역 생활경험연구 등이 있음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관련 연구로는 경기도의회(2014)의 「경기도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농업 참여 실태, 가족 내 역할, 지역사회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경기도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농촌 여성들은 농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와 문화시설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농업여성은 일반여성보다 여가시간이 적으며 정보활용도가 낮아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봄. 농업여성은 특히, 가사와 농사의 이중부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 농촌의 남성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의 보육과 관련해 정희훈(2015)의 「경북 농촌보육정보센터, 농촌여성 종합지원기능 강화해야」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고 있지만 여성 농업인의 고충에는 자녀보육과 자녀의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지역 생활경험연구에서는 진명숙·박성정(2012)이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생활경험 분석:진안지역 사례”에서 귀농귀촌 한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신을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으로 인식하며 농업외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며 마을주민들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강대구(2007)는 귀농귀촌의 이주동기를 ‘농촌지역 생활선호집단’, ‘이상추구집단’, ‘사업실패집단’, ‘도시생활 문제 집단’, ‘퇴직집단’, ‘영농승계집단’, ‘건강문제집단’, ‘기타집단’으로 세분화해 이주동기에 따라 농촌지역 이주 양상이 다르지만, 농촌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은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치지향적 삶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음
- 농촌지역 여성실태와 귀농·귀촌여성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 여성들은 농촌지역이라는 공간보다 농촌지역의 문화와 보건·문화시설부족,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업외 일자리를 선호하는 농촌지역 여성이 있다는 사실임

다. 여성 농업인관련 연구

- 여성 농업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조사, 여성 농업인 일자리지원방안, 선진국 여성 농업인 지원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2014)의 「2013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를 영농경력, 농업활동 담당정도, 농사소득에 대한 기여도, 농업생산의 소득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2008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여성 농업인들이 자신을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농사일 비중도 남편과 같거나 2008년보다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강경희(2007)는 「제주 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은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고 농사일도 여성본인이 '50% 정도'담당하지만 자신을 전문직 농업인이기보다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여성 농업인이라는 분명한 개념과 여성후계자 양성 교육마련 등 인식변화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인식에 대한 변화도 개선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 여성 농업인 일자리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허미영(2015)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활성화방안 연구」가 있으며 허미영은 농업과 다양한 서비스산업으로 로컬푸드, 도시농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 어린이 대상 체험농장, 돌봄 및 치유농업 등을 제시하면서 농업기반 여성일 자리를 창출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한 생산기반확대와 더불어 소비확대방안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농업기반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함께 추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일자리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 농업인 자신의 인식변화도 필요하지만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변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조성도 필요함을 엿볼 수 있음
- 한편, 선진국 여성 농업인 지원관련 연구로는 가와테도쿠아(2013)의 “일본 6차산업화 정책동향: 여성 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가 있음. 가와테도쿠아(2013:7-28)는 일본농업도 한국농업처럼 후계자가 남성이며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업이 많지만 농촌지역에서 겸업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일본농업도 한국처럼 6차산업에서 여성을 중요한 경영주체로 평가하면서 농촌지역 여성기업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음. 농촌지역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지역산물을 활용해 주된 경영을 하고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일본은 농촌지역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개별경영과 그룹경영으로 유형화해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와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경제생활, 보건복지·안전, 교육, 문화·여가, 경제생활, 특히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지속적인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여성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조성과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농촌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농촌지역의 여성일자리실태로 나누어서 연구하려고함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관련 현황

- 이절에서는 전국 농촌지역 여성 및 여성 농업인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 현황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가. 농촌지역 및 농업 일반현황

- 197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이농현상’은 <표 2-1>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쇠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촌지역 인구는 각 시·도마다 농촌지역을 읍면으로 볼 것인가 또는 도농복합지역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전국의 농촌지역 상황을 비교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농가인구를 성별로 그 추이를 비교해보면 남성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 농촌지역의 여성인구는 ‘농촌의 여성화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임을 알 수 있음

〈표 2-1〉 연도별 전국 성별 농가 인구 추이

(단위: 천명)

구분	농가인구	남성		여성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70	14,422	7,164	49.7	7,258	50.3
'80	10,827	5,415	50.0	5,412	50.0
'85	8,521	4,246	49.8	4,275	50.2
'90	6,661	3,279	49.2	3,382	50.8
'95	4,851	2,373	48.9	2,478	51.1
'00	4,032	1,972	48.9	2,060	51.1
'05	3,433	1,676	48.8	1,757	51.2
'10	3,063	1,501	49.0	1,562	51.0
'11	2,962	1,456	49.2	1,506	50.8
'12	2,912	1,424	48.9	1,488	51.1

주: 여성 농업인 광장에서 재인용

○ <표 2-2>는 연도별 연령별 전국 농가인구추이를 나타낸 표임. 1970년 이후 2012년까지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의 농가인구 중 10대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60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12년 이후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농가의 47%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고령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표 2-2〉 연도별 연령별 전국 농가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14세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농가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70	6,271	43.5	1,497	10.4	4,404	30.5	1,107	7.7	1,143	7.9	14,422	100
'80	3,230	29.8	1,684	15.6	3,701	34.2	1,074	9.9	1,138	10.5	10,827	100
'90	1,370	20.6	734	11.0	2,259	33.9	1,111	16.7	1,187	17.8	6,661	100
'00	459	11.4	262	6.5	1,301	32.3	676	16.8	1,333	33.1	4,032	100
'10	270	8.8	133	4.3	793	25.9	587	19.2	1,279	41.8	3,063	100
'11	169	5.8	127	4.4	699	24.1	593	20.5	1,307	45.1	2,962	100
'12	152	5.3	125	4.4	653	22.9	573	20.1	1,344	47.2	2,912	100

주: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방안」(2013: 11)에서 재구성

○ <표 2-3>는 2014년 전국 시도별 남녀농가인구현황 및 농가인구비율임. 시·도별로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라남도가 20.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18.8%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알 수 있음

〈표 2-3〉 전국 시·도별 남녀 농가인구현황 및 농가인구비율(2014)

(단위: 명, %)

행정구역구분	전체인구	농가인구(명)	농가인구(남)	농가인구(여)	농가인구비율
전국	50,423,955	2,751,792	1,339,783	1,412,009	5.5
서울특별시	9,890,661	8,689	3,980	4,709	0.1
부산광역시	3,411,930	19,935	9,766	10,169	0.6
대구광역시	2,459,901	49,187	25,045	24,142	2.0
인천광역시	2,858,348	32,089	15,839	16,251	1.1
광주광역시	1,515,992	32,062	15,839	16,251	2.1
대전광역시	1,545,717	27,590	13,531	14,058	1.8
울산광역시	1,138,225	29,687	14,495	15,192	2.6
세종특별자치시	133,819	15,312	7,571	7,741	11.4
경기도	12,280,678	374,872	186,278	188,594	3.1
강원도	1,501,041	172,026	85,297	86,729	11.5
충청북도	1,558,912	187,752	92,687	95,065	12.0
충청남도	2,078,771	328,993	158,926	170,067	15.8
전라북도	1,797,031	250,581	122,465	128,116	13.9
전라남도	1,758,340	355,601	166,586	189,015	20.2
경상북도	2,640,441	446,920	217,473	229,448	16.9
경상남도	3,273,079	310,985	148,862	162,123	9.5
제주특별자치도	581,069	109,510	55,515	53,996	18.8

출처: 통계청, 「추계인구조사」와 「농림어업조사」(2014)에서 재구성

나.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농가인구 중 전업농가에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표2-4>를 통해 70년대는 28.3%, 2005년에는 51.9%, 2012년에는 53.0%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전국 여성농가인구의 농업 주종사자 변화추이

(단위: 천명, %)

		1970				2005				2012			
		계	남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여성%
농가 인구	전체	14,422	7,164	7,258	50.3	3,433	1,676	1,757	51.2	2,912	1,424	1,488	51.1
	15세 이상	8,150	3,932	4,218	51.8	3,098	1,498	1,600	51.6	2,695	1,308	1,387	51.5
농업 주종사자 인구 ¹⁾		4,119	2,952	1,167	28.3	2,121	1,020	1,101	51.9	1,754	825	929	53.0

주: 여성 농업인 광장에서 재인용

- 국내 여성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체의 주체로 등록하는 비중도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2011년 감소했으며 2012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표 2-5>를 통해 알 수 있음. 그러나 농촌의 여성화와 농가인구중 여성의 인구가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남성에 비해 농가경영체 등록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2-5> 전국 연도별 여성경영주 비중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1,136 (83.9)	1,804 (84.7)	1,060 (83.9)	1,033 (83.3)	1,056 (83.0)	1,033 (82.9)	1,107 (82.6)	995 (82.1)	975 (81.7)	959 (81.5)	984 (84.5)	964 (83.8)
여성	217 (16.1)	196 (15.3)	204 (16.1)	207 (16.7)	217 (17.0)	213 (17.1)	214 (17.4)	217 (17.9)	219 (18.3)	218 (18.5)	180 (15.5)	187 (16.2)

주: 여성 농업인 광장에서 재인용

1) 본 연구에서는 주종사자를 전업농가로 봄

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관련 정책

- 이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지역 여성현황과 여성 농업인 현황, 농촌지역 및 농업관련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1)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현황

- 2016년 현재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여성들의 수는 <표 2-6>과 같음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농촌지역 여성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주민등록여성인구수
총계	82,625
한림읍	9,635
애월읍	15,167
구좌읍	7,275
조천읍	10,292
한경면	4,220
대정읍	9,394
남원읍	9,122
성산읍	6,999
안덕면	4,884
표선면	5,637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2월)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지역 농가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표 2-7>), 2010년 제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성의 인구는 50.2%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이후 2014년 49.3%로 농가여성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과 비교해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성인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7〉 제주지역 성별 농가 인구(2010~2014)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0	전체	114,539	57,555	56,984	50.2
	제주시	64,880	32,619	32,261	50.3
	서귀포시	49,659	24,936	24,723	50.2
2011	전체	114,062	56,704	57,357	49.7
	제주시	65,476	32,537	32,939	49.7
	서귀포시	48,586	24,167	24,419	49.7
2012	전체	113,298	56,554	56,744	49.9
	제주시	66,127	32,803	33,324	49.6
	서귀포시	47,171	23,751	23,421	50.4
2013	전체	111,745	55,340	56,405	49.5
	제주시	66,994	32,932	34,063	49.2
	서귀포시	44,751	22,408	22,343	50.1
2014	전체	109,510	53,996	55,515	49.3
	제주시	64,509	31,628	32,881	49.0
	서귀포시	45,001	22,367	22,634	49.7

자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2015)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2012년 농업경영체등록은 43,308호이며 여성농업경영체등록은 10,129호로 여성농업경영체 등록비율은 19.0%였음. 같은 자료에서 2014년 농업경영체등록은 45,382호이며 여성농업경영체등록은 12,253호로 여성농업경영체 등록비율은 21.3%로 2012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앞의 <표 2-5>와 비교해볼 때 제주지역의 경우 2012년과 2014년 각각 여성농업경영체 등록비율이 전국보다 높으며 2012년보다 2014년이 다소 증가한 것을 토대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들은 '자신을 농업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관련 지원조례

- 제주 농촌지역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수립과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등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시책수립과

시행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농어촌지역의 지정을 명시함으로써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도 있음

-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와 농어민인 육성과 농촌지역 지역의 교육지원과 자녀통학비지원, 고령농업인지원, 농업기술지원, 농어민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육성 등에 대한 조례들이 있음

- 농어민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설치를 통한 농업경쟁력확보와 영농승계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선도노업인육성기금조례」가 있으며 농어업의 가계승계를 지원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가 있음. 또한 농업유산을 발굴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가 있으며 농업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 그리고 농업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지역 기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조례」가 있음

- 농촌지역 교육지원과 자녀통학비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도내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가 있음

- 농업을 통한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이 있음

-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농업관련 시험과 분석을 의뢰하는 절차와 수수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음

- 농촌지역 여성과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켜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의 주체로 발전·육

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조례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과 여성 농업인관련 조례는 하나밖에 없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도 거주환경의 개선, 농업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육성, 고령농민과 여성농민에 대한 권익보호 및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반면, 농촌지역의 문화지원, 농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발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정책

- 이 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지역 ·농업관련 정책 중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성관련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여성·여성 농업인을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첫째는 여성 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향상과 권리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둘째는 여성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셋째는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로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넷째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다섯 번째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육성계획을 세워 해마다 수립 후 그 시행실적을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 자세히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 첫째, 여성 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향상과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후계농 및 영농규모화사업」시 여성 우선선발로 여성 농업인을 우선지원하고 있음. 또한 「농정관련 정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음. 2014년 6개 위원회에 위촉위원 84명중 35명이 여성위원임(41.6%)(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둘째, 여성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전문농업인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촌 여성정보지구독’ 지원과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활동’ 지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시 여성농업경영체를 우선순위로 부여하는 사업이 있음. 또한 여성 농업인의 소규모창업을 위해 향토자원 및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창업활동지원사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발굴 및 예비인증 사업이 있음.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게 농기계 사용교육

과 영세농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 있음

- 셋째,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로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교육’ 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사무장 채용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귀농 및 이주 여성의 정착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넷째,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전후 및 취약계층 대상 ‘농어가 도우미사업’ 인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농촌지역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과 3개 보건소에서 한방 Hub보건소 운영, 농촌지역의 보육개선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확충, ‘농촌 영유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농어촌의 열악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여성 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후 자문회의를 거치지만 자문회의 일뿐 자문위원들의 결정권이 없어는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지역 여성관련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들이 많으며,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인 경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라 수혜대상자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최근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구성원의 변화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지원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함.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이 세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행된 적이 없었음. 따라서 여성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3.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
4.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
5. 소결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이에 조사대상자를 2016년 2월말 기준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나이, 농업종사여부에 따른 층화 및 유의표집을 통하여 509명을 할당 표집하였음
- 「제주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성인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함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7개읍(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과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3개면(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성인여성을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가구’는 통계청 가구정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표집방법은 실태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읍면),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표집 후 농업인과 비농업인²⁾을 고려한 유의표집을 실시함
 - 할당의 경우, 각 지역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기준으로 조사표본이 모집단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하였음
 - 2016년 2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읍면, 연령별 20세 이상 여성인구는 <표 3-1>과 같음

2)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과의 비교를 위해 비농업인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함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20세 이상 연령별 모집단 여성인구현황

(단위:명)

구분	주민등록여성 인구수	20대이상여성 인구수	20대~30대	40대~50대	60대~70대	80대이상
총계	82,625	68,237	17,054	25,046	19,010	7,127
한림읍	9,635	8,026	1,985	3,012	2,223	806
애월읍	15,167	12,125	3,402	4,638	2,948	1,137
구좌읍	7,275	6,208	1,445	1,971	1,907	885
조천읍	10,292	8,411	2,301	3,178	2,191	741
한경면	4,220	3,621	723	1,167	1,174	557
대정읍	9,394	7,616	1,861	2,874	2,113	768
남원읍	9,122	7,550	1,869	2,757	2,207	717
성산읍	6,999	5,902	1,322	2,192	1,723	665
안덕면	4,884	4,065	993	1,422	1,185	465
표선면	5,637	4,713	1,153	1,835	1,339	386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2월)

○ 최종 할당된 조사표본은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표본

(단위:명)

구분	조사표본	농업	비농업	20대~30대	40대~50대	60대~70대	80대이상
총계	509	368	141	110	194	154	51
한림읍	59	40	19	10	23	20	6
애월읍	95	65	30	18	33	34	10
구좌읍	49	39	10	10	16	18	5
조천읍	58	41	17	15	25	13	5
한경면	27	21	6	7	10	7	3
대정읍	56	45	11	12	22	17	5
남원읍	55	43	12	13	21	15	6
성산읍	42	33	9	10	16	12	4
안덕면	32	23	9	9	12	8	3
표선면	36	18	18	6	16	10	4

주: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도면, 추자면 제외함

○ 조사방법은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면접원에 의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3월21일 ~ 3월 31일임

○ 유의수준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4\%$ 임

나. 조사내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을 구성함
- 설문내용을 구성 한 후 자문위원들을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이후 농촌지역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예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 유무, 표현의 명확성, 문항 수, 질문의 순서 효과 등을 확인하여 최종설문지를 완성함
- 조사내용은 경제생활, 가족생활, 여가·문화·교육·지역사회활동, 건강·복지·안전,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수요, 개인관련 사항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3-3>과 같음

<표 3-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경제생활	농업활동유무, 겸업유형·이유, 직업의 종류 및 월소득·가구
	농업경력, 농업종사이유
	농사일담당, 영농시간, 농기계, 농지규모, 농업종사형태, 주작목
	판매금액, 전체농가소득, 자산규모, 농업경영체등록유무, 농가경영주, 농지소유
	의사결정, 가구소득의 본인기여율, 소득사용권한정도, 가계부채, 본인재산
	농업의향, 애로사항
	창업의향, 희망분야
가족생활	가사노동시간
	보육 유무, 보육 시간
	학령기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족생활의 어려움
	대화시간, 가족여가횟수, 가족만족도
여가·문화·교육·지역사회 활동	여가시간, 여가활동
	문화활동 경험, 어려운 점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교육경험, 교육내용, 교육수요, 교육참여 애로사항
	지역모임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생활만족
건강·복지·안전실태	건강정도, 종합검진 여부, 우울증여부
	지역만족도, 거주환경불만사항, 이사의향
	여성, 아동, 노인의 안전실태
	농촌지역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농촌 및 농업관련정책 요구	농촌 및 여성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복지수요
	정책수요(과중노동, 자녀보육,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참여, 고령노동, 후계영농, 젊은층 유입)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관련사항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유무, 자녀 수
	세대주여부
	최종학력
	배우자 직업, 국민연금 가입유·무
	수급여부, 가계부담되는 비용
	제주고향여부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4>와 같음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09	100.0	전체		509	100.0
지역	제주시 읍면	288	(56.6)	배우 자 직 업	전문·관리·사무직	61	(12.0)
	서귀포시 읍면	221	(43.4)		서비스·판매직	29	(5.7)
지역구분 (읍면)	제주시 동부	107	(21.0)		생산직·단순노무직	13	(2.6)
	제주시 서부	181	(35.6)		자영업자	48	(9.4)
	서귀포시 동부	133	(26.1)		농업·어업종사자·농 식품제조·농촌 체험	214	(42.0)
	서귀포시 서부	88	(17.3)		일하지 않음	17	(3.3)
연령	20~29세	37	(7.3)		배우자 없음	127	(25.0)
	30~39세	73	(14.3)		합계	509	(100.0)
	40~49세	90	(17.7)	가구 형태	1인가구	67	(13.2)
	50~59세	104	(20.4)		부부가구(2인)	135	(26.5)
	60~69세	67	(13.2)		부부+미혼자녀	204	(40.1)
	70~79세	87	(17.1)		한부모+자녀	69	(13.6)
혼인상태	80세이상	51	10.0)		조부모+부부+자녀	69	(13.6)
	미혼	40	(7.9)		기타(조손,부부+노부모)	13	(2.6)
	기혼	378	(74.3)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2	(2.4)
	이혼,별거	10	(2.0)		차상위가구	12	(2.4)
학력	사별	81	(15.9)		일반가구	485	(95.3)
	초졸이하	161	(31.6)		합계	509	100.0
	중졸	52	(10.2)	농업	농업	368	(72.3)
	고졸	168	(33.0)		비농업	141	(27.7)
고향	전문대졸이상	128	(25.1)				
	제주	418	(82.1)				
	비제주	91	(17.9)				

- 조사대상자는 지역별로 제주시읍면 288명(56.6%), 서귀포시읍면 221명(43.4%)으로 지역별 농촌지역 여성인구수를 고려해 표집함
- 연령별로는 50대(50~59세)가 20.4%로 가장 많고, 40대(40~49세)가 17.7%, 70대(70~79세)가 17.1%, 30대(30~39세)가 14.3%, 60대(60~69세)가 13.2%, 20대(20~29세)가 7.3%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 378명(74.3%)로 가장 많으며, 사별 81명(15.9%), 미혼 40명(7.9%), 이혼·별거 10명(2.0%)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 168명(33.0%)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 161명(31.6%), 전문대졸 128명(25.1%), 중졸 52명(10.2%)순으로 나타남
- 고향이 제주인 경우는 418명(82.1%)으로 고향이 제주가 아닌 경우 91명(17.9%) 보다 많았음
- 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 및 농업관련 6차산업 등 농어업종사자가 214명(42.0%)으로 가장 많았음
-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204명(40.1%)로 가장 많으며 부부가구(26.5%), 한부모가정과 3대가족이 13.6%, 1인가구(13.2%), 기타(2.6%)순으로 나타남
- 수급가구를 살펴본 결과 일반가구가 485명(95.3%)으로 가장 많음
- 본 조사에서는 농업인 368명(72.3%)이며, 비농업인이 141명으로 27.7%임

2.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활동, 경제적 상황, 거주 환경,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욕구로 구분하여 살펴봄

가. 개인생활

- 농촌지역 여성들의 개인생활을 개인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교육활동으로 구분해서 조사결과를 분석함

1) 건강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좋음(대체로 좋음+매우 좋음)이라는 응답비율이 39.6%로 나타남(<표 3-5>참조)
- 5점척도로 평균 3.12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연령과 농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5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60세 이상은 평균 3.12보다 낮음

〈표 3-5〉 연령·농업여부별 건강상태

(단위 : 명, %, 점)

구분		전혀 좋지 않음	별로 좋지 않음	보통	대체로 좋음(a)	매우 좋음(b)	건강 (a+b)	평균 (5점척도)	계	F
전체		7 (1.4)	135 (26.5)	179 (35.2)	166 (32.6)	22 (4.3)	188 (39.6)	3.12	509 (100.0)	
연령	20~29세	0 (0.0)	1 (2.7)	11 (29.7)	19 (51.4)	6 (16.2)	25 (67.6)	3.81	37 (100.0)	43.736***
	30~39세	0 (0.0)	4 (5.5)	31 (42.5)	30 (41.1)	8 (11.0)	38 (52.1)	3.58	73 (100.0)	
	40~49세	0 (0.0)	7 (7.8)	30 (33.3)	48 (53.3)	5 (5.6)	53 (58.9)	3.57	90 (100.0)	
	50~59세	1 (1.0)	12 (11.5)	45 (43.3)	45 (43.3)	1 (1.0)	46 (44.3)	3.32	104 (100.0)	
	60~69세	1 (1.5)	21 (31.3)	29 (43.3)	14 (20.9)	2 (3.0)	16 (23.9)	2.93	67 (100.0)	
	70~79세	2 (2.3)	54 (62.1)	24 (27.6)	7 (8.0)	0 (0.0)	7 (0.8)	2.41	87 (100.0)	
	80세이상	3 (5.9)	36 (70.6)	9 (17.6)	3 (5.9)	0 (0.0)	3 (5.9)	2.24	51 (100.0)	
농업여부	농업	4 (1.1)	113 (30.7)	129 (35.1)	116 (31.5)	6 (1.6)	122 (33.1)	3.02	368 (100.0)	17.281***
	비농업	3 (2.1)	22 (15.6)	50 (35.5)	50 (35.5)	16 (11.3)	66 (48.8)	3.38	141 (100.0)	

주: 5점 척도(1 전혀 좋지않음 ~ 5 매우 좋음), F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01

- 우울증에 대해 최근 1년간 연속 2주 동안 슬프거나 절망할 때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0.2%로 나타남(<표 3-6>참조)

○ 그러나 우울증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농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혼인유형과 가구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다른 가구보다 이혼·별거 중인 한부모 여성가장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필요함

〈표 3-6〉 연령 · 혼인유형 · 가구형태 · 농업여부별 우울증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전체		50 (9.8)	459 (90.2)	509 (100.0)	
연령	20~29세	3 (8.1)	34 (91.9)	37 (100.0)	1.640
	30~39세	9 (12.3)	64 (87.7)	73 (100.0)	
	40~49세	8 (8.9)	82 (91.1)	90 (100.0)	
	50~59세	12 (11.5)	92 (88.5)	104 (100.0)	
	60~69세	7 (10.4)	60 (89.6)	67 (100.0)	
	70~79세	7 (8.0)	80 (92.0)	87 (100.0)	
	80세이상	4 (7.8)	47 (92.2)	51 (100.0)	
혼인 유형	미혼	4 (10.0)	36 (90.0)	40 (100.0)	10.853*
	기혼	36 (9.5)	342 (90.5)	378 (100.0)	
	이혼·별거	4 (40.0)	6 (60.0)	10 (100.0)	
	사별	6 (7.4)	75 (92.6)	81 (100.0)	
가구 형태	1인가구	5 (7.5)	62 (92.5)	67 (100.0)	11.378*
	부부가구	12 (8.9)	123 (91.1)	135 (100.0)	
	부부+미혼자녀	14 (6.9)	190 (93.1)	204 (100.0)	
	한부모+자녀	4 (19.0)	17 (81.0)	21 (100.0)	
	조부모+부부 +자녀	13 (18.8)	56 (81.2)	69 (100.0)	
	기타(조손, 부부+노부모)	2 (15.4)	11 (84.6)	13 (100.0)	
농업여부	농업	36 (9.8)	332 (90.2)	368 (100.0)	0.002
	비농업	14 (9.9)	127 (90.1)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 농촌지역 여성들이 지난 2년 간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받아 본 적이 있다가 7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농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표 3-7>참조)
-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없으며 농업여부별로는 비농업종사자가 농업종사자보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령 · 농업여부별 종합건강검진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전체		391 (76.8)	118 (23.2)	509 (100.0)	
연령	20~29세	10 (27.0)	27 (73.0)	37 (100.0)	115.21***
	30~39세	35 (47.9)	38 (52.1)	73 (100.0)	
	40~49세	70 (77.8)	20 (22.2)	90 (100.0)	
	50~59세	96 (92.3)	8 (7.7)	104 (100.0)	
	60~69세	56 (83.6)	11 (16.4)	67 (100.0)	
	70~79세	80 (92.0)	7 (8.0)	87 (100.0)	
	80세이상	44 (86.3)	7 (13.7)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10 (84.2)	58 (15.8)	368 (100.0)	41.091***
	비농업	81 (57.4)	60 (42.6)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건강하기 때문에 33.9%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 31.4%,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14.4%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는 건강하기 때문이 각각 59.3%, 39.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50대·60대는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55.0%, 50.0%, 63.6%로 가장 많았음. 70대는 병원이 너무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42.9%,

80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42.9%로 가장 많았음. 농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70대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교통편(57.2%)과 비용부담(57.2%)으로 의료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8〉 연령·농업여부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시간이 없어서	병원이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병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기타	계	χ^2
전체		37 (31.4)	8 (6.8)	17 (14.4)	40 (33.9)	10 (8.5)	6 (5.1)	118 (100.0)	
연령	20~29세	3 (11.1)	1 (3.7)	2 (7.4)	16 (59.3)	1 (3.7)	4 (14.8)	27 (100.0)	65.650***
	30~39세	11 (28.9)	1 (2.6)	8 (21.1)	15 (39.5)	2 (5.3)	1 (2.6)	38 (100.0)	
	40~49세	11 (55.0)	1 (5.0)	1 (5.0)	5 (25.0)	2 (10.0)	0 (0.0)	20 (100.0)	
	50~59세	4 (50.0)	1 (12.5)	1 (12.5)	2 (25.0)	0 (0.0)	0 (0.0)	8 (100.0)	
	60~69세	7 (63.6)	0 (0.0)	1 (9.1)	1 (9.1)	2 (18.2)	0 (0.0)	11 (100.0)	
	70~79세	1 (14.3)	3 (42.9)	1 (14.3)	0 (0.0)	1 (14.3)	1 (14.3)	7 (100.0)	
	80세이상	0 (0.0)	1 (14.3)	3 (42.9)	1 (14.3)	2 (28.6)	0 (0.0)	7 (100.0)	
농업여부	농업	23 (39.7)	6 (10.3)	7 (12.1)	15 (25.9)	5 (8.6)	2 (3.4)	58 (100.0)	7.854
	비농업	14 (23.3)	2 (3.3)	10 (16.7)	25 (41.7)	5 (8.3)	4 (6.7)	6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여가 및 문화생활

-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여가활동시간을 물어 본 농촌지역 여성의 1주일 평균 여가활동시간은 6시간 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고 1주일 평균 8.8시간 정도로 나타남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20대와 80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1주일 평균 시간이 각각 13.2시간, 12.2시간으로 높았으며 6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적은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에 따라 농업종사여성의 1주일 평균 여가시간(8.3시간)이 비농업종사여성(10.1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아니면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또한 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여가시간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3-9〉 연령 · 농업여부별 여가시간

(단위 : 명, %)

구분		6시간 이하	7-12시간	13-24시간	25시간이상	평균(시간)	계	F
전체		255 (50.1)	133 (26.1)	103 (20.2)	18 (3.5)	8.8	509 (100.0)	
연령	20~29세	8 (21.6)	14 (37.8)	11 (29.7)	4 (10.8)	13.2	37 (100.0)	7.352***
	30~39세	44 (60.3)	13 (17.8)	13 (17.8)	3 (4.1)	7.6	73 (100.0)	
	40~49세	49 (54.4)	27 (30.0)	14 (15.6)	0 (0.0)	7.2	90 (100.0)	
	50~59세	50 (48.1)	32 (30.8)	17 (16.3)	5 (4.8)	8.8	104 (100.0)	
	60~69세	42 (62.7)	18 (26.9)	7 (10.4)	0 (0.0)	6.3	67 (100.0)	
	70~79세	42 (48.3)	18 (20.7)	25 (28.7)	2 (2.3)	9.4	87 (100.0)	
	80세이상	20 (39.2)	11 (21.6)	16 (31.4)	4 (7.8)	12.2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95 (53.0)	95 (25.8)	67 (18.2)	11 (3.0)	8.3	368 (100.0)	6.838**
	비농업	60 (42.6)	38 (27.0)	36 (25.5)	7 (5.0)	10.1	141 (100.0)	

주: F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1, ***p<.001

- 농촌지역 여성들이 TV시청을 제외하고 여가시간에 자주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 여성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이웃·친구모임 28.4%, 산책·운동 21.1%, 낮잠자기 14.0% 순으로 나타남(<표 3-10>참조)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여가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20대·30대는 컴퓨터와 인터넷(각각 24.3%, 17.8%)을 40대·70대·80대는 이웃·친구모임(각각 25.6%, 42.5%, 52.9%)을 50대·60대는 산책·운동(37.5%, 26.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에 따라 여성 농업인은 이웃·친구모임(31.7%)이 여성 비농업인은 산책·운동(21.3%)이 가장 많았음

〈표 3-10〉 연령·농업여부별 여가활동

(단위 : 명, %)

구분		신문, 책읽기	낮잠 자기	컴퓨터 인터넷	화투, 오락	산책, 운동	이웃, 친구모임	종교 활동	쇼핑, 니들이	취미 활동	자격 증 시험 준비	농산물(음식) 가공	단체 활동	기타	계	χ^2
전체		12 (2.4)	71 (14.0)	34 (6.7)	7 (1.4)	107 (21.1)	144 (28.4)	29 (5.7)	36 (7.1)	34 (6.7)	4 (0.8)	3 (0.6)	25 (4.9)	1 (0.2)	507 (100.0)	
연령	20~29세	2 (5.4)	4 (10.8)	9 (24.3)	0 (0.0)	5 (13.5)	5 (13.5)	2 (5.4)	4 (10.8)	4 (10.8)	2 (5.4)	0 (0.0)	0 (0.0)	0 (0.0)	37 (100.0)	225.62***
	30~39세	5 (6.8)	5 (6.8)	13 (17.8)	0 (0.0)	13 (17.8)	13 (17.8)	2 (2.7)	12 (16.4)	7 (9.6)	1 (1.4)	1 (1.4)	1 (1.4)	0 (0.0)	73 (100.0)	
	40~49세	2 (2.2)	6 (6.7)	9 (10.0)	0 (0.0)	19 (21.1)	23 (25.6)	3 (3.3)	7 (7.8)	11 (12.2)	1 (1.1)	1 (1.1)	7 (7.8)	1 (1.1)	90 (100.0)	
	50~59세	2 (1.9)	6 (5.8)	3 (2.9)	0 (0.0)	39 (37.5)	23 (22.1)	12 (11.5)	3 (2.9)	8 (7.7)	0 (0.0)	1 (1.0)	7 (6.7)	0 (0.0)	104 (100.0)	
	60~69세	0 (0.0)	11 (16.9)	0 (0.0)	2 (3.1)	17 (26.2)	16 (24.6)	5 (7.7)	6 (9.2)	2 (3.1)	0 (0.0)	0 (0.0)	6 (9.2)	0 (0.0)	65 (100.0)	
	70~79세	1 (1.1)	23 (26.4)	0 (0.0)	2 (2.3)	11 (12.6)	37 (42.5)	5 (5.7)	3 (3.4)	1 (1.1)	0 (0.0)	0 (0.0)	4 (4.6)	0 (0.0)	87 (100.0)	
	80세이상	0 (0.0)	16 (31.4)	0 (0.0)	3 (5.9)	3 (5.9)	27 (52.9)	0 (0.0)	1 (2.0)	1 (2.0)	0 (0.0)	0 (0.0)	0 (0.0)	0 (0.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 (0.8)	57 (15.6)	14 (3.8)	5 (1.4)	77 (21.0)	116 (31.7)	21 (5.7)	24 (6.6)	22 (6.0)	0 (0.0)	3 (0.8)	24 (6.6)	0 (0.0)	366 (100.0)	59.630***
	비농업	9 (6.4)	14 (9.9)	20 (14.2)	2 (1.4)	30 (21.3)	28 (19.9)	8 (5.7)	12 (8.5)	12 (8.5)	4 (2.8)	0 (0.0)	1 (0.7)	1 (0.7)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문화행사관람 여부 및 참여횟수에 대한 질문에 '없다'가 51.3%로 나타났으며 1년에 평균 1.5회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1> 참조)
- 문화관람 여부에 따라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문화행사 관람이 적으며 문화행사참여 횟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에 따라 농업종사여성이 비농업종사여성보다 문화행사 관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연령·농업여부별 문화생활

(단위 : 명, %, 회)

구분		없다	있다	평균(횟수)	계	χ^2
전체		261 (51.3)	248 (48.7)	1.5	509 (100.0)	
연령	20~29세	11 (29.7)	26 (70.3)	1.7	37 (100.0)	182.26***
	30~39세	16 (21.9)	57 (78.1)	1.8	73 (100.0)	
	40~49세	18 (20.0)	72 (80.0)	1.8	90 (100.0)	
	50~59세	42 (40.4)	62 (59.6)	1.6	104 (100.0)	
	60~69세	43 (64.2)	24 (35.8)	1.4	67 (100.0)	
	70~79세	81 (93.1)	6 (6.9)	1.1	87 (100.0)	
	80세이상	50 (98.0)	1 (2.0)	1.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04 (55.4)	164 (44.6)	1.4	368 (100.0)	9.192**
	비농업	57 (40.4)	84 (59.6)	1.6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26.5%로 나타남(<표 3-12>참조)

-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따라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대·30대·80대는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40대·50대·60대·70대는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음.
-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61.7%가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성 비농업인은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없어서가 43.3%로 가장 많았음
-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는 일이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윌 시간이 있어도 집 근처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집 근처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함

〈표 3-12〉 연령 · 농업여부별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둘보야 할 가족 있어서	일이 바빠 시간 없어서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 없어서	다른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기타	계	χ^2
전체		28 (5.5)	269 (52.8)	41 (8.1)	135 (26.5)	3 (0.6)	10 (2.0)	21 (4.1)	2 (0.4)	509 (100.0)	
연령	20~29세	2 (5.4)	11 (29.7)	3 (8.1)	19 (51.4)	0 (0.0)	1 (2.7)	1 (2.7)	0 (0.0)	37 (100.0)	110.01***
	30~39세	13 (17.8)	25 (34.2)	4 (5.5)	26 (35.6)	0 (0.0)	1 (1.4)	4 (5.5)	0 (0.0)	73 (100.0)	
	40~49세	4 (4.4)	46 (51.1)	6 (6.7)	27 (30.0)	2 (2.2)	1 (1.1)	4 (4.4)	0 (0.0)	90 (100.0)	
	50~59세	5 (4.8)	69 (66.3)	7 (6.7)	19 (18.3)	0 (0.0)	0 (0.0)	4 (3.8)	0 (0.0)	104 (100.0)	
	60~69세	3 (4.5)	49 (73.1)	8 (11.9)	6 (9.0)	1 (1.5)	0 (0.0)	0 (0.0)	0 (0.0)	67 (100.0)	
	70~79세	0 (0.0)	54 (62.1)	6 (6.9)	18 (20.7)	0 (0.0)	4 (4.6)	4 (4.6)	1 (1.1)	87 (100.0)	
	80세이상	1 (2.0)	15 (29.4)	7 (13.7)	20 (39.2)	0 (0.0)	3 (5.9)	4 (7.8)	1 (2.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6 (4.3)	227 (61.7)	25 (6.8)	74 (20.1)	2 (0.5)	7 (1.9)	15 (4.1)	2 (0.5)	368 (100.0)	46.915***
	비농업	12 (8.5)	42 (29.8)	16 (11.3)	61 (43.3)	1 (0.7)	3 (2.1)	6 (4.3)	0 (0.0)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촌지역 여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 49.5%로 가장 많지만 대체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한 만족이 13.4%로 나타남(<표 3-13>참조)
- 5점척도 평균 2.71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농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대체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한 만족이 여성 비농업인(18.4%)보다 여성 농업인(11.4%)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표 3-13〉 연령 · 농업여부별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a)	매우 만족(b)	만족 (a+b)	평균 (5점척도)	계	F
전체		31 (6.1)	158 (31.0)	252 (49.5)	63 (12.4)	5 (1.0)	68 (13.4)	2.71	509 (100.0)	
연령	20~29세	3 (8.1)	9 (24.3)	21 (56.8)	3 (8.1)	1 (2.7)	4 (10.8)	2.73	37 (100.0)	1.430
	30~39세	3 (4.1)	26 (35.6)	30 (41.1)	13 (17.8)	1 (1.4)	14 (19.2)	2.77	73 (100.0)	
	40~49세	5 (5.6)	25 (27.8)	44 (48.9)	15 (16.7)	1 (1.1)	16 (17.8)	2.80	90 (100.0)	
	50~59세	7 (6.7)	40 (38.5)	45 (43.3)	11 (10.6)	1 (1.0)	12 (11.6)	2.61	104 (100.0)	
	60~69세	2 (3.0)	30 (44.8)	28 (41.8)	6 (9.0)	1 (1.5)	7 (10.5)	2.61	67 (100.0)	
	70~79세	8 (9.2)	23 (26.4)	48 (55.2)	8 (9.2)	0 (0.0)	8 (9.2)	2.64	87 (100.0)	
	80세이상	3 (5.9)	5 (9.8)	36 (70.6)	7 (13.7)	0 (0.0)	7 (13.7)	2.92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1 (5.7)	127 (34.5)	178 (48.4)	38 (10.3)	4 (1.1)	42 (11.4)	2.67	368 (100.0)	4.348*
	비농업	10 (7.1)	31 (22.0)	74 (52.5)	25 (17.7)	1 (0.7)	26 (18.4)	2.83	141 (100.0)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F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5

3) 교육활동

- 농촌지역 여성의 지난 3년간 교육훈련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4.8%가 지난 3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표 3-14>참조)

- 지역과 연령별로는 교육훈련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지역별로 서귀포 서부지역이 51.1%로 교육훈련 이수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교육훈련 이수경험이 30대·40대·50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를 제외하고 6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훈련에 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14〉 지역·연령·농업여부별 교육경험

(단위 : 명, %)

구분		없다	있다	계	χ^2
전체		332 (65.2)	177 (34.8)	509 (100.0)	
지역 구분	제주시 동부	75 (70.1)	32 (29.9)	107 (100.0)	13.010**
	제주시 서부	121 (66.9)	60 (33.1)	181 (100.0)	
	서귀포시 동부	93 (69.9)	40 (30.1)	133 (100.0)	
	서귀포시 서부	43 (48.9)	45 (51.1)	88 (100.0)	
연령	20~29세	27 (73.0)	10 (27.0)	37 (100.0)	55.718***
	30~39세	42 (57.5)	31 (42.5)	73 (100.0)	
	40~49세	40 (44.4)	50 (55.6)	90 (100.0)	
	50~59세	55 (52.9)	49 (47.1)	104 (100.0)	
	60~69세	51 (76.1)	16 (23.9)	67 (100.0)	
	70~79세	70 (80.5)	17 (19.5)	87 (100.0)	
	80세이상	47 (92.2)	4 (7.8)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39 (64.9)	129 (35.1)	368 (100.0)	0.046
	비농업	93 (66.0)	48 (34.0)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농촌지역 여성들이 경험한 이수 훈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 교육이 22.2%로 가장 많고 건강·운동 17.7%, 교양·취미 14.7%, 자녀교육·상담 11.3%, 자격증취득교육 10.9%, 컴퓨터 정보화교육 10.2%순으로 나타남(<표 3-15>참조)
- 연령별로는 20대는 자격증취득교육이 38.5%, 30대는 자녀교육·상담이 22.2%, 40대·50대·60대는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각각 21.2%·30.0%·47.4%, 70대·80대는 건강·운동이 각각 52.4%·75.0%로 가장 많았음
-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28.9%,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자격증취득교육이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연령·농업여부별 교육훈련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기초 학력 교육	컴퓨터 정보화 교육	농업 관련 기술· 기계· 가공 교육	부 기/ 회계와 재무관 리	자격증 취득 교육	건강· 운동	교양· 취미	리더십 교육	자녀 교육· 상담 등	창업· 취업 교육	기타	계
전체		7 (2.6)	27 (10.2)	59 (22.2)	2 (0.8)	29 (10.9)	47 (17.7)	39 (14.7)	13 (4.9)	30 (11.3)	11 (4.1)	2 (0.8)	266 (100.0)
연령	20~29세	2 (15.4)	2 (15.4)	0 (0.0)	0 (0.0)	5 (38.5)	2 (15.4)	1 (7.7)	0 (0.0)	1 (7.7)	0 (0.0)	0 (0.0)	13 (100.0)
	30~39세	1 (1.9)	4 (7.4)	7 (13.0)	0 (0.0)	6 (11.1)	7 (13.0)	9 (16.7)	2 (3.7)	12 (22.2)	5 (9.3)	1 (1.9)	54 (100.0)
	40~49세	2 (2.4)	8 (9.4)	18 (21.2)	1 (1.2)	10 (11.8)	12 (14.1)	11 (12.9)	4 (4.7)	15 (17.6)	4 (4.7)	0 (0.0)	85 (100.0)
	50~59세	0 (0.0)	11 (15.7)	21 (30.0)	1 (1.4)	6 (8.6)	11 (15.7)	12 (17.1)	5 (7.1)	2 (2.9)	1 (1.4)	0 (0.0)	70 (100.0)
	60~69세	1 (5.3)	2 (10.5)	9 (47.4)	0 (0.0)	1 (5.3)	1 (5.3)	1 (5.3)	2 (10.5)	0 (0.0)	1 (5.3)	1 (5.3)	19 (100.0)
	70~79세	1 (4.8)	0 (0.0)	4 (19.0)	0 (0.0)	1 (4.8)	11 (52.4)	4 (19.0)	0 (0.0)	0 (0.0)	0 (0.0)	0 (0.0)	21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4 (100.0)
농업 여부	농업	3 (1.5)	19 (9.8)	56 (28.9)	2 (1.0)	13 (6.7)	37 (19.1)	27 (13.9)	12 (6.2)	20 (10.3)	4 (2.1)	1 (0.5)	194 (100.0)
	비농업	4 (5.6)	8 (11.1)	3 (4.2)	0 (0.0)	16 (22.2)	10 (13.9)	12 (16.7)	1 (1.4)	10 (13.9)	7 (9.7)	1 (1.4)	72 (100.0)

- 농촌지역 여성이 평소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40.3%)가 가장 많았으며 언제·어디서·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름(18.3%), 교육 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10.6%)순으로 나타남
- 연령, 농업여부, 고향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40대 이상은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며 80대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대는 언제·어디서·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30대는 교육 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농업여부로는 여성 농업인은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며 여성 비농업인은 언제·어디서·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집 근처에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16〉 연령·농업여부별 교육훈련 참여시 불편 사항(1순위)

(단위 : 명, %)

구분	농사일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 있는지 잘모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육 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집을 비우기 힘들다	저녁 시간에 하는 교육이 없다	별다른 불편 사항이 없다	기타	계	χ^2
전체	205 (40.3)	93 (18.3)	33 (6.5)	54 (10.6)	38 (7.5)	25 (4.9)	21 (4.1)	35 (6.9)	5 (1.0)	509 (100.0)	
연령	20~29세	1 (2.7)	13 (35.1)	0 (0.0)	6 (16.2)	6 (16.2)	3 (8.1)	4 (10.8)	3 (8.1)	1 (2.7)	37 (100.0)
	30~39세	15 (20.5)	13 (17.8)	1 (1.4)	20 (27.4)	8 (11.0)	10 (13.7)	3 (4.1)	1 (1.4)	2 (2.7)	73 (100.0)
	40~49세	39 (43.3)	19 (21.1)	0 (0.0)	12 (13.3)	5 (5.6)	5 (5.6)	9 (10.0)	1 (1.1)	0 (0.0)	90 (100.0)
	50~59세	50 (48.1)	23 (22.1)	1 (1.0)	7 (6.7)	6 (5.8)	5 (4.8)	5 (4.8)	7 (6.7)	0 (0.0)	104 (100.0)
	60~69세	42 (62.7)	8 (11.9)	2 (3.0)	5 (7.5)	4 (6.0)	2 (3.0)	0 (0.0)	3 (4.5)	1 (1.5)	67 (100.0)
	70~79세	45 (51.7)	7 (8.0)	14 (16.1)	3 (3.4)	6 (6.9)	0 (0.0)	0 (0.0)	12 (13.8)	0 (0.0)	87 (100.0)
	80세이상	13 (25.5)	10 (19.6)	15 (29.4)	1 (2.0)	3 (5.9)	0 (0.0)	0 (0.0)	8 (15.7)	1 (2.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94 (52.7)	52 (14.1)	28 (7.6)	26 (7.1)	17 (4.6)	10 (2.7)	11 (3.0)	27 (7.3)	3 (.8)	368 (100.0)
	비농업	11 (7.8)	41 (29.1)	5 (3.5)	28 (19.9)	21 (14.9)	15 (10.6)	10 (7.1)	8 (5.7)	2 (1.4)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촌지역 여성에게 교육훈련 받기를 희망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8.5%는 교육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함(<표 3-17>참조)
- 연령, 농업여부, 고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고향이 제주가 아닌 응답자들이 교육훈련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이와 농업여부 그리고 이주여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표 3-17〉 연령 · 농업여부 · 고향별 교육훈련 희망여부

(단위 : 명, %)

구분		희망하지 않는다	희망한다	계	χ^2
전체		211 (41.5)	298 (58.5)	509 (100.0)	
연령	20~29세	13 (35.1)	24 (64.9)	37 (100.0)	129.24***
	30~39세	10 (13.7)	63 (86.3)	73 (100.0)	
	40~49세	21 (23.3)	69 (76.7)	90 (100.0)	
	50~59세	23 (22.1)	81 (77.9)	104 (100.0)	
	60~69세	39 (58.2)	28 (41.8)	67 (100.0)	
	70~79세	63 (72.4)	24 (27.6)	87 (100.0)	
	80세이상	42 (82.4)	9 (17.6)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66 (45.1)	202 (54.9)	368 (100.0)	7.312*
	비농업	45 (31.9)	96 (68.1)	141 (100.0)	
고향	제주	191 (45.7)	227 (54.3)	418 (100.0)	17.319***
	비제주	20 (22.0)	71 (78.0)	9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농촌지역 여성이 희망교육은 건강·운동 27.9%, 컴퓨터 정보화교육 16.1%,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이 11.1% 순으로 나타남(<표 3-18>참조)
- 연령,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연령별로는 20대는 외국어교육, 30대 이

상의 경우 건강·운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60대만 농업(기초)기술기계·가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은 건강·운동 30.7%, 컴퓨터 정보화교육 15.8%,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교육과 교양·취미강좌가 각각 14.4% 순으로 나타남
- 여성 비농업인은 건강·운동 21.9%, 컴퓨터 정보화교육 16.7%, 부업·자격증취득교육 14.6%, 교양·취미강좌와 외국어교육이 각각 13.5%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은 건강·운동관련 프로그램에 수요가 높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여성은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18〉 연령·농업여부별 희망 교육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기초 학력 교육	컴퓨터 정보 화 교육	농업 (기초)기술·기계· 가공 교육	부업 자격 증 취득 교육	건강· 운동 강좌	교양· 취미 강좌	정치 리더 십교 육	자녀 교육, 상담 등	회계 경영 관련 교육	판매 고객 관리 교육	외국 어 교육	창업· 취업 교육	계	χ^2
전체		8 (2.7)	48 (16.1)	33 (11.1)	28 (9.4)	83 (27.9)	42 (14.1)	1 (0.3)	16 (5.4)	8 (2.7)	1 (0.3)	22 (7.4)	8 (2.7)	298 (100.0)	
연령	20~29세	0 (0.0)	4 (16.7)	0 (0.0)	3 (12.5)	4 (16.7)	4 (16.7)	0 (0.0)	2 (8.3)	0 (0.0)	0 (0.0)	5 (20.8)	2 (8.3)	24 (100.0)	145.51***
	30~39세	0 (0.0)	9 (14.3)	4 (6.3)	8 (12.7)	12 (19.0)	7 (11.1)	0 (0.0)	8 (12.7)	6 (9.5)	0 (0.0)	9 (14.3)	0 (0.0)	63 (100.0)	
	40~49세	2 (2.9)	9 (13.0)	7 (10.1)	10 (14.5)	13 (18.8)	12 (17.4)	0 (0.0)	5 (7.2)	2 (2.9)	0 (0.0)	6 (8.7)	3 (4.3)	69 (100.0)	
	50~59세	0 (0.0)	19 (23.5)	14 (17.3)	7 (8.6)	24 (29.6)	13 (16.0)	1 (1.2)	0 (0.0)	0 (0.0)	0 (0.0)	1 (1.2)	2 (2.5)	81 (100.0)	
	60~69세	3 (10.7)	4 (14.3)	7 (25.0)	0 (0.0)	6 (21.4)	4 (14.3)	0 (0.0)	1 (3.6)	0 (0.0)	1 (3.6)	1 (3.6)	1 (3.6)	28 (100.0)	
	70~79세	3 (12.5)	3 (12.5)	1 (4.2)	0 (0.0)	16 (66.7)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8 (88.9)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농업 여부	농업	8 (4.0)	32 (15.8)	29 (14.4)	14 (6.9)	62 (30.7)	29 (14.4)	1 (0.5)	10 (5.0)	2 (1.0)	0 (0.0)	9 (4.5)	6 (3.0)	202 (100.0)	32.793***
	비농업	0 (0.0)	16 (16.7)	4 (4.2)	14 (14.6)	21 (21.9)	13 (13.5)	0 (0.0)	6 (6.3)	6 (6.3)	1 (1.0)	13 (13.5)	2 (2.1)	96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나. 가정생활

- 농촌지역 여성의 가정생활을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가족생활에서 힘든점,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봄

1) 가사노동

- 농촌지역 여성의 가사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표 3-19>와 <표 3-20>참조) 가사노동의 경우 본인 '1시간~2시간' 47.9%로 가장 많지만 배우자의 경우 '하지 않음'이 31.0%로 가장 많음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본인 및 배우자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경우, 연령별로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30대·40대·60대로 3~4시간인 경우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2시간'이 51.1%로 가장 많으며 반면, 여성 비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2시간'이 38.7%로 나타남

〈표 3-19〉 연령 · 농업여부별 1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본인)

(단위 : 명, %)

구분		하지 않음	1시간미만	1시간~2 시간	3시간~4 시간	5시간이상	계	χ^2
전체		5 (1.0)	31 (6.1)	244 (47.9)	189 (37.1)	40 (7.9)	509 (100.0)	222.75***
연령	20~29세	5 (13.5)	17 (45.9)	9 (24.3)	4 (10.8)	2 (5.4)	37 (100.0)	
	30~39세	0 (0.0)	3 (4.1)	28 (38.4)	32 (43.8)	10 (13.7)	73 (100.0)	
	40~49세	0 (0.0)	3 (3.3)	36 (40.0)	45 (50.0)	6 (6.7)	90 (100.0)	
	50~59세	0 (0.0)	0 (0.0)	48 (46.2)	43 (41.3)	13 (12.5)	104 (100.0)	
	60~69세	0 (0.0)	3 (4.5)	29 (43.3)	32 (47.8)	3 (4.5)	67 (100.0)	
	70~79세	0 (0.0)	1 (1.1)	58 (66.7)	23 (26.4)	5 (5.7)	87 (100.0)	
80세이상		0 (0.0)	4 (7.8)	36 (70.6)	10 (19.6)	1 (2.0)	51 (100.0)	

구분		하지 않음	1시간미만	1시간~2 시간	3시간~4 시간	5시간이상	계	χ^2
농업 여부	농업	0 (0.0)	10 (2.7)	188 (51.1)	140 (38.0)	30 (8.2)	368 (100.0)	41.058***
	비농업	5 (3.5)	21 (14.9)	56 (39.7)	49 (34.8)	10 (7.1)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배우자의 경우, 연령별로 30대·40대가 1시간 미만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하지 않음’이 35.6%로 나타났으며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배우자가 여성 비농업인의 배우자보다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0〉 연령 · 농업여부별 1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배우자)

(단위 : 명, %)

구분		하지않음	1시간미만	1시간~2시간	3시간~4시간	5시간이상	배우자없음	계	χ^2
전체		158 (31.0)	140 (27.5)	65 (12.8)	10 (2.0)	3 (0.6)	133 (26.1)	509 (100.0)	199.54***
연령	20~29세	0 (0.0)	2 (5.4)	1 (2.7)	2 (5.4)	0 (0.0)	32 (86.5)	37 (100.0)	
	30~39세	17 (23.3)	28 (38.4)	18 (24.7)	1 (1.4)	3 (4.1)	6 (8.2)	73 (100.0)	
	40~49세	34 (37.8)	34 (37.8)	14 (15.6)	1 (1.1)	0 (0.0)	7 (7.8)	90 (100.0)	
	50~59세	43 (41.3)	36 (34.6)	13 (12.5)	5 (4.8)	0 (0.0)	7 (6.7)	104 (100.0)	
	60~69세	23 (34.3)	19 (28.4)	9 (13.4)	1 (1.5)	0 (0.0)	15 (22.4)	67 (100.0)	
	70~79세	29 (33.3)	15 (17.2)	6 (6.9)	0 (0.0)	0 (0.0)	37 (42.5)	87 (100.0)	
	80세이상	12 (23.5)	6 (11.8)	4 (7.8)	0 (0.0)	0 (0.0)	29 (56.9)	51 (100.0)	
농업 여부	농업	131 (35.6)	110 (29.9)	45 (12.2)	6 (1.6)	1 (0.3)	75 (20.4)	368 (100.0)	31.776***
	비농업	27 (19.1)	30 (21.3)	20 (14.2)	4 (2.8)	2 (1.4)	58 (41.1)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돌봄노동

- 농촌지역 여성의 16.3%가 돌봐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1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21> 참조)
- 연령, 농업여부별로 돌봄가구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40대는 미취학 아동이 많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업여부별로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여성에 비해 미취학 아동이 19.1%로 높았음

<표 3-21> 연령 · 농업여부별 돌봄노동 유무

(단위 : 명, %)

구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없음	계	χ^2
전체		24 (4.7)	6 (1.2)	53 (10.4)	425 (83.7)	50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5 (13.5)	32 (86.5)	37 (100.0)	178.34***
	30~39세	2 (2.7)	0 (0.0)	37 (50.7)	34 (46.6)	73 (100.0)	
	40~49세	5 (5.6)	1 (1.1)	6 (6.7)	78 (86.7)	90 (100.0)	
	50~59세	11 (10.6)	4 (3.8)	2 (1.9)	87 (83.7)	104 (100.0)	
	60~69세	3 (4.5)	0 (0.0)	3 (4.5)	61 (91.0)	67 (100.0)	
	70~79세	0 (0.0)	0 (0.0)	0 (0.0)	86 (100.0)	86 (100.0)	
	80세이상	3 (5.9)	1 (2.0)	0 (0.0)	47 (92.2)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1 (5.7)	5 (1.4)	26 (7.1)	315 (85.8)	367 (100.0)	18.109***
	비농업	3 (2.1)	1 (0.7)	27 (19.1)	110 (78.0)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47.2%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 자신이 돌보는 경우도 43.4%로 나타남(<표 3-22>참조)

- 연령별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본인이 돌보는 경우는 4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 비농업인은 본인이 가장 많이 돌보며(55.6%) 농업여성의 경우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돌보(53.8%)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비농업인은 가정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 돌봄지원을 통한 경제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3-22〉 연령 · 농업여부별 미취학 아동 주요 돌봄자

(단위 : 명, %)

구분		본인	다른 가족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계	χ^2
전체		23 (43.4)	4 (7.5)	1 (1.9)	25 (47.2)	53 (100.0)	
연령	20~29세	5 (100.0)	0 (0.0)	0 (0.0)	0 (0.0)	5 (100.0)	28.635**
	30~39세	13 (35.1)	4 (10.8)	0 (0.0)	20 (54.1)	37 (100.0)	
	40~49세	4 (66.7)	0 (0.0)	0 (0.0)	2 (33.3)	6 (100.0)	
	50~59세	0 (0.0)	0 (0.0)	0 (0.0)	2 (100.0)	2 (100.0)	
	60~69세	1 (33.3)	0 (0.0)	1 (33.3)	1 (33.3)	3 (100.0)	
	70~79세	0 (0.0)	0 (0.0)	0 (0.0)	0 (0.0)	0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100.0)	
농업여부	농업	8 (30.8)	3 (11.5)	1 (3.8)	14 (53.8)	26 (100.0)	4.473
	비농업	15 (55.6)	1 (3.7)	0 (0.0)	11 (40.7)	27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3) 학령기 자녀양육 관련 아쉬운 조건

-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아쉬운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특별히 아쉬움은 없다(24.2%)를 제외하고 근처에 도서관 문화시설 적다가 21.6%로 가장 많았

으며 집 근처에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적다 16.9%, 대중교통 미비 통학 불편 13.2% 순으로 나타남(<표 3-23>참조)

- 연령, 농업여부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근처에 도서관 문화시설 적다와 집 근처에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적음을 가장 아쉬운 조건으로 응답함
-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비농업인들이 근처에 도서관 문화시설 적다고 여성 농업인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 농업인들은 대중교통 미비 통학 불편에 여성 비농업인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임

<표 3-23> 연령·농업여부별 학령기 자녀 양육 시 아쉬운 조건

(단위 : 명, %)

구분		학교수 준 교사 자질 도시 비해 떨어짐	집 근처에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적다	우범지 역 많아 아이들 안전 걱정	근처에 도서관 문화시 설 적다	대중교 통 미비 통학 불편	집근처 아이들 놀이터 가 없다	또래 친구가 없다	특별히 아쉬움 은 없다	기타	계	χ^2
전체		32 (6.3)	86 (16.9)	5 (1.0)	110 (21.6)	67 (13.2)	42 (8.3)	42 (8.3)	123 (24.2)	2 (0.4)	509 (100.0)	
연령	20~29세	4 (10.8)	3 (8.1)	3 (8.1)	12 (32.4)	3 (8.1)	2 (5.4)	2 (5.4)	7 (18.9)	1 (2.7)	37 (100.0)	123.58***
	30~39세	4 (5.5)	18 (24.7)	1 (1.4)	22 (30.1)	4 (5.5)	9 (12.3)	6 (8.2)	9 (12.3)	0 (0.0)	73 (100.0)	
	40~49세	9 (10.0)	22 (24.4)	1 (1.1)	24 (26.7)	11 (12.2)	8 (8.9)	6 (6.7)	9 (10.0)	0 (0.0)	90 (100.0)	
	50~59세	4 (3.8)	15 (14.4)	0 (0.0)	25 (24.0)	24 (23.1)	4 (3.8)	9 (8.7)	22 (21.2)	1 (1.0)	104 (100.0)	
	60~69세	6 (9.0)	5 (7.5)	0 (0.0)	12 (17.9)	10 (14.9)	9 (13.4)	7 (10.4)	18 (26.9)	0 (0.0)	67 (100.0)	
	70~79세	2 (2.3)	21 (24.1)	0 (0.0)	8 (9.2)	9 (10.3)	6 (6.9)	5 (5.7)	36 (41.4)	0 (0.0)	87 (100.0)	
	80세이상	3 (5.9)	2 (3.9)	0 (0.0)	7 (13.7)	6 (11.8)	4 (7.8)	7 (13.7)	22 (43.1)	0 (0.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9 (5.2)	66 (17.9)	0 (0.0)	76 (20.7)	54 (14.7)	28 (7.6)	32 (8.7)	92 (25.0)	1 (0.3)	368 (100.0)	21.298**
	비농업	13 (9.2)	20 (14.2)	5 (3.5)	34 (24.1)	13 (9.2)	14 (9.9)	10 (7.1)	31 (22.0)	1 (0.7)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4) 가족생활 중 가장 힘든 점

- 가족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일·가정의 병행의 어려움 30.6%로 가장 많고 본인과 가족의 질병 및 장애 23.2%, 경제적 어려움 19.3%, 자녀교육 13.2%순으로 나타남
- 또한,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대~60대는 '일·가정의 병행어려움'이 많지만, 70대 이상은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및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24>참조)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여부별로 여성 농업인의 35.6%가 '일·가정의 병행어려움'이라고 응답함. 그러나 여성 비농업인은 17.7%가 '일·가정의 병행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비농업인의 24.8%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표 3-24> 연령·농업여부별 가족생활 중 힘든 점

(단위 : 명, %)

구분		경제적 어려움	본인및 가족의 질병및 장애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일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	가족 갈등	가족의 실업및 불안한 직업	기타	없음	계	χ^2
전체		98 (19.3)	118 (23.2)	67 (13.2)	6 (1.2)	156 (30.6)	7 (1.4)	15 (2.9)	2 (0.4)	40 (7.9)	509 (100.0)	
연령	20~29세	12 (3.4)	0 (0.0)	1 (2.7)	0 (0.0)	3 (8.1)	1 (2.7)	5 (13.5)	1 (2.7)	14 (37.8)	37 (100.0)	352.97***
	30~39세	10 (13.7)	1 (1.4)	24 (32.9)	0 (0.0)	25 (34.2)	2 (2.7)	2 (2.7)	1 (1.4)	8 (11.0)	73 (100.0)	
	40~49세	24 (26.7)	4 (4.4)	33 (36.7)	3 (3.3)	21 (23.3)	1 (1.1)	2 (2.2)	0 (0.0)	2 (2.2)	90 (100.0)	
	50~59세	22 (21.2)	13 (12.5)	8 (7.7)	2 (1.9)	51 (49.0)	0 (0.0)	5 (4.8)	0 (0.0)	3 (2.9)	104 (100.0)	
	60~69세	9 (13.4)	17 (25.4)	1 (1.5)	1 (1.5)	30 (44.8)	2 (3.0)	1 (1.5)	0 (0.0)	6 (9.0)	67 (100.0)	
	70~79세	13 (14.9)	47 (54.0)	0 (0.0)	0 (0.0)	22 (25.3)	0 (0.0)	0 (0.0)	0 (0.0)	5 (5.7)	87 (100.0)	
	80세이상	8 (15.7)	36 (70.6)	0 (0.0)	0 (0.0)	4 (7.8)	1 (2.0)	0 (0.0)	0 (0.0)	2 (3.9)	51 (100.0)	
농업여부	농업	63 (17.1)	98 (26.6)	41 (11.1)	6 (1.6)	131 (35.6)	6 (1.6)	8 (2.2)	0 (0.0)	15 (4.1)	368 (100.0)	59.724***
	비농업	35 (24.8)	20 (14.2)	26 (18.4)	0 (0.0)	25 (17.7)	1 (0.7)	7 (5.0)	2 (1.4)	25 (17.7)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5) 가족관계

- 농촌지역 여성에게 가족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가족 간 대화(자주나눔+매우 자주나눔)는 부모와는 28.9%, 배우자와는 61.1%, 자녀와는 71.3%, 손자녀와는 16.1%로 나타남(<표 3-25>참조)
-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녀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며 손자녀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후 부모와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25〉 가족 간 대화빈도

(단위 : 명, %)

구분(전체)	거의 나누지 않음	별로 나누지 않음	자주 나눔(a)	매우 자주 나눔(b)	해당사항 없음	대화 (a+b)	계
부모 상대	24 (4.7)	96 (18.9)	109 (21.4)	38 (7.5)	242 (47.5)	147 (28.9)	509 (100.0)
배우자 상대	8 (1.6)	60 (11.8)	211 (41.5)	100 (19.6)	130 (25.5)	311 (61.1)	509 (100.0)
자녀 상대	3 (0.6)	87 (17.1)	249 (48.9)	114 (22.4)	56 (11.0)	363 (71.3)	509 (100.0)
손자녀 상대	16 (3.1)	109 (21.4)	71 (13.9)	11 (2.2)	302 (59.3)	82 (16.1)	509 (100.0)

주: 5점척도(1 거의 나누지 않음 ~ 5 매우 자주 나눔)

-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대체로 만족+매우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이 58.0%로 나타남(<표 3-26>참조)
-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척도 평균 3.62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떨어지며 50대 이상은 평균 3.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가족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가족만족도도 평균 3.62보다 낮은 것(3.58)으로 나타남

〈표 3-26〉 가족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a)	매우 만족(b)	만족 (a+b)	평균 (5점척도)	계	F
전체		3 (0.6)	18 (3.6)	191 (37.8)	248 (49.1)	45 (8.9)	293 (58.0)	3.62	505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14 (37.8)	14 (37.8)	9 (24.3)	23 (62.1)	3.86	37 (100.0)	3.452**
	30~39세	1 (1.4)	2 (2.7)	20 (27.4)	37 (50.7)	13 (17.8)	50 (68.5)	3.81	73 (100.0)	
	40~49세	0 (0.0)	5 (5.6)	20 (22.2)	52 (57.8)	13 (14.4)	65 (72.2)	3.81	90 (100.0)	
	50~59세	1 (1.0)	2 (1.9)	44 (42.3)	52 (50.0)	5 (4.8)	57 (54.8)	3.56	104 (100.0)	
	60~69세	0 (0.0)	3 (4.6)	30 (46.2)	29 (44.6)	3 (4.6)	32 (49.2)	3.49	65 (100.0)	
	70~79세	0 (0.0)	3 (3.4)	39 (44.8)	44 (50.6)	1 (1.1)	45 (51.7)	3.49	87 (100.0)	
	80세이상	1 (2.0)	3 (6.1)	24 (49.0)	20 (40.8)	1 (2.0)	21 (42.8)	3.35	49 (100.0)	
농업여부	농업	1 (0.3)	15 (4.1)	146 (39.7)	181 (49.2)	25 (6.8)	206 (56.0)	3.58	368 (100.0)	8.342**
	비농업	2 (1.5)	3 (2.2)	45 (32.8)	67 (48.9)	20 (14.6)	87 (63.5)	3.73	137 (100.0)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F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1

다. 지역사회활동

- 농촌지역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을 지역모임 유무, 활동단체 종류, 지역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농촌지역 여성의 58.7%는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농업여부별로 가입한 지역모임이나 단체 유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7>참조)
- 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하고 60세까지 지역모임·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특히, 30대의 활동비율이 70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별로 여성 농업인(69.0%)이 여성 비농업인(31.9%)보다 지역모임·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표 3-27〉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모임 · 단체 유무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전체		299 (58.7)	210 (41.3)	509 (100.0)	
연령	20~29세	2 (5.4)	35 (94.6)	37 (100.0)	101.01***
	30~39세	35 (47.9)	38 (52.1)	73 (100.0)	
	40~49세	67 (74.4)	23 (25.6)	90 (100.0)	
	50~59세	83 (79.8)	21 (20.2)	104 (100.0)	
	60~69세	50 (74.6)	17 (25.4)	67 (100.0)	
	70~79세	47 (54.0)	40 (46.0)	87 (100.0)	
	80세이상	15 (29.4)	36 (70.6)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54 (69.0)	114 (31.0)	368 (100.0)	57.916***
	비농업	45 (31.9)	96 (68.1)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촌지역 여성들이 현재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계(친목, 동창회) 35.8%, 마을 부녀회 31.8%, 여성 농업인 단체 12.2% 순으로 나타남(<표 3-28>참조)

- 연령별로 나이가 많을수록 마을 부녀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 별로는 농업과 비농업 모두 계(친목,동창회)활동이 가장 많지만 마을 부녀회활동에 있어서는 여성 비농업인이 여성 농업인보다 가입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 연령 · 농업여부별 가입단체(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마을 부녀회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 법인	농협 또는 축협	여성 농업인단 체	지역여성 단체	계(친목, 동창회)	기타	계
전체		182 (31.8)	21 (3.7)	54 (9.4)	70 (12.2)	29 (5.1)	205 (35.8)	11 (1.9)	572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2 (100.0)
	30~39세	12 (20.3)	1 (1.7)	6 (10.2)	5 (8.5)	6 (10.2)	27 (45.8)	2 (3.4)	59 (100.0)
	40~49세	42 (28.8)	3 (2.1)	13 (8.9)	23 (15.8)	10 (6.8)	52 (35.6)	3 (2.1)	146 (100.0)
	50~59세	53 (30.1)	8 (4.5)	15 (8.5)	31 (17.6)	7 (4.0)	58 (33.0)	4 (2.3)	176 (100.0)
	60~69세	32 (32.3)	8 (8.1)	9 (9.1)	10 (10.1)	5 (5.1)	34 (34.3)	1 (1.0)	99 (100.0)
	70~79세	29 (43.3)	0 (0.0)	7 (10.4)	1 (1.5)	1 (1.5)	29 (43.3)	0 (0.0)	67 (100.0)
	80세이상	14 (60.9)	1 (4.3)	4 (17.4)	0 (0.0)	0 (0.0)	4 (17.4)	0 (0.0)	23 (100.0)
농업여부	농업	171 (33.0)	21 (4.1)	52 (10.0)	67 (12.9)	24 (4.6)	176 (34.0)	7 (1.4)	518 (100.0)
	비농업	11 (20.4)	0 (0.0)	2 (3.7)	3 (5.6)	5 (9.3)	29 (53.7)	4 (7.4)	54 (100.0)

- 농촌지역 여성들이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가 35.2%, '어떤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른다' 10.5%순으로 나타남(<표 3-29> 참조)
- 또한 모임참여 이유에 있어서 연령,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40대의 경우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50대~60대는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별로도 여성 농업인은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 여성 비농업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9〉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모임 ·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	모임·단 체가 마음에 들지않아 서	연장자나 남성 중심 내 의견을 나타내기 어려워서	가족과 남편이 반대해서	어떤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기타 (고령, 건강)	계	χ^2
전체		74 (35.2)	4 (1.9)	6 (2.9)	1 (0.5)	22 (10.5)	82 (39.0)	21 (10.0)	210 (100.0)	
연령	20~29세	11 (31.4)	1 (2.9)	0 (0.0)	0 (0.0)	0 (0.0)	23 (65.7)	0 (0.0)	35 (100.0)	100.92***
	30~39세	13 (34.2)	1 (2.6)	2 (5.3)	0 (0.0)	9 (23.7)	13 (34.2)	0 (0.0)	38 (100.0)	
	40~49세	6 (26.1)	0 (0.0)	3 (13.0)	1 (4.3)	5 (21.7)	8 (34.8)	0 (0.0)	23 (100.0)	
	50~59세	15 (71.4)	0 (0.0)	0 (0.0)	0 (0.0)	3 (14.3)	2 (9.5)	1 (4.8)	21 (100.0)	
	60~69세	11 (64.7)	1 (5.9)	1 (5.9)	0 (0.0)	0 (0.0)	3 (17.6)	1 (5.9)	17 (100.0)	
	70~79세	12 (30.0)	1 (2.5)	0 (0.0)	0 (0.0)	2 (5.0)	14 (35.0)	11 (27.5)	40 (100.0)	
	80세이상	6 (16.7)	0 (0.0)	0 (0.0)	0 (0.0)	3 (8.3)	19 (52.8)	8 (22.2)	36 (100.0)	
농업여부	농업	49 (43.0)	2 (1.8)	3 (2.6)	1 (0.9)	9 (7.9)	32 (28.1)	18 (15.8)	114 (100.0)	22.801***
	비농업	25 (26.0)	2 (2.1)	3 (3.1)	0 (0.0)	13 (13.5)	50 (52.1)	3 (3.1)	96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라. 경제적 상황

라. 경제적 상황

- 농촌지역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이들의 가구소득, 본인 명의의 재산, 가계부채, 본인의 연금가입, 살림살이에 가장 부담이 된 비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1) 가구소득

- 농촌지역 여성의 가구소득을 여성 농업인과 여성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그 이유는 농사의 특징상 여성 농업인 가구의 총소득은 월단위보다 1년 단위로 질문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는 월급을 중심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가) 여성 농업인

- 여성 농업인의 1년 전체 농가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0~3,000만원이 1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농업인의 1년 전체 농가소득이 2,000~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응답자 여성 농업인의 57.2%로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남(<표 3-30>참조)
- 이는 통계청 인구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14년 농가소득 평균 34,950,000원보다 적으며 같은 자료 도시근로자 평균 월 가구소득(1인가구이상) 427만원(약 400만원×12개월=4,800만원)보다 약 1.5~2배정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별로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농가소득 2,000~3,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3,000만원이하 농가가구수가 제주시 읍면(66.4%)이 서귀포시 읍면(45.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농가소득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30〉 지역별 여성 농업인 1년 전체 농가소득

(단위 : 명, %)

구분		500만 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2,000 만원 미만	2,000~ 3,000 만원 미만	3,000~ 4,000 만원 미만	4,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6, 000미 만	6,000 만원~1 억원 미만	1억 이상	계	χ^2
전체		26 (7.1)	59 (16.1)	57 (15.5)	68 (18.5)	59 (16.1)	30 (8.2)	25 (6.8)	28 (7.6)	15 (4.1)	367 (100.0)	
지역 구분	제주시 읍면	20 (9.8)	43 (21.0)	31 (15.1)	42 (20.5)	35 (17.1)	13 (6.3)	10 (4.9)	8 (3.9)	3 (1.5)	205 (100.0)	33.649***
	서귀포시 읍면	6 (3.7)	16 (9.9)	26 (16.0)	26 (16.0)	24 (14.8)	17 (10.5)	15 (9.3)	20 (12.3)	12 (7.4)	162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나) 여성 비농업인

-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많

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미만이 3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31>와 <표 3-32> 참조)

-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의 평균은 107만원임. 또한, 소득없음도 24.2%로 나타남
- 앞의 <표 3-24>를 보면, 여성 비농업인의 24.8%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31> 여성 비농업인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

구분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계
전체	31 (24.2)	20 (15.6)	52 (40.6)	21 (16.4)	4 (3.1)	107	128 (100.0)

-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297만원임
- 이는 통계청 인구가구조사에서 나타난 도시근로자 평균 월 가구소득(1인가구 이상) 427만원보다 약 1.4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32> 여성 비농업인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구분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계
전체	13 (9.2)	9 (6.4)	15 (10.6)	21 (14.9)	44 (31.2)	22 (15.6)	17 (12.1)	297	141 (100.0)

2) 재산

- 농촌지역 여성에게 본인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여부를 살펴본 결과, 본인명의 예금통장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명의보험 22.1%, 기타금융자산 10.1% 순으로 나타남(<표 3-33>참조)

- 농촌지역 여성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후 금융자산과 더불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여부별로는 여성비농업의 부동산소유비율이 여성 농업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연령·농업여부별 재산(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없다	집	땅	자동차	농기계	농산물 거래통 장	본인명 의예금 통장	본인명 의보험	기타금 융자산	계
전체		34 (2.7)	112 (8.9)	134 (10.6)	95 (7.5)	13 (1.0)	16 (1.3)	451 (35.8)	278 (22.1)	127 (10.1)	1260 (100.0)
연령	20~29세	1 (1.6)	0 (0.0)	0 (0.0)	2 (3.3)	0 (0.0)	0 (0.0)	36 (59.0)	15 (24.6)	7 (11.5)	61 (100.0)
	30~39세	2 (1.0)	13 (6.3)	13 (6.3)	26 (12.6)	0 (0.0)	0 (0.0)	70 (33.8)	60 (29.0)	23 (11.1)	207 (100.0)
	40~49세	2 (0.8)	18 (6.9)	16 (6.1)	30 (11.5)	2 (0.8)	3 (1.1)	85 (32.4)	79 (30.2)	27 (10.3)	262 (100.0)
	50~59세	5 (1.6)	34 (10.7)	33 (10.4)	26 (8.2)	5 (1.6)	6 (1.9)	94 (29.7)	75 (23.7)	39 (12.3)	317 (100.0)
	60~69세	7 (4.3)	18 (11.2)	19 (11.8)	9 (5.6)	3 (1.9)	3 (1.9)	54 (33.5)	34 (21.1)	14 (8.7)	161 (100.0)
	70~79세	9 (5.4)	21 (12.5)	33 (19.6)	1 (0.6)	2 (1.2)	4 (2.4)	72 (42.9)	12 (7.1)	14 (8.3)	168 (100.0)
	80세이상	8 (9.5)	8 (9.5)	20 (23.8)	1 (1.2)	1 (1.2)	0 (0.0)	40 (47.6)	3 (3.6)	3 (3.6)	84 (100.0)
농업여부	농업	22 (2.3)	92 (9.7)	128 (13.4)	69 (7.2)	13 (1.4)	16 (1.7)	323 (33.9)	197 (20.7)	93 (9.8)	953 (100.0)
	비농업	12 (3.9)	20 (6.5)	6 (2.0)	26 (8.5)	0 (0.0)	0 (0.0)	128 (41.7)	81 (26.4)	34 (11.1)	307 (100.0)

3) 가계부채

- 농촌지역 여성에게 가계부채를 질문한 결과 없음을 제외하고 1,000~ 3,000만원 미만이 1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11.6%, 1억 이상이 10.6% 순으로 나타남(〈표 3-34〉참조)
- 가계부채의 경우 연령과 여성 농업인 가구소득,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50대에서 5,000만원 이상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으며 여성 농

업인 가구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1억 이상의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이 1,000만원 이상에서 여성 비농업인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 농업인가구는 가계부채도 다른 가구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계부채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3-34〉 연령 · 농업여부별 가계부채

(단위 : 명, %)

구분		없음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 원 미만	1억 이상	계	χ^2
전체		217 (42.6)	16 (3.1)	36 (7.1)	78 (15.3)	49 (9.6)	59 (11.6)	54 (10.6)	509 (100.0)	
연령	20~29세	29 (78.4)	0 (0.0)	2 (5.4)	3 (8.1)	0 (0.0)	2 (5.4)	1 (2.7)	37 (100.0)	133.67***
	30~39세	19 (26.0)	2 (2.7)	5 (6.8)	18 (24.7)	11 (15.1)	12 (16.4)	6 (8.2)	73 (100.0)	
	40~49세	20 (22.2)	6 (6.7)	8 (8.9)	15 (16.7)	8 (8.9)	17 (18.9)	16 (17.8)	90 (100.0)	
	50~59세	28 (26.9)	0 (0.0)	7 (6.7)	20 (19.2)	12 (11.5)	17 (16.3)	20 (19.2)	104 (100.0)	
	60~69세	24 (35.8)	2 (3.0)	8 (11.9)	8 (11.9)	9 (13.4)	8 (11.9)	8 (11.9)	67 (100.0)	
	70~79세	58 (66.7)	3 (3.4)	3 (3.4)	11 (12.6)	7 (8.0)	2 (2.3)	3 (3.4)	87 (100.0)	
	80세이상	39 (76.5)	3 (5.9)	3 (5.9)	3 (5.9)	2 (3.9)	1 (2.0)	0 (0.0)	51 (100.0)	
여성 농업인 농가 소득	500만원 미만	16 (61.5)	3 (11.5)	1 (3.8)	1 (3.8)	2 (7.7)	2 (7.7)	1 (3.8)	26 (100.0)	124.80***
	500~1천 만원 미만	33 (55.9)	4 (6.8)	6 (10.2)	11 (18.6)	1 (1.7)	3 (5.1)	1 (1.7)	59 (100.0)	
	1천~2천 만원 미만	24 (42.1)	1 (1.8)	5 (8.8)	15 (26.3)	5 (8.8)	4 (7.0)	3 (5.3)	57 (100.0)	
	2천~3천 만원 미만	29 (42.6)	0 (0.0)	2 (2.9)	14 (20.6)	9 (13.2)	7 (10.3)	7 (10.3)	68 (100.0)	
	3천~4천 만원 미만	13 (22.0)	3 (5.1)	5 (8.5)	7 (11.9)	12 (20.3)	13 (22.0)	6 (10.2)	59 (100.0)	

구분		없음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 미만	1억 이상	계	χ^2
	4천~5천 만원 미만	9 (30.0)	0 (0.0)	3 (10.0)	2 (6.7)	2 (6.7)	4 (13.3)	10 (33.3)	30 (100.0)	
	5천~6천 만원 미만	7 (28.0)	0 (0.0)	0 (0.0)	3 (12.0)	4 (16.0)	6 (24.0)	5 (20.0)	25 (100.0)	
	6천~1억원 미만	4 (14.3)	0 (0.0)	1 (3.6)	3 (10.7)	5 (17.9)	9 (32.1)	6 (21.4)	28 (100.0)	
	1억원 이상	2 (13.3)	0 (0.0)	2 (13.3)	1 (6.7)	0 (0.0)	3 (20.0)	7 (46.7)	15 (100.0)	
농업여부	농업	138 (37.5)	11 (3.0)	25 (6.8)	57 (15.5)	40 (10.9)	51 (13.9)	46 (12.5)	368 (100.0)	20.980**
	비농업	79 (56.0)	5 (3.5)	11 (7.8)	21 (14.9)	9 (6.4)	8 (5.7)	8 (5.7)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4) 본인연금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또는 농어민 연금가입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가입된 경우가 51.9%로 나타남. 또한 연령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40대·50대·6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연금가입비율이 높았음.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3-35〉 연령·농업여부별 국민연금(농어민연금) 가입

(단위 : 명,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χ^2
전체		264 (51.9)	245 (48.1)	509 (100.0)	31.312***
연령	20~29세	13 (35.1)	24 (64.9)	37 (100.0)	
	30~39세	30 (41.1)	43 (58.9)	73 (100.0)	
	40~49세	54 (60.0)	36 (40.0)	90 (100.0)	
	50~59세	67 (64.4)	37 (35.6)	104 (100.0)	
	60~69세	43 (64.2)	24 (35.8)	67 (100.0)	
	70~79세	42 (48.3)	45 (51.7)	87 (100.0)	
	80세이상	15 (29.4)	36 (70.6)	51 (100.0)	

구분		가입	미가입	계	χ^2
농업여부	농업	197 (53.5)	171 (46.5)	368 (100.0)	1.477
	비농업	67 (47.5)	74 (52.5)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5) 살림살이에서 부담이 되는 비용

-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 중 가장 부담이 되었던 비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료비 23.6%, 식생활비 19.6%, 가족부채상환비 16.1% 순으로 나타남(<표 3-36>참조)
- 또한 연령,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는 자녀교육비가 60대 이상에서는 가족의료비가 높게 나타남. 농업여부에 따라 여성 농업인은 가족의료비, 여성 비농업인은 식생활비가 높게 나타남

<표 3-36> 연령 · 농업여부별 지출부담(1순위)

(단위 : 명, %)

구분		식생활비	가족의료비	자녀교육비	주거비	가족부채상환비	여가생활비	특별히없음	경조사비	계	χ^2
전체		100 (19.6)	120 (23.6)	124 (24.4)	32 (6.3)	82 (16.1)	7 (1.4)	24 (4.7)	20 (3.9)	509 (100.0)	
연령	20~29세	11 (29.7)	2 (5.4)	6 (16.2)	3 (8.1)	3 (8.1)	3 (8.1)	9 (24.3)	0 (0.0)	37 (100.0)	357.75***
	30~39세	20 (27.4)	2 (2.7)	28 (38.4)	8 (11.0)	11 (15.1)	1 (1.4)	3 (4.1)	0 (0.0)	73 (100.0)	
	40~49세	6 (6.7)	2 (2.2)	56 (62.2)	7 (7.8)	16 (17.8)	2 (2.2)	0 (0.0)	1 (1.1)	90 (100.0)	
	50~59세	27 (26.0)	8 (7.7)	28 (26.9)	4 (3.8)	28 (26.9)	1 (1.0)	2 (1.9)	6 (5.8)	104 (100.0)	
	60~69세	13 (19.4)	17 (25.4)	5 (7.5)	5 (7.5)	15 (22.4)	0 (0.0)	5 (7.5)	7 (10.4)	67 (100.0)	
	70~79세	11 (12.6)	54 (62.1)	1 (1.1)	4 (4.6)	8 (9.2)	0 (0.0)	5 (5.7)	4 (4.6)	87 (100.0)	
	80세이상	12 (23.5)	35 (68.6)	0 (0.0)	1 (2.0)	1 (2.0)	0 (0.0)	0 (0.0)	2 (3.9)	51 (100.0)	
농업여부	농업	63 (17.1)	103 (28.0)	88 (23.9)	11 (3.0)	70 (19.0)	2 (0.5)	13 (3.5)	18 (4.9)	368 (100.0)	59.125***
	비농업	37 (26.2)	17 (12.1)	36 (25.5)	21 (14.9)	12 (8.5)	5 (3.5)	11 (7.8)	2 (1.4)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6) 경제적 기여정도

- 농촌지역 여성에게 전체 소득 중 본인 기여정도를 질문한 결과 절반정도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전부(19.1%), 30% 미만(17.3%), 30~40% 정도(16.7%)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이상 기여정도 비율(거의전부+80%정도+60~70%정도+절반정도)이 80~7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50%이상 기여비율(거의전부+80%정도+60~70%정도+절반정도)이 60.9%로 높게 나타남

〈표 3-37〉 연령 · 농업여부별 가구 전체 소득 중 본인 기여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 전부	80% 정도	60~70% 정도	절반 정도	30~40% 정도	30% 미만	계	χ^2
전체		97 (19.1)	34 (6.7)	23 (4.5)	182 (35.8)	85 (16.7)	88 (17.3)	509 (100.0)	
연령	20~29세	2 (5.4)	0 (0.0)	1 (2.7)	3 (8.1)	6 (16.2)	25 (67.6)	37 (100.0)	162.46***
	30~39세	5 (6.8)	4 (5.5)	5 (6.8)	25 (34.2)	17 (23.3)	17 (23.3)	73 (100.0)	
	40~49세	9 (10.0)	7 (7.8)	3 (3.3)	29 (32.2)	22 (24.4)	20 (22.2)	90 (100.0)	
	50~59세	10 (9.6)	8 (7.7)	6 (5.8)	48 (46.2)	19 (18.3)	13 (12.5)	104 (100.0)	
	60~69세	16 (23.9)	8 (11.9)	1 (1.5)	27 (40.3)	12 (17.9)	3 (4.5)	67 (100.0)	
	70~79세	32 (36.8)	4 (4.6)	4 (4.6)	37 (42.5)	5 (5.7)	5 (5.7)	87 (100.0)	
	80세이상	23 (45.1)	3 (5.9)	3 (5.9)	13 (25.5)	4 (7.8)	5 (9.8)	51 (100.0)	
농업여부	농업	71 (19.3)	30 (8.2)	22 (6.0)	153 (41.6)	59 (16.0)	33 (9.0)	368 (100.0)	76.759***
	비농업	26 (18.4)	4 (2.8)	1 (0.7)	29 (20.6)	26 (18.4)	55 (39.0)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촌지역 여성에게 가구소득 중 본인이 어느 정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정도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전부(26.5%), 80%정도(12.4%)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4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이상 사용권한 비율(거의전부+80%정도+60~70%정도+절반정도)이 80%로 매우 높게 나타남(<표 3-38>참조)
-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여성비농업에 비해 50%이상 사용권한비율(거의전부+80%정도+60~70%정도+절반정도)이 84.3%로 높게 나타남

〈표 3-38〉 연령 · 농업여부별 가구 전체소득 중 사용권한(경제권)정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 전부	80% 정도	60~70% 정도	절반 정도	30~40% 정도	30% 미만	전혀 없다	계	χ^2
전체		135 (26.5)	63 (12.4)	43 (8.4)	167 (32.8)	40 (7.9)	45 (8.8)	16 (3.1)	509 (100.0)	
연령	20~29세	4 (10.8)	1 (2.7)	1 (2.7)	2 (5.4)	7 (18.9)	14 (37.8)	8 (21.6)	37 (100.0)	161.12***
	30~39세	14 (19.2)	14 (19.2)	4 (5.5)	22 (30.1)	11 (15.1)	5 (6.8)	3 (4.1)	73 (100.0)	
	40~49세	23 (25.6)	20 (22.2)	11 (12.2)	24 (26.7)	5 (5.6)	7 (7.8)	0 (0.0)	90 (100.0)	
	50~59세	20 (19.2)	11 (10.6)	10 (9.6)	48 (46.2)	7 (6.7)	6 (5.8)	2 (1.9)	104 (100.0)	
	60~69세	16 (23.9)	9 (13.4)	6 (9.0)	28 (41.8)	3 (4.5)	3 (4.5)	2 (3.0)	67 (100.0)	
	70~79세	34 (39.1)	4 (4.6)	9 (10.3)	29 (33.3)	3 (3.4)	7 (8.0)	1 (1.1)	87 (100.0)	
	80세이상	24 (47.1)	4 (7.8)	2 (3.9)	14 (27.5)	4 (7.8)	3 (5.9)	0 (0.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94 (25.5)	47 (12.8)	37 (10.1)	132 (35.9)	28 (7.6)	25 (6.8)	5 (1.4)	368 (100.0)	28.362***
	비농업	41 (29.1)	16 (11.3)	6 (4.3)	35 (24.8)	12 (8.5)	20 (14.2)	11 (7.8)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마. 거주환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만족도와 불만요인, 이사의향과 이사하려는 이유, 지역안전 등을 살펴봄

1) 지역만족도

- 지역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이 56.4%로

나타남(<표 3-39>참조)

- 5점척도 평균 3.60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농업여부에 따라 지역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5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3.65)이 여성 비농업인(3.48)보다 만족도가 높았음

〈표 3-39〉 연령 · 농업여부별 지역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a)	매우 만족(b)	만족 (a+b)	평균 (5점척도)	계	F
전체		5 (1.0)	37 (7.3)	180 (35.4)	221 (43.4)	66 (13.0)	287 (56.4)	3.60	509 (100.0)	
연령	20~29세	3 (8.1)	2 (5.4)	18 (48.6)	11 (29.7)	3 (8.1)	14 (37.8)	3.24	37 (100.0)	3.529**
	30~39세	1 (1.4)	10 (13.7)	28 (38.4)	22 (30.1)	12 (16.4)	34 (46.5)	3.47	73 (100.0)	
	40~49세	1 (1.1)	8 (8.9)	37 (41.1)	31 (34.4)	13 (14.4)	44 (48.8)	3.52	90 (100.0)	
	50~59세	0 (0.0)	9 (8.7)	43 (41.3)	40 (38.5)	12 (11.5)	52 (50.0)	3.53	104 (100.0)	
	60~69세	0 (0.0)	5 (7.5)	19 (28.4)	32 (47.8)	11 (16.4)	43 (64.2)	3.73	67 (100.0)	
	70~79세	0 (0.0)	2 (2.3)	21 (24.1)	54 (62.1)	10 (11.5)	64 (73.6)	3.83	87 (100.0)	
	80세이상	0 (0.0)	1 (2.0)	14 (27.5)	31 (60.8)	5 (9.8)	36 (70.6)	3.78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 (0.5)	27 (7.3)	123 (33.4)	163 (44.3)	53 (14.4)	216 (58.7)	3.65	368 (100.0)	3.935*
	비농업	3 (2.1)	10 (7.1)	57 (40.4)	58 (41.1)	13 (9.2)	71 (50.3)	3.48	141 (100.0)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F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5, **p<.01

2) 거주지 불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불만요인을 조사한 결과 여가·문화시설부족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의료시설부족 23.4%, 대중교통불편 13.8%순으로 나타남(<표 3-40>참조)

○ 또한, 지역과 연령대별로 불만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지역의 경우 제주시 읍면은 의료시설부족이 서귀포시 읍면은 여가·문화시설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60대까지는 여가·문화시설부족이 70대 이상은 의료시설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지역별 · 연령 · 농업여부별 거주지역 불편한 점

(단위 : 명, %)

구분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 부족	노인 장애 인 복지 시설 부족	여성 복지 시설 부족	의료 시설 부족	여가 문화 시설 부족	대중 교통 불편	마트 쇼핑 시설 부족	방법 보안 상태 취약	공동 농산 물가 공시 설부 족	클린 하우 스 쓰레 기 처리 시설 미비	기타	계	χ^2
전체		23 (4.6)	29 (5.8)	43 (8.6)	117 (23.4)	125 (25.1)	69 (13.8)	33 (6.6)	8 (1.6)	7 (1.4)	41 (8.2)	4 (0.8)	499 (100.0)	
지역	제주시 읍면	11 (4.0)	21 (7.6)	24 (8.6)	69 (24.8)	54 (19.4)	39 (14.0)	20 (7.2)	4 (1.4)	3 (1.1)	30 (10.8)	3 (1.1)	278 (100.0)	18.875*
	서귀포시 읍면	12 (5.4)	8 (3.6)	19 (8.6)	48 (21.7)	71 (32.1)	30 (13.6)	13 (5.9)	4 (1.8)	4 (1.8)	11 (5.0)	1 (0.5)	221 (100.0)	
연령	20~29세	1 (2.7)	0 (0.0)	0 (0.0)	4 (10.8)	17 (45.9)	11 (29.7)	2 (5.4)	0 (0.0)	0 (0.0)	2 (5.4)	0 (0.0)	37 (100.0)	218.88***
	30~39세	16 (21.9)	0 (0.0)	6 (8.2)	11 (15.1)	17 (23.3)	5 (6.8)	9 (12.3)	3 (4.1)	1 (1.4)	4 (5.5)	1 (1.4)	73 (100.0)	
	40~49세	1 (1.1)	2 (2.3)	8 (9.2)	18 (20.7)	30 (34.5)	11 (12.6)	5 (5.7)	1 (1.1)	1 (1.1)	10 (11.5)	0 (0.0)	87 (100.0)	
	50~59세	4 (3.9)	0 (0.0)	17 (16.7)	18 (17.6)	29 (28.4)	16 (15.7)	5 (4.9)	2 (2.0)	2 (2.0)	9 (8.8)	0 (0.0)	102 (100.0)	
	60~69세	0 (0.0)	3 (4.7)	9 (14.1)	14 (21.9)	15 (23.4)	8 (12.5)	3 (4.7)	2 (3.1)	3 (4.7)	6 (9.4)	1 (1.6)	64 (100.0)	
	70~79세	1 (1.2)	10 (11.8)	1 (1.2)	34 (40.0)	9 (10.6)	11 (12.9)	8 (9.4)	0 (0.0)	0 (0.0)	9 (10.6)	2 (2.4)	85 (100.0)	
	80세이상	0 (0.0)	14 (27.5)	2 (3.9)	18 (35.3)	8 (15.7)	7 (13.7)	1 (2.0)	0 (0.0)	0 (0.0)	1 (2.0)	0 (0.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17 (4.7)	18 (5.0)	36 (10.0)	91 (25.2)	81 (22.4)	46 (12.7)	23 (6.4)	7 (1.9)	7 (1.9)	32 (8.9)	3 (0.8)	361 (100.0)	15.126
	비농업	6 (4.3)	11 (8.0)	7 (5.1)	26 (18.8)	44 (31.9)	23 (16.7)	10 (7.2)	1 (0.7)	0 (0.0)	9 (6.5)	1 (0.7)	138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3) 이사의향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6%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표 3-41>참조)
- 이사의향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미성년 자녀 유·무와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사 의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이사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젊은층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과 관련된 양질의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표 3-41> 연령 · 미성년 자녀 · 농업여부별 이사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전체		71 (13.9)	438 (86.1)	509 (100.0)	
연령	20~29세	13 (35.1)	24 (64.9)	37 (100.0)	90.184
	30~39세	30 (41.1)	43 (58.9)	73 (100.0)	
	40~49세	16 (17.8)	74 (82.2)	90 (100.0)	
	50~59세	10 (9.6)	94 (90.4)	104 (100.0)	
	60~69세	1 (1.5)	66 (98.5)	67 (100.0)	
	70~79세	1 (1.1)	86 (98.9)	87 (100.0)	
	80세이상	0 (0.0)	51 (100.0)	51 (100.0)	
미성년 자녀	있음	47 (25.5)	137 (74.5)	184 (100.0)	32.275***
	없음	24 (7.4)	301 (92.6)	325 (100.0)	
농업여부	농업	29 (7.9)	339 (92.1)	368 (100.0)	40.758***
	비농업	42 (29.8)	99 (70.2)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이사하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구직 및 직장문제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 및 보육 시설 문제 와 주거 문제가 18.3%, 교통 문제 11.3%순으로 나타남(<표 3-42>참조)

- 연령대별로 이사이유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대는 구직 및 직장문제 30~40대는 보육 및 보육시설 문제 50대 이상에서는 주거 문제와 경제적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3-42〉 연령 · 미성년 자녀 · 농업여부별 이사 이유

(단위 : 명, %)

구분		경제적 이유	보육 및 보육시 설 문제	구직 및 직장문 제	건강 의료시 설 문제	가족 간 분가 및 합가 문제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기타	계	χ^2
전체		5 (7.0)	13 (18.3)	16 (22.5)	5 (7.0)	2 (2.8)	2 (2.8)	8 (11.3)	13 (18.3)	7 (9.9)	71 (100.0)	
연령	20~29세	1 (7.7)	0 (0.0)	5 (38.5)	0 (0.0)	1 (7.7)	0 (0.0)	4 (30.8)	1 (7.7)	1 (7.7)	13 (100.0)	62.382*
	30~39세	0 (0.0)	10 (33.3)	7 (23.3)	0 (0.0)	0 (0.0)	0 (0.0)	1 (3.3)	7 (23.3)	5 (16.7)	30 (100.0)	
	40~49세	2 (12.5)	3 (18.8)	3 (18.8)	3 (18.8)	1 (6.3)	2 (12.5)	1 (6.3)	1 (6.3)	0 (0.0)	16 (100.0)	
	50~59세	1 (10.0)	0 (0.0)	1 (10.0)	2 (20.0)	0 (0.0)	0 (0.0)	2 (20.0)	3 (30.0)	1 (10.0)	10 (100.0)	
	60~69세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70~7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농업여부	농업	3 (10.3)	8 (27.6)	4 (13.8)	4 (13.8)	1 (3.4)	0 (0.0)	2 (6.9)	4 (13.8)	3 (10.3)	29 (100.0)	10.738
	비농업	2 (4.8)	5 (11.9)	12 (28.6)	1 (2.4)	1 (2.4)	2 (4.8)	6 (14.3)	9 (21.4)	4 (9.5)	42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4) 안전

- 농촌지역 여성들은 마을의 범죄·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인의 위험 정도를 '대체로 안전'하다고 각각 53.8%, 49.9%, 52.8%로 응답함(〈표 3-43〉참조)
- 여성·아동·노인이 범죄·사고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질문한 결과 안전(대체로 안전+매우 안전)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59.5%, 55.4%, 58.9%로 나타남
- 5점척도 평균 3.56으로 나타남.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 여성·아동·노인의 범죄·사고 위험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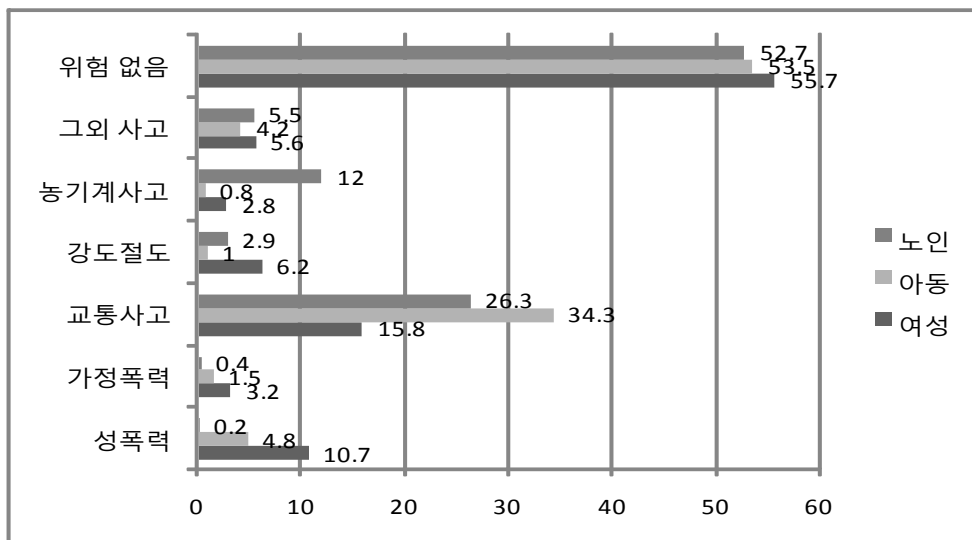
구분(전체)	매우 위험	대체로 위험	보통	대체로 안전(a)	매우 안전(b)	안전(a+b)	평균(5점척도)	계
여성	1 (0.2)	45 (8.8)	160 (31.4)	274 (53.8)	29 (5.7)	303 (59.5)	3.56	509 (100.0)
아동	8 (1.6)	48 (9.4)	171 (33.6)	254 (49.9)	28 (5.5)	282 (55.4)	3.48	509 (100.0)
노인	6 (1.2)	36 (7.1)	167 (32.8)	269 (52.8)	31 (6.1)	300 (58.9)	3.56	509 (100.0)

주: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

- 농촌지역 노인이 마을의 범죄·사고로부터 경험하는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노인의 경우는 '위험없음'을 제외하고 교통사고 26.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농기계사고 12.0%순으로 나타남. 아동의 경우는 교통사고 34.3%, 성폭력 4.8%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는 교통사고 15.8%, 성폭력 10.7% 순으로 나타남(<그림 3-1>참조)
- 농촌지역 노인·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 안전한 농기계개발 및 사용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구됨

〈그림 3-1〉 노인·아동·여성의 위험 종류(복수응답)

(단위 : %)



바.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욕구

- 농촌지역 여성의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욕구를 관련 기관·제도 인지 및 이용여부, 복지욕구, 지역사회활성화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1) 기관·제도 인지 및 이용여부

-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체등록제도(50.9%)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0.6%)를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표 3-44>참조)
-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제도 이용여부 조사결과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59.1%)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제도를 ‘아는’ 만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4> 농촌 및 농업관련 기관·제도 인지·이용여부

(단위 : 명, %)

구분(전체)	안다	모른다	계	이용	비이용	계
여성 농업인센터	220 (43.2)	289 (56.8)	509 (100.0)	57 (25.9)	163 (74.1)	220 (100.0)
농가도우미제도	184 (36.1)	325 (63.9)	509 (100.0)	39 (21.2)	145 (78.8)	184 (100.0)
농업기술센터	333 (65.4)	176 (34.6)	509 (100.0)	96 (28.8)	237 (71.2)	333 (100.0)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105 (20.6)	404 (79.4)	509 (100.0)	14 (13.3)	91 (86.7)	105 (100.0)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259 (50.9)	250 (49.1)	509 (100.0)	153 (59.1)	106 (40.9)	259 (100.0)
농어촌지역 방문건강서비스 제도	182 (35.8)	327 (64.2)	509 (100.0)	50 (27.5)	132 (72.5)	182 (100.0)

2) 복지욕구

-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약간 필요+매우 필요)라는 응답 중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확대에 대한 욕구가 91.3%로 가장 많았음(<표 3-45>참조)

- 조사한 결과 5점척도 평균 중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확대’에 대한 욕구가(4.49)로 가장 높았음.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 노부모 및 노약자 요양보호사 제도확대’(평균 4.37), ‘출산전·후 여성농가도우미 지원’(평균 4.33), ‘지역내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등·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평균 4.30),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지원’(평균 4.25), ‘농촌지역 중·장년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마련’(평균 4.24),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보육제도 확대’(평균 4.21), ‘취학자녀 통학버스운영 및 방과후학습확대’(평균 4.13), ‘농촌지역 지역 여성의 취·창업지원센터 건립’(평균 4.10),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전문상담기관확충’(평균 4.02), ‘농번기 가족식사 및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제도’(평균 3.97)순으로 나타남
- 모든 문항에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먼저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검진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45〉 농촌지역 여성의 복지제도 확대 욕구

(단위 : 명, %, 점)

구분(전체)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약간 필요(a)	매우 필요(b)	필요(a+b)	평균 (5점척도)	계
가정 내 노부모 및 노약자 요양보호사	0 (0.0)	10 (2.0)	48 (9.4)	196 (38.5)	255 (50.1)	451 (88.6)	4.37	509 (100.0)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보육제도	1 (0.2)	4 (0.8)	87 (17.1)	214 (42.0)	203 (39.9)	301 (59.1)	4.21	509 (100.0)
취학 자녀 통학버스 운영 및 방과 후 학습확대	0 (0.0)	9 (1.8)	109 (21.4)	199 (39.1)	192 (37.7)	391 (76.8)	4.13	509 (100.0)
농번기 가족식사 및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제도	1 (0.2)	31 (6.1)	113 (22.2)	200 (39.3)	164 (32.2)	364 (71.5)	3.97	509 (100.0)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	2 (0.4)	6 (1.2)	68 (13.4)	221 (43.4)	212 (41.7)	433 (85.1)	4.25	509 (100.0)
농촌지역 중·장년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0 (0.0)	8 (1.6)	64 (12.6)	234 (46.0)	203 (39.9)	437 (85.9)	4.24	509 (100.0)
농촌지역 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1 (0.2)	11 (2.2)	104 (20.4)	212 (41.7)	181 (35.6)	393 (77.3)	4.10	509 (100.0)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사업 확대	1 (0.2)	4 (0.8)	39 (7.7)	164 (32.2)	301 (59.1)	465 (91.3)	4.49	509 (100.0)
출산전후 여성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	1 (0.2)	5 (1.0)	71 (13.9)	182 (35.8)	250 (49.1)	432 (84.9)	4.33	509 (100.0)
지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등, 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	2 (0.4)	3 (0.6)	59 (11.6)	221 (43.4)	224 (44.0)	445 (87.4)	4.30	509 (100.0)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확충	2 (0.4)	8 (1.6)	124 (24.4)	220 (43.2)	155 (30.5)	375 (73.7)	4.02	509 (100.0)

주: 5점 척도(1 전혀 필요없음 ~ 5 매우 필요)

3)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 농촌지역 여성에게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방안, 고령여성 지원정책, 후계여성 농업인 정착방안, 젊은 여성 농촌지역 유입방안 등을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농촌지역 여성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가족의 이해'(31.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이 여성 농업인 단체·여성단체지원확대(26.3%), 여성 농업인 대상 리더십 훈련교육(17.7%), 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13.9%),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우수 마을우대지원 (10.8%)순으로 나타남(<표 3-46>참조)
- 지역사회 참여방안에 대해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여성 농업인이든 여성 비농업인이든 가족의 이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46〉 연령·농업여부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구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우수 마을우대지원	여성 농업인 대상 리더십 훈련교육	가족의 이해	마을부녀회 에 대한 지원	여성 농업인 단체·여성단 체지원확대	계	χ^2
전체		55 (10.8)	90 (17.7)	159 (31.2)	71 (13.9)	134 (26.3)	509 (100.0)	
연령	20~29세	5 (13.5)	8 (21.6)	12 (32.4)	2 (5.4)	10 (27.0)	37 (100.0)	30.398
	30~39세	13 (17.8)	14 (19.2)	17 (23.3)	10 (13.7)	19 (26.0)	73 (100.0)	
	40~49세	7 (7.8)	19 (21.1)	27 (30.0)	12 (13.3)	25 (27.8)	90 (100.0)	
	50~59세	11 (10.6)	24 (23.1)	27 (26.0)	8 (7.7)	34 (32.7)	104 (100.0)	
	60~69세	6 (9.0)	9 (13.4)	21 (31.3)	15 (22.4)	16 (23.9)	67 (100.0)	
	70~79세	7 (8.0)	11 (12.6)	33 (37.9)	16 (18.4)	20 (23.0)	87 (100.0)	
	80세이상	6 (11.8)	5 (9.8)	22 (43.1)	8 (15.7)	10 (19.6)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6 (9.8)	70 (19.0)	111 (30.2)	54 (14.7)	97 (26.4)	368 (100.0)	3.628
	비농업	19 (13.5)	20 (14.2)	48 (34.0)	17 (12.1)	37 (26.2)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 농촌지역 여성의 고령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28.5%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고령여성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수리·시설개량지원(21.6%),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 도우미 지원(15.9%), 문화·여가생활 지원(11.8%), 고령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11.0%)순으로 나타남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는 고령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47〉 연령·농업여부별 고령여성 지원정책

(단위 : 명, %)

구분		고령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 리 창출	고령여성 주거안전 을 위한 주택수리· 시설개량 지원	상시적인 보건·의 료 서비스 지원	문화·여 가생활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외출 등 이동서비 스에 대한 지원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 도우미 지원	계	χ^2
전체		56 (11.0)	110 (21.6)	145 (28.5)	60 (11.8)	19 (3.7)	38 (7.5)	81 (15.9)	509 (100.0)	
연령	20~29세	5 (13.5)	2 (5.4)	20 (54.1)	4 (10.8)	0 (0.0)	4 (10.8)	2 (5.4)	37 (100.0)	48.898
	30~39세	8 (11.0)	20 (27.4)	17 (23.3)	10 (13.7)	1 (1.4)	4 (5.5)	13 (17.8)	73 (100.0)	
	40~49세	10 (11.1)	21 (23.3)	22 (24.4)	14 (15.6)	3 (3.3)	6 (6.7)	14 (15.6)	90 (100.0)	
	50~59세	19 (18.3)	24 (23.1)	27 (26.0)	10 (9.6)	6 (5.8)	6 (5.8)	12 (11.5)	104 (100.0)	
	60~69세	4 (6.0)	15 (22.4)	18 (26.9)	12 (17.9)	3 (4.5)	3 (4.5)	12 (17.9)	67 (100.0)	
	70~79세	4 (4.6)	18 (20.7)	28 (32.2)	4 (4.6)	4 (4.6)	10 (11.5)	19 (21.8)	87 (100.0)	
	80세이상	6 (11.8)	10 (19.6)	13 (25.5)	6 (11.8)	2 (3.9)	5 (9.8)	9 (17.6)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9 (10.6)	82 (22.3)	99 (26.9)	41 (11.1)	16 (4.3)	30 (8.2)	61 (16.6)	368 (100.0)	4.668
	비농업	17 (12.1)	28 (19.9)	46 (32.6)	19 (13.5)	3 (2.1)	8 (5.7)	20 (14.2)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 농촌지역 여성의 후계여성농민을 위해서는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해결’이 35.0%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영농 경영교육지원(29.1%),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25.0%), 농지 관련 대출지원(11.0%)순으로 나타남(<표 3-48>참조)
- 후계여성농민의 영농정착에 대해 지역과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지역별로는 제주시 서부가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해결 필요’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귀포시 동부는 ‘영농 경영교육지원필요’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있어서는 30대는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해결 필요’, 20대·40대·50대는 ‘영농 경영교육지원필요’, 60대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필요’에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농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농촌지역 후계여성농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48〉 지역·연령·농업여부별 후계여성 농업인 영농정착 위한 제도

(단위 : 명, %)

구분		농지 관련 대출지원	영농 경영교육지원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계	χ^2
전체		56 (11.0)	148 (29.1)	178 (35.0)	127 (25.0)	509 (100.0)	
지역	제주시 동부	13 (12.1)	31 (29.0)	31 (29.0)	32 (29.9)	107 (100.0)	18.869*
	제주시 서부	20 (11.0)	50 (27.6)	80 (44.2)	31 (17.1)	181 (100.0)	
	서귀포시 동부	16 (12.0)	43 (32.3)	33 (24.8)	41 (30.8)	133 (100.0)	
	서귀포시 서부	7 (8.0)	24 (27.3)	34 (38.6)	23 (26.1)	88 (100.0)	
연령	20~29세	2 (5.4)	16 (43.2)	14 (37.8)	5 (13.5)	37 (100.0)	72.997***
	30~39세	9 (12.3)	16 (21.9)	40 (54.8)	8 (11.0)	73 (100.0)	
	40~49세	14 (15.6)	30 (33.3)	22 (24.4)	24 (26.7)	90 (100.0)	
	50~59세	10 (9.6)	43 (41.3)	21 (20.2)	30 (28.8)	104 (100.0)	
	60~69세	13 (19.4)	13 (19.4)	13 (19.4)	28 (41.8)	67 (100.0)	
	70~79세	6 (6.9)	21 (24.1)	41 (47.1)	19 (21.8)	87 (100.0)	
	80세이상	2 (3.9)	9 (17.6)	27 (52.9)	13 (25.5)	51 (100.0)	

구분		농지 관련 대출지원	영농 경영교육지원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계	χ^2
농업여부	농업	41 (11.1)	108 (29.3)	119 (32.3)	100 (27.2)	368 (100.0)	5.323
	비농업	15 (10.6)	40 (28.4)	59 (41.8)	27 (19.1)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 젊은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보육시설·교육기관·의료시설 등 복지시설확충'이 48.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30.5%),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20.2%)순임(<표 3-49>참조)
- 연령대와 농업여부별로 젊은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49> 연령·농업여부별 젊은 여성유입을 위한 선결과제

(단위 : 명, %)

구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기타	계	χ^2
전체		103 (20.2)	155 (30.5)	249 (48.9)	2 (0.4)	509 (100.0)	
연령	20~29세	6 (16.2)	12 (32.4)	19 (51.4)	0 (0.0)	37 (100.0)	19.953
	30~39세	16 (21.9)	17 (23.3)	40 (54.8)	0 (0.0)	73 (100.0)	
	40~49세	18 (20.0)	32 (35.6)	40 (44.4)	0 (0.0)	90 (100.0)	
	50~59세	27 (26.0)	36 (34.6)	41 (39.4)	0 (0.0)	104 (100.0)	
	60~69세	13 (19.4)	21 (31.3)	33 (49.3)	0 (0.0)	67 (100.0)	
	70~79세	15 (17.2)	23 (26.4)	47 (54.0)	2 (2.3)	87 (100.0)	
	80세이상	8 (15.7)	14 (27.5)	29 (56.9)	0 (0.0)	51 (100.0)	
농업여부	농업	76 (20.7)	114 (31.0)	176 (47.8)	2 (0.5)	368 (100.0)	1.326
	비농업	27 (19.1)	41 (29.1)	73 (51.8)	0 (0.0)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3.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

○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를 영농실태, 의사결정권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가. 영농실태

○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를 농업종사경력, 겸업여부, 농사규모, 농사수입, 농사일분담 정도, 농사시간, 농기계사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1) 농업종사경력

○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을 살펴보면, 결혼 전에도 농사경험을 가진 여성은 전체 368명중 121명으로 32.9%이며 평균 2.5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결혼이후 농사경력 28.9년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은 주로 결혼과 함께 시작됨을 알 수 있음(<표 3-50>과 <표 3-51>참조)

<표 3-50>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결혼 전 농사경력

(단위 : 명, %)

구분		안함	1-5년	6-10년	11년이상	평균(년)	계	F
전체		247 (67.1)	54 (14.7)	58 (15.8)	9 (2.4)	2.5	36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0	0 (100.0)	14.491***
	30~39세	25 (80.6)	2 (6.5)	4 (12.9)	0 (0.0)	1.4	31 (100.0)	
	40~49세	60 (89.6)	3 (4.5)	4 (6.0)	0 (0.0)	0.6	67 (100.0)	
	50~59세	76 (84.4)	11 (12.2)	3 (3.3)	0 (0.0)	0.9	90 (100.0)	
	60~69세	31 (53.4)	10 (17.2)	13 (22.4)	4 (6.9)	4.0	58 (100.0)	
	70~79세	41 (50.0)	16 (19.5)	22 (26.8)	3 (3.7)	3.9	82 (100.0)	
	80세이상	14 (35.0)	12 (30.0)	12 (30.0)	2 (5.0)	4.8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연령별로 농업종사경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농사경력 평균이 높았음
- 강경희(2007)의 「제주 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제주 여성 농업인의 농사경력이 20년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사경력이 결혼 후 5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많았음.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력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51〉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결혼 후 농사경력

(단위 : 명, %)

구분		10년 미만	11-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계	F
전체		77 (20.9)	49 (13.3)	56 (15.2)	49 (13.3)	45 (12.2)	92 (25.0)	28.9	36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0 (100.0)	181.89***
	30~39세	24 (77.4)	7 (22.6)	0 (0.0)	0 (0.0)	0 (0.0)	0 (0.0)	5.8	31 (100.0)	
	40~49세	27 (40.3)	22 (32.8)	18 (26.9)	0 (0.0)	0 (0.0)	0 (0.0)	11.5	67 (100.0)	
	50~59세	17 (18.9)	17 (18.9)	30 (33.3)	25 (27.8)	1 (1.1)	0 (0.0)	19.9	90 (100.0)	
	60~69세	7 (12.1)	1 (1.7)	6 (10.3)	15 (25.9)	25 (43.1)	4 (6.9)	32.9	58 (100.0)	
	70~79세	1 (1.2)	2 (2.4)	2 (2.4)	7 (8.5)	14 (17.1)	56 (68.3)	46.9	82 (100.0)	
	80세이상	1 (2.5)	0 (0.0)	0 (0.0)	2 (5.0)	5 (12.5)	32 (80.0)	53.0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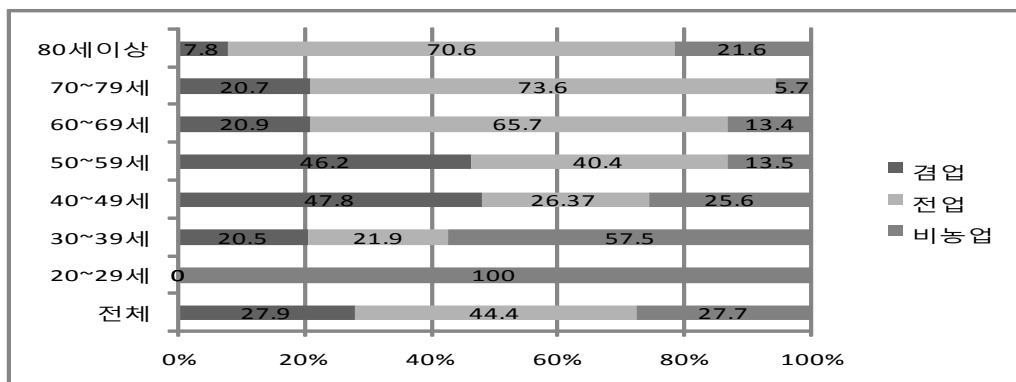
2) 겸업여부

- 여성 농업인의 겸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농업인 368명중 전업 여성 44.4%, 겸업 여성 농업인 27.9%으로 나타남(<그림 3-2>참조)

-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0~50대는 겸업이 많고 60대 이후로는 전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겸업여부

(단위: %)



3) 농사규모

- 여성 농업인의 농사규모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시설의 경우 없음이 7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00평 미만(9.8%)으로 나타남. 반면 노지의 경우는 1,000~ 2,000평 미만이 24.5%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1,000평 미만 (18.3%), 2,000~ 3,000평 미만(16.3%), 3,000~ 5,000평 미만(14.7%), 5,000평~ 10,000평 미만(13.4%)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시설농사보다는 노지농사를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52>과 <표 3-53> 참조)
- 시설의 경우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농가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규모의 평수가 넓음을 알 수 있음

〈표 3-5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규모(시설)

(단위: 명, %)

구분	없음	1,000평 미만	1,000~ 2,000평 미만	2,000~ 3,000평 미만	3,000~ 5,000평 미만	5,000~ 10,000평 미만	계	χ^2
전체	281 (76.8)	36 (9.8)	24 (6.6)	17 (4.6)	5 (1.4)	3 (0.8)	366 (100.0)	

구분		없음	1,000평 미만	1,000~ 2,000평 미만	2,000~ 3,000평 미만	3,000~ 5,000평 미만	5,000~ 10,000평 미만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37.015
	30~39세	21 (67.7)	5 (16.1)	2 (6.5)	3 (9.7)	0 (0.0)	0 (0.0)	31 (100.0)	
	40~49세	49 (73.1)	10 (14.9)	5 (7.5)	2 (3.0)	1 (1.5)	0 (0.0)	67 (100.0)	
	50~59세	63 (70.0)	10 (11.1)	10 (11.1)	4 (4.4)	1 (1.1)	2 (2.2)	90 (100.0)	
	60~69세	39 (68.4)	5 (8.8)	4 (7.0)	5 (8.8)	3 (5.3)	1 (1.8)	57 (100.0)	
	70~79세	72 (88.9)	6 (7.4)	1 (1.2)	2 (2.5)	0 (0.0)	0 (0.0)	81 (100.0)	
	80세이상	37 (92.5)	0 (0.0)	2 (5.0)	1 (2.5)	0 (0.0)	0 (0.0)	40 (100.0)	
농가 소득	500만원 미만	25 (96.2)	1 (3.8)	0 (0.0)	0 (0.0)	0 (0.0)	0 (0.0)	26 (100.0)	143.49***
	500~1천만원 미만	54 (93.1)	2 (3.4)	1 (1.7)	1 (1.7)	0 (0.0)	0 (0.0)	58 (100.0)	
	1천~2천만원 미만	51 (89.5)	3 (5.3)	3 (5.3)	0 (0.0)	0 (0.0)	0 (0.0)	57 (100.0)	
	2천~3천만원 미만	54 (79.4)	6 (8.8)	6 (8.8)	2 (2.9)	0 (0.0)	0 (0.0)	68 (100.0)	
	3천~4천만원 미만	48 (82.8)	6 (10.3)	2 (3.4)	1 (1.7)	0 (0.0)	1 (1.7)	58 (100.0)	
	4천~5천만원 미만	20 (66.7)	8 (26.7)	1 (3.3)	1 (3.3)	0 (0.0)	0 (0.0)	30 (100.0)	
	5천~6천만원 미만	13 (52.0)	3 (12.0)	5 (20.0)	3 (12.0)	1 (4.0)	0 (0.0)	25 (100.0)	
	6천~1억원 미만	12 (42.9)	6 (21.4)	3 (10.7)	5 (17.9)	2 (7.1)	0 (0.0)	28 (100.0)	
	1억원 이상	4 (26.7)	1 (6.7)	2 (13.3)	4 (26.7)	2 (13.3)	2 (13.3)	15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노지의 경우 연령대별 농가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노지의 평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노지의 평수도 넓음을 알 수 있음

〈표 3-53〉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규모(노지)

(단위 : 명, %)

구분		없음	1,000평 미만	1,000~ 2,000평 미만	2,000~ 3,000평 미만	3,000~ 5,000평 미만	5,000평~ 10,000평 미만	1만평 이상	계	χ^2
전체		17 (4.6)	67 (18.3)	90 (24.5)	60 (16.3)	54 (14.7)	49 (13.4)	30 (8.2)	367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62.834***
	30~39세	5 (16.1)	6 (19.4)	5 (16.1)	4 (12.9)	3 (9.7)	4 (12.9)	4 (12.9)	31 (100.0)	
	40~49세	3 (4.5)	10 (15.2)	20 (30.3)	12 (18.2)	8 (12.1)	9 (13.6)	4 (6.1)	66 (100.0)	
	50~59세	6 (6.7)	14 (15.6)	17 (18.9)	17 (18.9)	10 (11.1)	12 (13.3)	14 (15.6)	90 (100.0)	
	60~69세	2 (3.4)	4 (6.9)	9 (15.5)	13 (22.4)	14 (24.1)	12 (20.7)	4 (6.9)	58 (100.0)	
	70~79세	1 (1.2)	18 (22.0)	24 (29.3)	10 (12.2)	16 (19.5)	10 (12.2)	3 (3.7)	82 (100.0)	
	80세이상	0 (0.0)	15 (37.5)	15 (37.5)	4 (10.0)	3 (7.5)	2 (5.0)	1 (2.5)	40 (100.0)	
농가 소득	500만원 미만	0 (0.0)	12 (46.2)	8 (30.8)	3 (11.5)	2 (7.7)	1 (3.8)	0 (0.0)	26 (100.0)	123.85***
	500~1천만원 미만	1 (1.7)	15 (25.4)	24 (40.7)	7 (11.9)	7 (11.9)	4 (6.8)	1 (1.7)	59 (100.0)	
	1천~2천만원 미만	1 (1.8)	13 (22.8)	14 (24.6)	12 (21.1)	11 (19.3)	4 (7.0)	2 (3.5)	57 (100.0)	
	2천~3천만원 미만	4 (6.0)	10 (14.9)	16 (23.9)	13 (19.4)	14 (20.9)	7 (10.4)	3 (4.5)	67 (100.0)	
	3천~4천만원 미만	3 (5.1)	11 (18.6)	12 (20.3)	12 (20.3)	5 (8.5)	12 (20.3)	4 (6.8)	59 (100.0)	
	4천~5천만원 미만	0 (0.0)	2 (6.7)	5 (16.7)	6 (20.0)	8 (26.7)	7 (23.3)	2 (6.7)	30 (100.0)	
	5천~6천만원 미만	2 (8.0)	1 (4.0)	7 (28.0)	2 (8.0)	4 (16.0)	5 (20.0)	4 (16.0)	25 (100.0)	
	6천~1억원 미만	4 (14.3)	1 (3.6)	3 (10.7)	2 (7.1)	2 (7.1)	8 (28.6)	8 (28.6)	28 (100.0)	
	1억원 이상	2 (13.3)	1 (6.7)	1 (6.7)	3 (20.0)	1 (6.7)	1 (6.7)	6 (40.0)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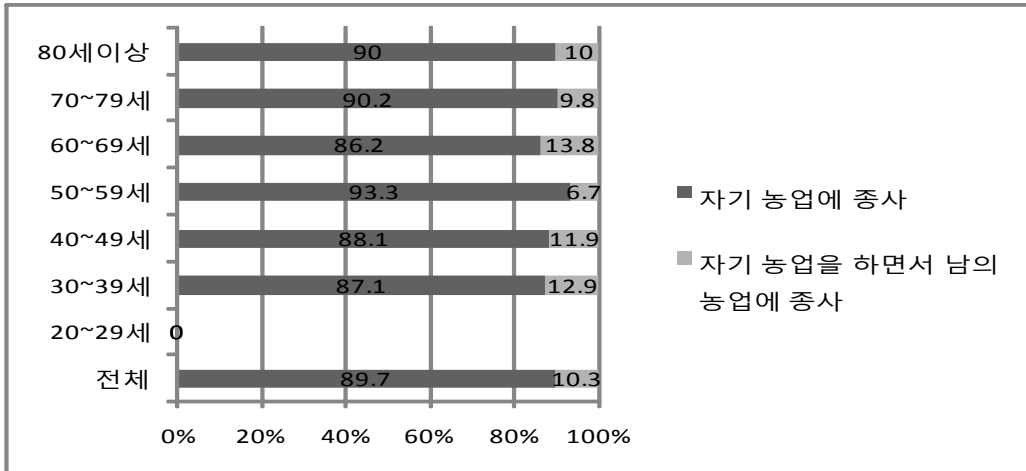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4) 농사수입

- 여성 농업인의 농사짓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자기 농업을 하는 응답자가 89.7%로 나타남(<그림 3-3>참조). 연령별로 50대에서 9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경 방식

(단위 : %)



- 여성 농업인의 농산물 주력품목은 과실류가 49.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채소류(42.7%)였음(<표 3-54>참조)
-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제주시 동부와 서부는 채소류를 서귀포시 동부는 과실류를 서귀포시 서부는 과실류와 채소류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음.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주력품목이 과실류가 46.7%였고 그 다음이 채소류 20.5%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보다 많은 농가에서 채소류 재배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54>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업 생산물

(단위 : 명, %)

구분	정곡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과실류	축산	계	χ^2
전체	24 (6.5)	157 (42.7)	1 (0.3)	3 (0.8)	182 (49.5)	1 (0.3)	368 (100.0)	

구분		정곡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과실류	축산	계	χ^2
지역 구분	제주시 동부	17 (21.3)	37 (46.3)	1 (1.3)	1 (1.3)	24 (30.0)	0 (0.0)	80 (100.0)	121.86***
	제주시 서부	6 (4.8)	78 (61.9)	0 (0.0)	2 (1.6)	40 (31.7)	0 (0.0)	126 (100.0)	
	서귀포시 동부	0 (0.0)	10 (10.6)	0 (0.0)	0 (0.0)	83 (88.3)	1 (1.1)	94 (100.0)	
	서귀포시 서부	1 (1.5)	32 (47.1)	0 (0.0)	0 (0.0)	35 (51.5)	0 (0.0)	6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26.482
	30~39세	2 (6.5)	12 (38.7)	0 (0.0)	0 (0.0)	17 (54.8)	0 (0.0)	31 (100.0)	
	40~49세	1 (1.5)	30 (44.8)	0 (0.0)	1 (1.5)	35 (52.2)	0 (0.0)	67 (100.0)	
	50~59세	8 (8.9)	32 (35.6)	0 (0.0)	0 (0.0)	49 (54.4)	1 (1.1)	90 (100.0)	
	60~69세	6 (10.3)	23 (39.7)	0 (0.0)	0 (0.0)	29 (50.0)	0 (0.0)	58 (100.0)	
	70~79세	6 (7.3)	39 (47.6)	0 (0.0)	2 (2.4)	35 (42.7)	0 (0.0)	82 (100.0)	
	80세이상	1 (2.5)	21 (52.5)	1 (2.5)	0 (0.0)	17 (42.5)	0 (0.0)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여성 농업인의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을 질문한 결과, 1,000~3,000만원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1,000만원 미만(20.4%), 100만원~500만원 미만(16.8%), 3,000~5,000만원 미만(10.3%)순으로 나타남(<표 3-55> 참조)
-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0~70대는 1,000~3,000만원 미만이, 80대는 500~1,000만원 미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5>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축산물 판매소득

(단위 : 명, %)

구분	판매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500 만원 미만	500~1, 000만 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1 억원 미만	1억 이상	계	χ^2
전체	8 (2.2)	22 (6.0)	62 (16.8)	75 (20.4)	113 (30.7)	38 (10.3)	34 (9.2)	16 (4.3)	368 (100.0)	

구분		판매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500 만원 미만	500~1, 000만 원 미만	1,000~3, 000만 원 미만	3,000~5, 000만 원 미만	5,000 만원~1 억원 미만	1억 이상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55.489*
	30~39세	0 (0.0)	2 (6.5)	6 (19.4)	3 (9.7)	10 (32.3)	2 (6.5)	7 (22.6)	1 (3.2)	31 (100.0)	
	40~49세	3 (4.5)	5 (7.5)	15 (22.4)	8 (11.9)	23 (34.3)	6 (9.0)	4 (6.0)	3 (4.5)	67 (100.0)	
	50~59세	1 (1.1)	5 (5.6)	10 (11.1)	17 (18.9)	26 (28.9)	13 (14.4)	12 (13.3)	6 (6.7)	90 (100.0)	
	60~69세	1 (1.7)	0 (0.0)	9 (15.5)	14 (24.1)	14 (24.1)	10 (17.2)	7 (12.1)	3 (5.2)	58 (100.0)	
	70~79세	1 (1.2)	3 (3.7)	16 (19.5)	21 (25.6)	30 (36.6)	5 (6.1)	4 (4.9)	2 (2.4)	82 (100.0)	
	80세이상	2 (5.0)	7 (17.5)	6 (15.0)	12 (30.0)	10 (25.0)	2 (5.0)	0 (0.0)	1 (2.5)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5) 농사일분담정도

- 농사일 분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농업인은 절반정도분담(38.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거의 전부'(22.5%), '30~40% 정도'(13.6%), '80%정도'(10.9%), '30% 미만'(10.1%) 순으로 나타남(<표 5-56>참조)
-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이상 담당 비율(거의전부+80%정도+60~70%정도+절반정도)이 90~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07년 자료에서는 농사일분담정도가 전 연령대에서 30~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 분담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농림축산부(2014:49)의 「2013년 전국여성 농업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국 여성 농업인 농사일분담정도도 50~75%가 44.0%로 가장 많아 전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56>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사일 분담정도

(단위 : 명, %)

구분	거의 전부	80% 정도	60~70% 정도	절반 정도	30~40% 정도	30% 미만	계	χ^2
전체	81 (22.0)	40 (10.9)	19 (5.2)	141 (38.3)	50 (13.6)	37 (10.1)	368 (100.0)	

구분		거의 전부	80% 정도	60~70% 정도	절반 정도	30~40% 정도	30% 미만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72.754***
	30~39세	2 (6.5)	1 (3.2)	2 (6.5)	12 (38.7)	5 (16.1)	9 (29.0)	31 (100.0)	
	40~49세	9 (13.4)	9 (13.4)	4 (6.0)	15 (22.4)	18 (26.9)	12 (17.9)	67 (100.0)	
	50~59세	12 (13.3)	9 (10.0)	3 (3.3)	42 (46.7)	15 (16.7)	9 (10.0)	90 (100.0)	
	60~69세	14 (24.1)	10 (17.2)	3 (5.2)	26 (44.8)	3 (5.2)	2 (3.4)	58 (100.0)	
	70~79세	29 (35.4)	8 (9.8)	6 (7.3)	32 (39.0)	4 (4.9)	3 (3.7)	82 (100.0)	
	80세이상	15 (37.5)	3 (7.5)	1 (2.5)	14 (35.0)	5 (12.5)	2 (5.0)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6) 농사시간

- 하루에 농사를 하는 시간을 질문한 결과 1일 평균 농사시간은 7-10시간이 38.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4-6시간으로 35.1%, 1-3시간이 25.0%순으로 나타남
- 농사시간에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30대·50대·60대·70대는 7-10시간, 40대는 1-3시간, 80대는 4-6시간으로 나타남(<표 3-57>참조)
- 강경희(2007:75)는 연령대별로 농사시간을 조사한 결과 젊은 층은 1~3시간, 40~50대는 4~6시간, 60세 이후는 11~13시간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함. 본 연구와 비교하면 젊은 층의 농사시간이 증가한 반면, 40이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표 3-57>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하루 평균 농사시간

(단위 : 명, %)

구분		1-3시간	4-6시간	7-10시간	11시간이상	평균(시간)	계	F
전체		92 (25.0)	129 (35.1)	143 (38.9)	4 (1.1)	5.8	36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0	0 (100.0)	6.859***
	30~39세	10 (32.3)	10 (32.3)	11 (35.5)	0 (0.0)	5.2	31 (100.0)	
	40~49세	30 (44.8)	18 (26.9)	19 (28.4)	0 (0.0)	4.7	67 (100.0)	

구분		1-3시간	4-6시간	7-10시간	11시간이상	평균(시간)	계	F
	50~59세	22 (24.4)	33 (36.7)	33 (36.7)	2 (2.2)	5.6	90 (100.0)	
	60~69세	6 (10.3)	21 (36.2)	31 (53.4)	0 (0.0)	6.8	58 (100.0)	
	70~79세	13 (15.9)	28 (34.1)	39 (47.6)	2 (2.4)	6.7	82 (100.0)	
	80세이상	11 (27.5)	19 (47.5)	10 (25.0)	0 (0.0)	5.1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7) 사용농기계

-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시 필요한 농기계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소형동력농약분무기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소형 파쇄기(19.0%), 소형 트랙터(18.2%)순으로 나타남(<표 3-58>참조)
- 지역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제주시 동부는 소형 트랙터가 제주시 서부는 소형동력농약 분무기, 서귀포시 동부는 소형 파쇄기, 서귀포시 서부는 소형동력농약 분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는 소형 트랙터, 40대 이상은 소형동력농약 분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지역과 특정 연령대에서는 특정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됨

<표 3-58> 여성 농업인의 지역·연령별 필요한 농작업 기계

(단위 : 명, %)

구분		쪽파 탈피기	채소 파종기	소형 트랙터	소형 파쇄기	소형동력 농약 분무기	기타 (경운기, 관리기)	없음	계	χ^2
전체		18 (4.9)	24 (6.5)	67 (18.2)	70 (19.0)	140 (38.0)	16 (4.3)	33 (9.0)	368 (100.0)	118.93***
지역	제주시 동부	2 (2.5)	4 (5.0)	27 (33.8)	12 (15.0)	17 (21.3)	4 (5.0)	14 (17.5)	80 (100.0)	
	제주시 서부	15 (11.9)	14 (11.1)	28 (22.2)	11 (8.7)	46 (36.5)	3 (2.4)	9 (7.1)	126 (100.0)	
	서귀포시 동부	0 (0.0)	2 (2.1)	6 (6.4)	41 (43.6)	40 (42.6)	3 (3.2)	2 (2.1)	94 (100.0)	
	서귀포시 서부	1 (1.5)	4 (5.9)	6 (8.8)	6 (8.8)	37 (54.4)	6 (8.8)	8 (11.8)	68 (100.0)	

구분		쪽파 탈피기	채소 파종기	소형 트랙터	소형 파쇄기	소형동력 농약 분무기	기타 (경운기, 관리기)	없음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67.637***
	30~39세	3 (9.7)	3 (9.7)	10 (32.3)	4 (12.9)	9 (29.0)	1 (3.2)	1 (3.2)	31 (100.0)	
	40~49세	1 (1.5)	5 (7.5)	14 (20.9)	17 (25.4)	26 (38.8)	4 (6.0)	0 (0.0)	67 (100.0)	
	50~59세	4 (4.4)	6 (6.7)	21 (23.3)	28 (31.1)	24 (26.7)	3 (3.3)	4 (4.4)	90 (100.0)	
	60~69세	5 (8.6)	4 (6.9)	8 (13.8)	8 (13.8)	27 (46.6)	3 (5.2)	3 (5.2)	58 (100.0)	
	70~79세	3 (3.7)	3 (3.7)	8 (9.8)	7 (8.5)	40 (48.8)	3 (3.7)	18 (22.0)	82 (100.0)	
	80세이상	2 (5.0)	3 (7.5)	6 (15.0)	6 (15.0)	14 (35.0)	2 (5.0)	7 (17.5)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나. 의사결정권

- 농사와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을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여부, 농지소유자, 농업경영시 의사결정 참여정도로 나누어 살펴봄

1)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농가경영주

- 여성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농가경영주가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54.9%로 나타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는 연령대와 농가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45%이하로 낮게 나타남. 또한, 농가소득별로는 농가소득이 높을수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3-59>참조)

〈표 3-59〉 여성 농업인의 연령 · 농가소득별 농업경영체 등록

(단위 : 명, %)

구분	등록	비등록	계	χ^2
전체	202 (54.9)	166 (45.1)	368 (100.0)	

구분		등록	비등록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100.0)	32.295***
	30~39세	17 (54.8)	14 (45.2)	31 (100.0)	
	40~49세	50 (74.6)	17 (25.4)	67 (100.0)	
	50~59세	54 (60.0)	36 (40.0)	90 (100.0)	
	60~69세	35 (60.3)	23 (39.7)	58 (100.0)	
	70~79세	37 (45.1)	45 (54.9)	82 (100.0)	
	80세이상	9 (22.5)	31 (77.5)	40 (100.0)	
농가 소득	500만원 미만	8 (30.8)	18 (69.2)	26 (100.0)	31.380***
	500~1천만원 미만	23 (39.0)	36 (61.0)	59 (100.0)	
	1천~2천만원 미만	23 (40.4)	34 (59.6)	57 (100.0)	
	2천~3천만원 미만	39 (57.4)	29 (42.6)	68 (100.0)	
	3천~4천만원 미만	43 (72.9)	16 (27.1)	59 (100.0)	
	4천~5천만원 미만	20 (66.7)	10 (33.3)	30 (100.0)	
	5천~6천만원 미만	16 (64.0)	9 (36.0)	25 (100.0)	
	6천~1억원 미만	19 (67.9)	9 (32.1)	28 (100.0)	
	1억원 이상	11 (73.3)	4 (26.7)	15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가경영주는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남편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인 32.6%으로 나타남(<표 3-60>참조)
- 농가경영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이 경영주가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60〉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가 경영주

(단위 : 명, %)

구분	본인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	부부공동	기타 (자녀, 지인)	계	χ^2
전체	120 (32.6)	198 (53.8)	6 (1.6)	5 (1.4)	26 (7.1)	13 (3.5)	368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83.242***
	30~39세	3 (9.7)	23 (74.2)	2 (6.5)	1 (3.2)	2 (6.5)	0 (100.0)	
	40~49세	19 (28.4)	37 (55.2)	3 (4.5)	4 (6.0)	4 (6.0)	0 (100.0)	
	50~59세	25 (27.8)	49 (54.4)	1 (1.1)	0 (0.0)	13 (14.4)	2 (2.2)	
	60~69세	18 (31.0)	36 (62.1)	0 (0.0)	0 (0.0)	4 (6.9)	0 (100.0)	
	70~79세	37 (45.1)	39 (47.6)	0 (0.0)	0 (0.0)	2 (2.4)	4 (4.9)	
	80세이상	18 (45.0)	14 (35.0)	0 (0.0)	0 (0.0)	1 (2.5)	7 (17.5)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농지소유자와 의사결정시 참여정도

- 여성 농업인에게 농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농사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먼저 농지소유자로는 남편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인(19.3%), 친척 혹은 타인(17.7%)순으로 나타남(<표 3-61>참조)
- 농지소유와 관련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의 농지소유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 3-61〉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자

(단위 : 명, %)

구분	본인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	친척 혹은 타인	부부공동	계	χ^2
전체	71 (19.3)	183 (49.7)	9 (2.4)	20 (5.4)	65 (17.7)	20 (5.4)	368 (100.0)	

구분		본인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	친척 혹은 타인	부부공동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97.958***
	30~39세	2 (6.5)	13 (41.9)	3 (9.7)	6 (19.4)	4 (12.9)	3 (9.7)	31 (100.0)	
	40~49세	7 (10.4)	36 (53.7)	6 (9.0)	10 (14.9)	7 (10.4)	1 (1.5)	67 (100.0)	
	50~59세	11 (12.2)	55 (61.1)	0 (0.0)	4 (4.4)	12 (13.3)	8 (8.9)	90 (100.0)	
	60~69세	11 (19.0)	30 (51.7)	0 (0.0)	0 (0.0)	13 (22.4)	4 (6.9)	58 (100.0)	
	70~79세	23 (28.0)	36 (43.9)	0 (0.0)	0 (0.0)	20 (24.4)	3 (3.7)	82 (100.0)	
	80세이상	17 (42.5)	13 (32.5)	0 (0.0)	0 (0.0)	9 (22.5)	1 (2.5)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업경영과 관련해 의사결정참여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소 관여'(54.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적으로 관여'(38.3%)순으로 나타남(<표 3-62>참조)
- 농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참여정도에 관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30대의 경우 다소관여와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3-62> 여성 농업인의 연령별 농업경영 시 의사결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혀 관여하지 않음	다소 관여	전적으로 관여	계	χ^2
전체		25 (6.8)	202 (54.9)	141 (38.3)	368 (100.0)	40.11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100.0)	
	30~39세	7 (22.6)	21 (67.7)	3 (9.7)	31 (100.0)	
	40~49세	6 (9.0)	40 (59.7)	21 (31.3)	67 (100.0)	
	50~59세	2 (2.2)	60 (66.7)	28 (31.1)	90 (100.0)	
	60~69세	6 (10.3)	27 (46.6)	25 (43.1)	58 (100.0)	
	70~79세	3 (3.7)	36 (43.9)	43 (52.4)	82 (100.0)	
	80세이상	1 (2.5)	18 (45.0)	21 (52.5)	40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4.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

-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를 현재 농업관련 일을 하고 있는지, 겸업일 경우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일 경우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업을 유지 또는 농업관련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수요는 무엇인지로 나누어 살펴봄

가. 일자리유형

- 농촌지역 여성에게 농업관련 일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앞의 <그림 3-2>를 통해 전업농업인이 44.4%, 겸업농업인이 27.9%,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27.7%로 나타남
- 이들 중 겸업 여성 농업인에게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자영업과 일반직장 취업이 각각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근무(19.9%), 해녀(19.1%) 순으로 나타남. 겸업의 직종관련에 대해 지역,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3-63>참조)
-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부와 서부는 일반직장 취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서귀포시 동부는 시간제 근무가, 서귀포시 서부는 자영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는 시간제 근무가 40대는 일반직장, 50대는 자영업, 60대 이상은 해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3> 여성농업인의 지역·연령별 겸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가공 및 가공품 판매	농촌지 역 관광 사업	농업임 금노동	자영업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공공 근로	해녀	계	χ^2
전체		13 (9.2)	1 (0.7)	7 (5.0)	32 (22.7)	32 (22.7)	28 (19.9)	1 (0.7)	27 (19.1)	141 (100.0)	
지역	제주시 동부	3 (7.1)	1 (2.4)	3 (7.1)	5 (11.9)	9 (21.4)	5 (11.9)	0 (0.0)	16 (38.1)	42 (100.0)	36.614*
	제주시 서부	3 (8.6)	0 (0.0)	2 (5.7)	9 (25.7)	10 (28.6)	6 (17.1)	0 (0.0)	5 (14.3)	35 (100.0)	

구분		가공 및 가공품 판매	농촌지 역 관광 사업	농업임 금노동	자영업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공공 근로	해녀	계	χ^2
	서귀포시 동부	7 (21.2)	0 (0.0)	1 (3.0)	7 (21.2)	8 (24.2)	9 (27.3)	0 (0.0)	1 (3.0)	33 (100.0)	
	서귀포시 서부	0 (0.0)	0 (0.0)	1 (3.2)	11 (35.5)	5 (16.1)	8 (25.8)	1 (3.2)	5 (16.1)	31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91.247***
	30~39세	1 (6.7)	1 (6.7)	0 (0.0)	2 (13.3)	4 (26.7)	7 (46.7)	0 (0.0)	0 (0.0)	15 (100.0)	
	40~49세	3 (7.1)	0 (0.0)	0 (0.0)	10 (23.8)	14 (33.3)	13 (31.0)	0 (0.0)	2 (4.8)	42 (100.0)	
	50~59세	6 (12.5)	0 (0.0)	3 (6.3)	16 (33.3)	12 (25.0)	6 (12.5)	0 (0.0)	5 (10.4)	48 (100.0)	
	60~69세	2 (14.3)	0 (0.0)	2 (14.3)	2 (14.3)	1 (7.1)	2 (14.3)	0 (0.0)	5 (35.7)	14 (100.0)	
	70~79세	1 (5.6)	0 (0.0)	1 (5.6)	2 (11.1)	1 (5.6)	0 (0.0)	1 (5.6)	12 (66.7)	18 (100.0)	
	80세이상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3 (75.0)	4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 겸업 여성 농업인에게 겸업을 하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겸업 여성 농업인의 55.7%가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겸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 다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17.9%), 재능(장점)을 활용(12.1%)순으로 나타남
- 겸업이유와 관련해 연령대와 미성년 자녀유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30~50대에서 생활비부족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생활비 부족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64〉 여성 농업인의 연령·미성년 자녀유무별 겸업이유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농사만 으로 생활비 부족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	재능(장 점)을 활용	사회생활 하고 싶어	남편과 시댁의 뜻	생산한 농산물과 농촌지역 자원 활용	기타	계	χ^2
전체	78 (55.7)	25 (17.9)	17 (12.1)	13 (9.3)	1 (0.7)	3 (2.1)	3 (2.1)	140 (100.0)	

구분		농사만 으로 생활비 부족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	재능(장 점)을 활용	사회생활 하고 싶어	남편과 시댁의 뜻	생산한 농산물과 농촌지역 자원 활용	기타	계	χ^2
연령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47.689*
	30~39세	7 (50.0)	2 (14.3)	1 (7.1)	2 (14.3)	0 (0.0)	0 (0.0)	2 (14.3)	14 (100.0)	
	40~49세	29 (69.0)	5 (11.9)	2 (4.8)	6 (14.3)	0 (0.0)	0 (0.0)	0 (0.0)	42 (100.0)	
	50~59세	27 (56.3)	9 (18.8)	5 (10.4)	4 (8.3)	1 (2.1)	2 (4.2)	0 (0.0)	48 (100.0)	
	60~69세	6 (42.9)	4 (28.6)	2 (14.3)	1 (7.1)	0 (0.0)	1 (7.1)	0 (0.0)	14 (100.0)	
	70~79세	7 (38.9)	5 (27.8)	6 (33.3)	0 (0.0)	0 (0.0)	0 (0.0)	0 (0.0)	18 (100.0)	
	80세이상	2 (50.0)	0 (0.0)	1 (25.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미성년 자녀	있음	40 (61.5)	9 (13.8)	3 (4.6)	10 (15.4)	0 (0.0)	1 (1.5)	2 (3.1)	65 (100.0)	13.922*
	없음	38 (50.7)	16 (21.3)	14 (18.7)	3 (4.0)	1 (1.3)	2 (2.7)	1 (1.3)	75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2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 17.0%, 사무직 16.3%, 자영업 12.9% 순으로 나타났음(<표 3-65>참조)
-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20대·50대는 서비스·판매직에, 30대는 자영업과 전업주부, 40대는 사무직, 60대는 자영업, 70대 이상은 전업주부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3-65〉 여성 비농업인의 연령별 직업유형

(단위 : 명, %)

구분		전문 직	사무 직	서비 스·판 매직	생산 직	단순 노무 직	자영 업	전업 주부	학생	일 안함	기타	계	χ^2
전체		10 (7.1)	23 (16.3)	33 (23.4)	1 (0.7)	9 (6.4)	17 (12.1)	24 (17.0)	10 (7.1)	13 (9.2)	1 (0.7)	141 (100.0)	
연령	20~29세	3 (8.1)	4 (10.8)	14 (37.8)	0 (0.0)	0 (0.0)	0 (0.0)	1 (2.7)	10 (27.0)	5 (13.5)	0 (0.0)	37 (100.0)	163.41***

구분	전문 직	사무 직	서비 스·판 매직	생산 직	단순 노무 직	자영 업	전업 주부	학생	일 안함	기타	계	χ^2
30~39세	6 (14.3)	8 (19.0)	8 (19.0)	0 (0.0)	1 (2.4)	9 (21.4)	9 (21.4)	0 (0.0)	1 (2.4)	0 (0.0)	42 (100.0)	
40~49세	0 (0.0)	11 (47.8)	4 (17.4)	1 (4.3)	2 (8.7)	0 (0.0)	4 (17.4)	0 (0.0)	0 (0.0)	1 (4.3)	23 (100.0)	
50~59세	0 (0.0)	0 (0.0)	6 (42.9)	0 (0.0)	2 (14.3)	3 (21.4)	2 (14.3)	0 (0.0)	1 (7.1)	0 (0.0)	14 (100.0)	
60~69세	1 (11.1)	0 (0.0)	1 (11.1)	0 (0.0)	3 (33.3)	4 (44.4)	0 (0.0)	0 (0.0)	0 (0.0)	0 (0.0)	9 (100.0)	
70~79세	0 (0.0)	0 (0.0)	0 (0.0)	0 (0.0)	1 (20.0)	1 (20.0)	3 (60.0)	0 (0.0)	0 (0.0)	0 (0.0)	5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45.5)	0 (0.0)	6 (54.5)	0 (0.0)	1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나. 농업 유지 또는 창업의향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는 농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에게는 농업관련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들의 62.9%는 농업을 계속 또는 신규농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6>참조). 여성 농업인은 78.8%, 여성 비농업인은 21.3%임
- 연령대와 농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0~70대에서 69.0%이상 농업을 계속할 의향 또는 신규 농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인에게서 계속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3-66> 연령·농업여부별 유지 또는 신규 농사 의향

(단위 : 명, %)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	χ^2
전체	320 (62.9)	189 (37.1)	509 (100.0)	
연령				120.77***
20~29세	3 (8.1)	34 (91.9)	37 (100.0)	
30~39세	35 (47.9)	38 (52.1)	73 (100.0)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	χ^2
	40~49세	68 (75.6)	22 (24.4)	90 (100.0)	
	50~59세	85 (81.7)	19 (18.3)	104 (100.0)	
	60~69세	56 (83.6)	11 (16.4)	67 (100.0)	
	70~79세	60 (69.0)	27 (31.0)	87 (100.0)	
	80세이상	13 (25.5)	38 (74.5)	51 (100.0)	
농업여부	농업	290 (78.8)	78 (21.2)	368 (100.0)	144.52***
	비농업	30 (21.3)	111 (78.7)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농업을 계속할 의향 또는 신규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으로는 무리가 38.6%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직업 있어서 21.2%, 여자에게 힘든 일 13.8% 순으로 나타남(<표 3-67>참조)
- 연령대,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때문에 농사를 계속 또는 신규로 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음. 농업여부별로는 농업에서 건강에 무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활동을 위해서는 60대 이상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67> 연령 · 농업여부별 유지 또는 신규 농사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경제적 이익 될 것 같지 않아	여자에게 힘든 일	건강으로는 무리	가족을 돌보아야	농사일 농기계 사용법 몰라서	현재 직업 있어서	농사가 싫어서	기타	계	χ^2
전체		18 (9.5)	26 (13.8)	73 (38.6)	5 (2.6)	6 (3.2)	40 (21.2)	17 (9.0)	4 (2.1)	189 (100.0)	
연령	20~29세	4 (11.8)	7 (20.6)	0 (0.0)	0 (0.0)	1 (2.9)	14 (41.2)	8 (23.5)	0 (0.0)	34 (100.0)	206.43***
	30~39세	2 (5.3)	5 (13.2)	1 (2.6)	5 (13.2)	3 (7.9)	17 (44.7)	4 (10.5)	1 (2.6)	38 (100.0)	
	40~49세	4 (18.2)	6 (27.3)	1 (4.5)	0 (0.0)	1 (4.5)	7 (31.8)	3 (13.6)	0 (0.0)	22 (100.0)	

구분		경제적 이익 될 것 같지 않아	여자에 게 힘든 일	건강으 로는 무리	가족을 돌보야	농사일 농기계 사용법 몰라서	현재 직업 있어서	농사가 싫어서	기타	계	χ^2
	50~59세	7 (36.8)	3 (15.8)	4 (21.1)	0 (0.0)	0 (0.0)	1 (5.3)	2 (10.5)	2 (10.5)	19 (100.0)	
	60~69세	1 (9.1)	3 (27.3)	5 (45.5)	0 (0.0)	1 (9.1)	1 (9.1)	0 (0.0)	0 (0.0)	11 (100.0)	
	70~79세	0 (0.0)	2 (7.4)	24 (88.9)	0 (0.0)	0 (0.0)	0 (0.0)	0 (0.0)	1 (3.7)	27 (100.0)	
	80세이상	0 (0.0)	0 (0.0)	38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38 (100.0)	
농업여부	농업	7 (9.0)	8 (10.3)	52 (66.7)	1 (1.3)	0 (0.0)	4 (5.1)	3 (3.8)	3 (3.8)	78 (100.0)	53.381***
	비농업	11 (9.9)	18 (16.2)	21 (18.9)	4 (3.6)	6 (5.4)	36 (32.4)	14 (12.6)	1 (0.9)	11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또한, 농촌지역 여성에게 향후 농업관련 다른 분야로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없다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과 농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에서는 30~40대에서 창업의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20대도 10.8%가 창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여부로는 여성 비농업인이 창업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68>참조)

○ 젊은여성층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창업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68> 연령 · 농업여부별 향후 농업관련 다른 분야 창업 의사

(단위 : 명, %)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	χ^2
전체		100 (19.6)	409 (80.4)	509 (100.0)	87.237***
연령	20~29세	4 (10.8)	33 (89.2)	37 (100.0)	
	30~39세	21 (28.8)	52 (71.2)	73 (100.0)	
	40~49세	41 (45.6)	49 (54.4)	90 (100.0)	
	50~59세	29 (27.9)	75 (72.1)	104 (100.0)	
	60~69세	3 (4.5)	64 (95.5)	67 (100.0)	
	70~79세	2 (2.3)	85 (97.7)	87 (100.0)	
	80세이상	0 (0.0)	51 (100.0)	51 (100.0)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	χ^2
농업여부	농업	71 (19.3)	297 (80.7)	368 (100.0)	0.105
	비농업	29 (20.6)	112 (79.4)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 창업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여성에 농업관련 희망하는 분야를 물어 본 결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 사업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농가민박·펜션 24.0%, 농촌 지역 체험·교육농장 18.0%, 농산물 가공 10.0% 순으로 나타남(<표 3-69>참조)
-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0~60대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 사업이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농업여부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3-69> 연령·농업여부별 농업관련 창업 희망 분야

(단위 : 명, %)

구분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 사업	농촌지역 체험·교 육농장	농가민박 ·펜션	농촌지역 관광사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기타	계	χ^2
전체		10 (10.0)	39 (39.0)	18 (18.0)	24 (24.0)	7 (7.0)	1 (1.0)	1 (1.0)	100 (100.0)	
연령	20~29세	0 (0.0)	0 (0.0)	3 (75.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51.486**
	30~39세	1 (4.8)	7 (33.3)	4 (19.0)	7 (33.3)	2 (9.5)	0 (0.0)	0 (0.0)	21 (100.0)	
	40~49세	6 (14.6)	20 (48.8)	6 (14.6)	6 (14.6)	2 (4.9)	1 (2.4)	0 (0.0)	41 (100.0)	
	50~59세	3 (10.3)	10 (34.5)	4 (13.8)	9 (31.0)	3 (10.3)	0 (0.0)	0 (0.0)	29 (100.0)	
	60~69세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3 (100.0)	
	70~79세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8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농업여부	농업	5 (7.0)	31 (43.7)	10 (14.1)	18 (25.4)	6 (8.5)	1 (1.4)	0 (0.0)	71 (100.0)	9.371
	비농업	5 (17.2)	8 (27.6)	8 (27.6)	6 (20.7)	1 (3.4)	0 (0.0)	1 (3.4)	29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다.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육구

-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육구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봄

1)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질문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이 32.4%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문화·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확대 사업 13.8%,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 13.0%, 농촌지역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12.8%, 여성농업 경영인 육성 및 여성영농후계자 양성사업 12.4%순으로 나타남
- 연령과 농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에 대한 비율이 높았음
- 농업여부에 따라서는 비농업에서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에 대한 비율이 높았음

〈표 3-70〉 연령·농업여부별 농촌지역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단위 : 명, %)

구분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지역 만들기 사업	여성들이 지역의 정책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를 개정	소득활동 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	여성농업 경영인 육성 및 여성영농 후계자 양성사업	문화·여 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확 대 사업	농촌지역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계	χ^2
전체		43 (8.4)	37 (7.3)	165 (32.4)	66 (13.0)	63 (12.4)	70 (13.8)	65 (12.8)	509 (100.0)	
연령	20~29세	3 (8.1)	0 (0.0)	13 (35.1)	5 (13.5)	3 (8.1)	10 (27.0)	3 (8.1)	37 (100.0)	116.60***
	30~39세	3 (4.1)	9 (12.3)	17 (23.3)	22 (30.1)	1 (1.4)	20 (27.4)	1 (1.4)	73 (100.0)	
	40~49세	8 (8.9)	10 (11.1)	25 (27.8)	20 (22.2)	7 (7.8)	12 (13.3)	8 (8.9)	90 (100.0)	

구분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지역 만들기 사업	여성들이 지역의 정책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를 개정	소득활동 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	여성농업 경영인 육성 및 여성영농 후계자 양성사업	문화여 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확 대 사업	농촌지역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계	χ^2
	50~59세	10 (9.6)	9 (8.7)	37 (35.6)	4 (3.8)	21 (20.2)	12 (11.5)	11 (10.6)	104 (100.0)	
	60~69세	7 (10.4)	4 (6.0)	21 (31.3)	7 (10.4)	10 (14.9)	9 (13.4)	9 (13.4)	67 (100.0)	
	70~79세	5 (5.7)	5 (5.7)	33 (37.9)	6 (6.9)	13 (14.9)	4 (4.6)	21 (24.1)	87 (100.0)	
	80세이상	7 (13.7)	0 (0.0)	19 (37.3)	2 (3.9)	8 (15.7)	3 (5.9)	12 (23.5)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3 (9.0)	29 (7.9)	119 (32.3)	40 (10.9)	53 (14.4)	40 (10.9)	54 (14.7)	368 (100.0)	21.815***
	비농업	10 (7.1)	8 (5.7)	46 (32.6)	26 (18.4)	10 (7.1)	30 (21.3)	11 (7.8)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농촌지역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이 29.5%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17.5%, 가사와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 13.2%, 취업·창업관련 교육지원 12.4%, 창업 후 판로 개척 지원 10.0% 순임(<표 3-71>참조)
- 연령과 농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는 ‘가사와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을 40~50대는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을 60대 이상은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에 높게 응답함. 농촌지역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여부별로는 여성 농업인들은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33.7%)을 원했지만 여성 비농업인들은 ‘가사와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22.7%)을 가장 많이 원함. 농업 여부별로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3-71〉 연령·농업여부별 농촌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소득증대위한 사업

(단위 : 명, %)

구분		취업·창업 관련 교육지원	창업관련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	창업 후 판로개척 지원	농촌지역 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해결 위한 인력지원	가사와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	연령, 귀농, 결혼이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발굴	계	χ^2
전체		63 (12.4)	43 (8.4)	51 (10.0)	89 (17.5)	150 (29.5)	67 (13.2)	46 (9.0)	509 (100.0)	
연령	20~29세	8 (21.6)	5 (13.5)	1 (2.7)	2 (5.4)	3 (8.1)	14 (37.8)	4 (10.8)	37 (100.0)	125.40***
	30~39세	9 (12.3)	5 (6.8)	5 (6.8)	9 (12.3)	9 (12.3)	24 (32.9)	12 (16.4)	73 (100.0)	
	40~49세	14 (15.6)	9 (10.0)	13 (14.4)	19 (21.1)	18 (20.0)	10 (11.1)	7 (7.8)	90 (100.0)	
	50~59세	14 (13.5)	11 (10.6)	11 (10.6)	29 (27.9)	29 (27.9)	4 (3.8)	6 (5.8)	104 (100.0)	
	60~69세	5 (7.5)	5 (7.5)	8 (11.9)	15 (22.4)	26 (38.8)	3 (4.5)	5 (7.5)	67 (100.0)	
	70~79세	8 (9.2)	6 (6.9)	11 (12.6)	6 (6.9)	40 (46.0)	9 (10.3)	7 (8.0)	87 (100.0)	
	80세이상	5 (9.8)	2 (3.9)	2 (3.9)	9 (17.6)	25 (49.0)	3 (5.9)	5 (9.8)	51 (100.0)	
농업여부	농업	36 (9.8)	27 (7.3)	40 (10.9)	75 (20.4)	124 (33.7)	35 (9.5)	31 (8.4)	368 (100.0)	38.558***
	비농업	27 (19.1)	16 (11.3)	11 (7.8)	14 (9.9)	26 (18.4)	32 (22.7)	15 (10.6)	141 (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5. 소결

-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농촌지역 여성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실태와 여성 농업인이 경험하는 영농실태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로 나누어 분석함. 509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촌지역 여성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실태를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활동, 경제적 상황, 거주환경, 농촌지역 및 농업관련 정책욕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개인생활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들의 현재 건강상태는 좋음이 39.6%, 보

통이 35.2%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74.8%),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울증의 경우 다른 혼인상태·다른 가구보다 이혼·별거중인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또한 농촌지역 여성들은 여가 및 문화생활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시간의 경우 1주일 평균 8.8시간으로 하루 1.3시간정도 있으며 지난 1년간 문화관람 횟수도 1년에 평균 1.5회로 나타남.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52.8%),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없어서'(26.5%) 등 농촌지역에서는 일이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유시간이 있어도 집 근처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 근처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지난 3년간 농촌지역 여성들 중 교육을 받은 경우는 34.8%였으며 20대를 제외한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훈련에 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은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40.3%), 언제·어디서·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름(18.3%), 교육 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10.6%)였으며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집 근처에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농촌지역 여성들이 희망하는 교육은 건강·운동(27.9%)관련 프로그램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여성은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20.8%)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두 번째, 가정생활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본인 '1시간~2시간' 47.9%, 배우자의 경우 '하지 않음'이 31.0%로 가장 많음.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의 16.3%가 돌봐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1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40대는 미취학 아동이, 50대 이상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반영하듯 농촌지역 여성들은 가족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일·가정의 병행 어려움이 30.6%로 가장 많았고 본인과 가족의 질병 및 장애 23.2%, 경제적 어려움 19.3%, 자녀교육 13.2%순으로 나타남. 특히 농업여부별로 여성 농업인의 35.6%가 '일·가정의 병행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 비농업인의 24.8%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녀와 가장 많은 대화(71.3%)를 하며 손자녀와는 대화(16.1%)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후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세 번째, 지역사회활동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의 58.7%가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농업인(69.0%)이 여성 비농업인(31.9%)보다 지역모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여성 비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됨
- 네 번째, 경제적 상황의 경우 여성 농업인의 1년 전체 농가소득은 2,000~3,000만원이 18.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청 인구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14년 농가소득 평균 3,495만원보다 적음. 여성 비농업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음. 이는 통계청 인구가구조사에서 나타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1인가구 이상) 427만원보다 약 1.4배 낮은 것임. 농촌지역 여성의 가구소득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다섯 번째, 거주환경의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요인으로는 여가·문화시설부족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의료시설부족 23.4%, 대중교통불편 13.8% 순으로 나타남
- 또한, 13.6%가 현주거지에서 이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사의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이사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젊은층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촌지역 여성이 마을의 범죄·사고로부터 경험하는 위험은 '위험없음'(55.7%)을 제외하고 교통사고 15.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성폭력 10.7% 순으로 나타남. 아동의 경우는 교통사고 34.3%, 성폭력 4.8%순으로 나타남. 노인의 경우는 교통사고 26.3%, 농기계사고 12.0%순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여성·아동·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 안전한 농기계개발 및 사용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육구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확대에 대한 욕구가 91.3%로 가장 많았음.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검진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농촌지역 여성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가족의 이해'(31.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촌지역의 고령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28.5%로 가장 필요하다고 봄. 농촌지역의 후계여성농민을 위해서는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해결'이 35.0%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젊은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위해서도 먼저 '영·유아보육시설·교육기관·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이 48.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실태를 영농실태,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 영농실태의 경우 농업종사경력을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은 주로 결혼과 함께 시작됨(28.9년). 여성 농업인의 27.9%가 겸업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55.7%가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겸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여성 농업인의 농사규모는 시설의 경우 '없음'이 7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00평 미만(9.8%)으로 나타남. 반면 노지의 경우는 1,000~ 2,000평 미만이 24.5%로 가장 많았음.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시설농사보다는 노지농사를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사일 분담정도는 여성 농업인은 절반정도분담(38.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거의 전부'(22.5%)로 나타남. 1일 평균 농사시간도 7-10시간이 38.9%로 가장 많았음
- 농기계사용의 경우 지역별로 제주시 동부는 소형 트랙터, 제주시 서부는 소형동력농약 분무기, 서귀포시 동부는 소형 파쇄기, 서귀포시 서부는 소형동력농약 분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는 소형 트랙터, 40대 이상은 소형동력농약 분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지역과 특정 연령대에서는 특정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됨
- 의사결정의 경우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여성 농업인은 54.9%로 나타났으며 농가경영주는 남편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인 32.6%순으로 나타남. 농업경영과 관련해 의사결정참여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소 관여'(54.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적으로 관여'(38.3%)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의 농사경력은 길며 주로 노지 농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이들의 농사시간과 농사분담 또한, 장시간·반반 또는 거의전부이지만, 소득부족으로 겸업을 하기도 함. 여성 농업인의 영농은 제주농업이나 개별농가경제에 반반 또는 거의전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참여시 의사결정정도는 다소관여 또는 전적 관여로 나타남. 제주지역 농업사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적합한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함

○ 셋째,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를 일자리 유형, 농업을 계속 또는 농업관련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농촌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욕구는 무엇인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유형의 경우, 조사결과 농업인이 226명(44.4%), 겸업농업인이 142명(27.9%),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141명(27.7%)으로 나타남. 겸업 여성 농업인은 자영업과 일반직장 취업이 각각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근무(19.9%), 해녀(19.1%) 순으로 나타남. 비농업인의 직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2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 17.0%, 사무직 16.3%, 자영업 12.9%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의 62.9%는 농업유지 또는 신규농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성 농업인은 78.8%, 여성 비농업인은 21.3%로 나타남. 창업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여성에 농업관련 희망하는 분야를 물어 본 결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 사업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농가민박·펜션 24.0%, 농촌지역 체험·교육농장 18.0%, 농산물 가공 10.0%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은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업’이(32.4%)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이 29.5%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17.5%, 가사와 육아·돌봄에 대한 지원 13.2%, 취업·창업관련 교육지원 12.4%, 창업 후 판로개척 지원 10.0% 순임
-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농업여부별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원화해야함.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할 인력지원과 농산물 가공식

품 판매 및 유통 사업, 농가민박·펜션, 농촌지역 체험·교육농장, 농산물 가공 등 창업관련 교육과 판로개척지원이 필요하며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 취업·창업관련 교육지원과 가사와 육아·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농업을 원하는 여성 비농업인을 발굴·양성해 후계영농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농촌 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계획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교육할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심층면접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소결

1. 심층면접 조사개요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기간

-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어려움, 경제활동의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욕구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했음
- 심층면접대상자는 총 25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여성 농업인 19명과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6명의 성인 여성 비농업인으로 이들의 일반적 인 특징은 <표 4-1>과 같음.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은 ‘사례번호’³⁾로 표시했음
 - 심층면접대상자는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1차로 추천을 받아 2~3명의 면접대상자를 면접했으며, 이들에게 다시 다른 면접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sampling(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여성 농업인 19명을 선정했음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비농업인은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이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에 응할 시 면접을 실시했으며 이들에게서 다른 면접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sampling(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여성 비농업인 6명을 선정했음
- 심층면접은 주로 면접 대상자의 자택에서 이루어 졌으며 부득이할 경우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농작업을 하는 밭 근처, 비닐하우스, 또는 조합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여성 비농업인의 경우는 자동차 안, 커피숍에서 면접을 실시했음. 조사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약 두 달여 기간 임

<표 4-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	지역	직업	연령	거주기간	비고
사례1	제주시서부	농업(전업)	47세	18년	
사례2	제주시서부	농업(겸업)	50세	17년	
사례3	제주시서부	농업(6차산업)	39세	10년	
사례4	제주시서부	방문교사	44세	6년	

3) 심층면접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사례1’로 표시함. 연구윤리에 의해 심층면접대상자의 신상과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받아야하며 제주지역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자세한 표기는 면접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주기때문임

대상자	지역	직업	연령	거주기간	비고
사례5	제주시서부	자영업	53세	25년	
사례6	서귀포시서부	농업(전업)	56세	55년	
사례7	서귀포시서부	농업(겸업)	55세	50년	
사례8	제주시서부	농업(겸업)	56세	25년	
사례9	제주시서부	농업(전업)	61세	62년	
사례10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58세	36년	
사례11	서귀포시동부	수산물중개업	49세	25년	
사례12	서귀포시서부	농업(6차산업)	56세	15년	
사례13	서귀포시서부	농업(전업)	60세	33년	
사례14	제주시서부	농업(축산)	54세	23년	
사례15	제주시서부	자영업	57세	30년	
사례16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48세	10년	
사례17	제주시동부	농업(협동조합)	70세	7년	
사례18	제주시동부	농업(전업)	56세	7년	
사례19	서귀포시동부	농업(어업)	60세	25년	
사례20	서귀포시동부	사무직	36세	30년	
사례21	서귀포시동부	사무직	36세	10년	
사례22	서귀포시동부	농업(전업)	50세	21년	
사례23	서귀포시동부	농업(겸업)	36세	10년	
사례24	제주시 동부	농업(전업)	54세	54년	
사례25	제주시 동부	농업(겸업)	57세	30년	

나. 면접내용

-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표 4-2>와 같음

<표 4-2> 심층면접 질문내용

면접영역	질문내용
일반사항	농촌지역에 살게 된 이유,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
경제활동	현재 직업을 갖게 된 이유, 농업종사의 어려움, 구인/구직의 어려움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인가?/취업과 창업욕구가 있나?/저해요소
가정생활	가족생활의 어려움(자녀, 남편, 부모 등)
사회참여경험	지역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의 어려움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정책
건강	농사로 인한 질병경험과 농약으로 인한 질병 경험, 스트레스 해결방식
지원정책경험	이용한 정책/ 정책의견/ 희망하는 지원정책
정책욕구	여성들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점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거주/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점 농촌지역 여성관련 전담공무원의 필요성과 행정개선사항

2. 분석결과

-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욕구로 나누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공통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농촌지역 일자리문제는 무엇이며 농촌지역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욕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음

가.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 심층면접 결과 농촌지역 여성들은 문화시설미비와 여가생활의 어려움, 세대간·마을 구성원간 소통부족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 농촌지역의 가부장제 문화, 자녀교육환경의 미비,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여가생활의 어려움

-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생활의 어려움은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시설이 없다는 점 외에도 제주도 농업의 특징과 제주도 여성들의 일하는 문화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사례11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들은 도시여성처럼 문화센터가 없어 문화강좌와 여성강좌를 들을 권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끔씩 진행되는 문화교육에 간헐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문화교육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례8은 목욕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없어 저녁에 휴식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

시내 같이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거 같아요...여성 문화강좌 같은 거 라든지, 문화센터 있잖아예?...여성강좌 같은 거 들을 수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여성강좌를 들으려고 하면은 △△시로 가야되예. 그리고 이런 촌에서 가끔씩 가다가 교육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어쩌다 한 번 들어버리니까 그런 게 흥미가 없던 거라예(사례11)

우리 마을에서.. 글썄 우리 마을은 너무..이런 문화혜택을 많이 못받아요. 목욕탕 같은것도 없고...그런게 좀 있었으면.. 찜질방 이런.. 목욕탕.. 이런것이 저녁에 와가지고 좀 그렇게...그런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사례8)

- 또한, 이러한 여가와 문화관련 시설미비 외에도 사례3은 제주도가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면서 여성농민들이 타 시·도와 달리 농한기 없이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사례9도 과거와는 달리 농한기였던 겨울에도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없다고 함. 또한 사례5는 농촌지역의 문화가 노인이 되어도 쉬기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로 젊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이 있어도 마을 어른들의 눈치 때문에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면 부녀회 프로그램속에 그게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그 제주도가 사계절내내 농사를 지어요. 육지는 △△도 같은 경우 딱 5개월 일하고 쉬자나요. 농사가 안되니까. 저희는 사계절 내내 일을 한대구요. 왜?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딸기를 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예요. 사계절 내내 일한다는건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그런 저기도 있죠(사례3)

옛날에는 보리, 콩만 했어. 이제는 부업해서 이렇게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그런 거 돈 되는 거 해주만은, 옛날에는 보리, 콩 그것만 2개 하면은 겨울 내내 놀았어. 이젠 겨울도 못 놀아(사례9)

노인들도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밭에 가요. 쉬는 분이 없어요. 걷지 못할 때만, 아팠을 때만 밭에 안가요. 아플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해요(사례5)

- 문제는 사례16처럼 농촌지역 여성의 여가생활이 남성과 달리 여성들에게는 쉽지는 지속적 노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임

그러니까 굴 농사 끝나면 여자, 할머니들은 밭에 일 나가서 하루 일당 5만원 벌고 오는데 남자 분들은 그 굴 판 돈으로 주머니에 넣고 와서 술 먹더라(사례16)

2) 세대간 · 마을구성원간 소통 부족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

- 심층면접대상자들은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으로 세대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3은 30대에 농촌지역에 들어와 현재 40대가 된 여성 농업인으로서 나이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문화공간이 없어 소통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사례3은 농촌지역의 경우 나이드신 분은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고 젊은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지식을 서로 고집함으로 인해 소통단절로 농촌지역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부녀회가 65세까진데 제가 40이에요. 들어온지 10년됐어요. 30살에 부녀회에 가입해서 하는걸 보니 나이드신분들은 자신들이 너무 어릴때부터 고생을 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너희들은 이제야 들어와서 뭘 알겠느냐~ 이런 식이죠. 나이드신분들하고 젊은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 이런 소통개선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대간에...그분들 말도 틀린말도 아니나 우리가 사는 지금시대하고 바뀌긴 많이 바뀌었으나 농촌지역에 삶은 그대로다. 그러면 그분들 하는 말도 이해도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한번씩은 애길 해줘야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 삼촌 그거는 아닌거 담수다. 딱 잘라 말했지만 내가 농사를 더 많이 짓고 계속 살다 보니까 아 삼촌말은 틀린말은 아니나 지금은 세대가 바뀌니 이런건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걸리면서 소통을 하는게 그런데 그런 소통관계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한다는거죠. 어디에서나면 문화공간에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바위에 돌부리 박히듯이 저희가 그렇게 박히면서 살면서 해쳐나가면서 십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이렇게 알기에는 너무도 힘들다는 거(사례3)

- 사례7은 마을구성원간 소통의 어려움을 여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이러한 상처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어려운 점이 뭐인가요?) 어려운 점이...아줌마들이 너무 입이 썩어요. 그거를 감당...그거를 지혜롭게 감당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구요. 회원들이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하려면 내 자신에 내공도 많이 쌓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7)

- 또한, 사례1은 마을구성원간 소통부족원인을 경쟁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젊은 세대에서 서로 경쟁자라는 인식 때문에 농촌지역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서로 알려주지도 않아 그 결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음. 정보공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함께 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을 나만 몰라 농사를 망치는 꼴이 되었다고 토로함

요즘 젊은 사람들...우리는 넌름 알면 “야, 이런 것도 있다 더라” 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뺏기는 느낌이 드는지 얘기를 잘 해주려고 안 해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살고계신 분들이?) 왜냐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역에서도. 무슨 교육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거 많이 느껴요, 저희도. 그런거 때문에 그니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아,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한 번 손잡고 가는 거 하고, 혼자 가려면 특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선뜻, “나 이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구해?” 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런거 있으니깐 우리 같이 교육 받아가지고 후계자 돼서 밭을 하나 사서 농사를 지어보자.” 이랬으면 좋은데 밭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하나도 없고, 다 남의 밭을 빌려서 하니깐 밭삿 내야죠. 그해 농사 망치면 우리가 우리 돈 끌어 박아서 다시 시작해야죠(사례1)

-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농촌지역 여성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3) 농촌지역의 가부장제 문화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음. 사례14의 경우 도시에서 친정집으로 들어와 친정동네에서 20년 넘게 농업을 한 경우이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친정동네에서 부녀회 회원이 되지못했으며 이런 경우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반면, 며느리는 어느 마을에서든 부녀회원이 될 수 있었음

여기가 친정동네라 말들이 많아요. 재네는 도시에 있다가 망해서 여기들어왔다던지. 저는 부녀회 회원도 아니예요(지역에 살면 부녀회 회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마을마다 다른데 우리 마을은 며느리는 되는데, 딸은 부녀회원이 안되요(사례14)

- 더불어 부녀회 활동은 여성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어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인 가사와 돌봄을 공적영역에서도 부녀회활동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 결과 나타남(사례11). 사례6은 이런 부녀회 활동이 평등하지 않으며 그 원인을 교육 부재로 보고 있음

가서 직접 김치봉사, 청소봉사 그런 거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땐 해야지...부녀회에서는 이런 마을 행사 있을 때 가서 무조건 음식봉사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승차대 청소, 노인 회관 같은 데 가서 한 달에 한번 음식, 점심밥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밥하고, 또 청소 같은 거 하고 독거노인들 같은데 있잖아요. 밀반찬 배달이나(사례11)

저는 사실 부녀회 이걸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너무 이거 평등하지 않은 거라, 너무. 이걸 정말 개선되어야 할 거예요....교육센터 하나 생기면 그런 여성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서, 정말 마을 협의회 아니면...하여튼 마을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사례6)

4) 자녀교육환경 미비

- 심층면접결과 농촌지역에 자녀교육환경의 미비로 인한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녀성장 후 다시 '귀농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11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농촌지역 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아예 이사를 가거나 또는 자녀대학입학 후 다시 농촌지역 으로 돌아오는 제주 출신들이 많다고 언급함

(교육여건 때문에...여기 살고 계시다가?) 많이 나가죠. 실제로 많이 나가요. 여기 있다가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서 하고 중학교 때 부터는 많이 나가요...주거지도 옮기죠...저도 아이들 하나 있을 땐...제가 갈 수 있는 입장이 못돼가지고 개네는 하숙을 해가지고 보냈죠. 그런데 다른 사람네는 그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한 명, 두 명 있을 경우는 아예 이사를 가버려요....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커버리면은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서 할 게 없어요. 시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애들 뒷바라지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에 살려고 가는 사람은 소수인원, 몇 명이 안돼요. 애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은 대학교 때는 자기네가 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또 돌아와서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사례11)

-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농촌지역을 떠나는 '이농현상'에 대해 사례5는 청소년들의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통학시간이 너무 길며 사례1처럼 애들에게 학교도 멀지만 집 근처 학원도 없고 과외도 받을 수 없어 시내학생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쳐 결국은 애들이 있는 가정은 농촌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봄. 문제는 사례5와 사례1처럼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가정이 자녀교육을 위해 떠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임

청소년들이 좀 힘든게, 뭐 차량이 많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니까, 애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왜 도시로 나오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통학 시간이 너무 낭비돼. 지금 저희 애들이 △△대학 다

니는데, △△대학까지 1시간 20분이에요. □□에서. 그래서 자취를 해야 돼. 그니깐 1시간 20분, 서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주에서는 엄청 먼 거리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살다가, 애들이 끝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야 농촌지역으로 가는 거라. 그니깐 고령화 되어버리고(사례5)

이제 애들 학교가 머니까...애들 학교를 태워다 주고 와야 되고, 밭에 일도 봐야 되고, 부모님들 식사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또 이 학교가 먼 것도 있지만 학원도 저기 △△나 이런 쪽 넘어가면 여기까지 안 와줘요...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도 잘 오지도 않고 과외선생님 조차도 촌이니깐 잘 안 오려고 그러더라구요...교과서 자체가 틀려서 시내권에서 공부하는 거 하고 촌에서 공부하는 게 틀리대요. 쉽게 나온대, 촌에 깨. 그래서 여기 시외권에 애들이 시내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수업을.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점점 더 촌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되고,...여기 또 다 나가니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아이 있는 집에 복지도 안 돼 있고 하니깐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구요. 나갔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사례1)

- 이처럼 등·하교 교통편의 불편함과 더불어 학원시설의 부족 특히, 예체능관련 학원 부족으로 사례20은 직장 때문에 농촌지역에 살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쯤 본인이 농촌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시내로 이사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유아 관련된 학원이 없고요. 학습지도 원래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1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촌 지역으로 안 오려고 하니깐,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뀐 적도 있다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제주시로 이사 갈 거예요....미술학원부터...체육활동도 없고. 키즈카페도 없고(사례20)

5) 사회활동의 어려움

- 농촌지역 여성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 특히,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함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게 됨. 사례15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어려움은 남편의 허락과 다른 여성들의 시샘이라고 설명하기도 함. 사례3도 특히, 같은 여성끼리 위로와 덕담이 아닌 시기 질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여성들의 시기 질투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서 풀 수가 없어 여성들이 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부정적 결과라고 보고 있음

(여성들이 나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활동할 수 있을 때 활동하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집에서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 (남편이?) 예. 남편이 허락해줘야 되는 일이고 또 여성들이 너무 나서서 하면은 옆에서 좀 여성끼리 시샘하는 거 있잖아요(사례15)

만약에 젊은 사람 들어왔자나요. 내가 좀 잘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같은 여성으로서 위로해주고 덕담이나 그런게 필요할텐데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문화적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속에서 도출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풀데가 없으니까 그런게 많이 있어서 말은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가면 말이 많아서 못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부분이(사례3)

- 사례16은 심지어 모임이나 동창회 참여할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부녀회 활동과 남편이 밤늦게 하는 모임을 싫어한다고 말함.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의 모임 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교육활동이 주로 저녁이후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의 허락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모임에 나가려고 하면 애기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며칠 전부터...그러니까 막 억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애기를 하고 나가면 편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부녀회 활동하거나 이렇게 활동 하는 거를 제일 싫어라 해요... 모임에 밤늦게 나가는 거를 또 싫어라하고 동창회 나가는 것도 싫어라하고.(사례16)

나.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은 사계절 밤낮으로 일하지만 빛을 갇으면 또 빛을 내며, 농사인력을 구하는 어려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과중노동, 농사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사계절 밤낮으로 일함

- 여성 농업인의 하루일과는 아침부터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출근시키며 남편과 함께 농업활동을 하며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해 먹는다.

그리고 사례19처럼 남편이 아프면 남편이 했던 농사일까지 하며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잠시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일상의 반복임. 특히 제주도의 농업은 노지 밀감에서 하우스 밀감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밀감가격이 하락하면서 단일작물을 통한 영농활동이 복합영농으로 바뀌면서 사계절 밤낮으로 비오는 날도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여성 농업인의 농가살림은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임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어쨌든 간에 아버님 밥 해드리고, 아들 며느리 출근 시키고, 남편 했던 일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복합 영농을 하거든요. 하우스도 조금 하고. 노지밀감도 조금 하고. 더덕도 조금 같고 하니깐, 그런 저런 사소한 일들이 많습시다. 어디 회의 보러나 바깥에 안 나가는 일은 무조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 작업복입고....밤에는 6시 정도 되면 들어가야죠. 그래야 저녁도 해서 먹어야 되고.(사례10)

2) 경제적 어려움

- 이외에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사례10의 경우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리로 빚을 내고 밀감 철 이후 빚을 갚고 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빚을 내는 방식으로 농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저리자금 같은 거 썼다가 밀감 철에 이때만 수입이 나잖아요? 그때 수확한 돈으로 물었다가 다시 빌려서 쓰고, 그런 일정이에요. 농촌지역 이 다 그래요. 워낙 있는 사람들은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 썼다가 연말 되면 그걸 대치 시켜놔다가 또 쓰고 그렇게 하죠(사례10)

- 또한, 사례8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높은 인건비, 비료, 농약값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함. 그래서 사례8은 여성농민들은 농사로 생활을 할 수 없어 겸업을 한다고 봄. 사례10도 농약값과 비료값의 안정화가 여성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음

농사는 짓다 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리고 농사 지었다고 다 돈버는게 아니고. 거의 어떤때는 수입이 없을때도 있어요. 네.. 이게 올해도 막 피해를 많이 봤잖

아요...근데 수입이 일정치 않고 농사 지어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거 때문이죠. 머...여자들이 다른 일 좀 겸하면서 농사일.. 농사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런거..인건비도 비싸고 비료값이랑 농약들이 엄청 비싸자나요. 그래서 타산디 잘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간혹가서 다른거는 좀 하긴 해요.(사례8)

(여성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세요?)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나 도에서 바라보는 거는 농약값, 비료값 그런 거는 안정되게 그런 거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료값도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지 좀 말고(사례10)

- 사례7은 혼자하는 소농은 수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가공한 두부를 직거래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입이 콩을 판 것보다는 수입이 더 낮다고 말함

혼자 하다 보니까 트랙터 비 줘야지, 뭐 이거하는 거 줘야지 저거주고 이거주고 하다보면 말로만 농사지었지 뭐 별로 수익 상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거를 이제 팔기에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네 □발 ○○ 공동체, ◇◇◇ 생산자들하고 소비자와 직거래 장터,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조금 뭐를 되고 콩농사를 제가...콩하고 보리하고를 좀 하거든요, 토종으로. 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에 넣어서 보내면 가공을 하니깐 그래도 콩으로 판 것 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입이 더 낮고(사례7)

- 문제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러한 판로를 개척해도 수입을 올릴 수 없는 문제도 있었음. 사례15의 경우 3년 전부터 택배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지만 인건비와 유기농 약들로 수입이 1/3도 안 나오며 농사가 부업이 아닌 주업이었다면 돈이 적어 농사를 짓지 못 했을 거라고 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택배로. 판로 개척을 했는데 그게 힘들어요.(어떤 점이 힘들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지을 줄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서 하잖아요. 인건비 제끼고 유기농 약들을 해서 하면 수입이 1/3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걸로만 해서 사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업으로가 아니고 그냥 취미 겸 일거리 조금씩 하면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아서 따지지 않으니까 할 수 있었지 돈으로 따지면은 아예 못할 거예요(사례15)

○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

○ 또한, 여성 농업인에게 농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며 사례13은 특히, 농약을 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힘들지만 농사를 못해서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함. 따라서 농기계를 활용한 농업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의 농기계는 여성에게 너무 크며 너무 길며 너무 소리가 커서 무서울 정도로 여성에게 적합한 기계가 아니라 쉬는 날 남편에게 부탁해야할 정도로 남성용 기계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여자로써 어려운 거는 남편이 직장 가버리니까 뭐 무거운 거 들 때? 아니면 농약 칠 때? 대부분 힘든 일 할 때 그렇죠....일을 못해서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힘든 일 할 때. 그때는 힘들고 나머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했어요....그냥 트랙터 큰 거는 3번은 빌려서 써봤어요... 그거는 콩을 갈기 위해서 한번 빌려 써봤는데 여자들이 하기에 안 되고, 그건 너무 길이가 크고 하는 것도 무서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쉬는 날 그걸 해줘(사례13)

4) 농번기 인력난

○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 농업의 어려운 점으로 농번기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의 경우 남자일손을 구하는 어려움이 발견됨. 사례7의 경우 농사의 경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적기에 생산물을 수확하기 어려워 농사수확량이 적으며 따라서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력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농촌지역 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를 고려할 때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을 위한 인력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여자인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농사를 짓다보니깐 남자들이 해줘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밭갈이라든지, 밀감나무 과수원 조금 이제 올해부터...이제까지도 우리 적시 있었는데 내가 하기가 버거워서 남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사람이 안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 너무 전정이라든지, 남자가 해줬으면 좋을 일, 밭갈이 같은 거, 그런 거. 남자 일손이 필요한데 제때 그게 안되잖아요. 자기네 일들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해준다는 거 아니면 그것도 신경 써서 막 의무적으로 해줄려고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이 혼자 농사지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농사라는 거는 거의 동시에 파종을 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 다 한 후에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찍 하든지 그 사이에 해야 해서 그렇게 하면 농사 수확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적기에 하는 것 보단.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저처럼 혼자 농사짓는 여성이나 그러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님들도 혼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어디에서 도움이 될까, 어떻게 돈을 받으면서라도 한 단체가 형성이 돼있어서 내가 단체에다가 일자리 신청을 하면 언제 나무전정을, 아니면 공밭을 밭갈이를 하고 싶는데 이거를 언제 와서 좀 해주십써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와서 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사례7)

5) 집안일은 여성의 일

-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10은 여성 농업인들은 밭에서 남성과 똑같이 역할을 나누어 일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사례13처럼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때문인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농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기계를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남자들이 하지. 여자들은 다 잔일들이잖아요. 밭에 김을 맨다든가...밀감 따죠...농약도 같이 쳐야 되고...(사례10)

안도와 주는 건 당연하죠. 우리 시어머니 살 때도 아프면 아들이 제일 가까운 원데, 아들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밥을 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한다거나, 그건 남자 몫이 아니잖아요? 여자 몫이죠.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할 일은 단지 병원에 급하게 갈 때 차 운전 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손으로 수발해야 된다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도(사례13)

6) 건강문제

- 여성 농업인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오랜 농사로 인한 허리, 다리, 어깨 등 근골격계통의 극심한 통증이며 사례10은 이러한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모두 겪는 문제이며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었음. 사례12는 판로개척을 위해 택배를 한 이후 근골격계통증 외에 신경을 쓰다 보니 머리와 소화가 안 되는 위장장애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여자들은 다 마찬가지로인거 같아.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런 거. 그것이 힘이 들다보니깐 아프죠.(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뭐 막 힘들 때는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죠. 고치지는 못하고. 잠깐 잠깐 힘들 때는 가서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사례10)

일단 택배하려면 어깨 아프고 무릎에 관절하고 신경쓰다보니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되고. 난 이제 즐긴다고 해가지고 신나게 하지만 아파요(사례12)

- 또한, 농사의 특징 상 농약사용은 특히 여성들에게 신체적 내부장기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했으며 사례13은 농약이 몸에 스며드는 현상을 농약을 칠 때와 농약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몸의 회복상태가 농약사용 시 2배로 힘들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 농사를 줄이고 그 농약을, 하우스 하는 농약을 많이 짓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아파요. 아파서 ‘하우스 농약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임대농을 다 하고 남편은 퇴직하니까 양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양봉은 일단 농약을 안 하니까...작년에 제가 담낭을 떼어냈어요. 그게 꼭 농약 때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가 하우스에 농약을 하게 되면 6시간? 많이 할 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30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요...그러면 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약 있는 그걸 계속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가 옷이 젖으면 아무리 비옷을 입는다고 해도 피부로 다 스며들고, 장화 속에도 들어가면 그게 다 피부로 스며들고 분명히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노지 감귤에 약할 때는 안 지쳐요. 하루 쉬면 그걸로 그게 회복이 되는데, 하우스에 농약을 한 다음 날은 이틀 동안 몸이 쳐져요. 확실히 그건 느꼈어요. 그래서 농약이 내 몸에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사례13)

다.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실태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는 창업의 어려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6차산업의 어려움, 다양하지 않은 농촌지역 일자리라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1) 창업의 어려움

- 농촌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창업의 경우 사례10은 농사대신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장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내고 빚낸 돈으로 장사 후 손해를 보면 빚만 떠 앉을까봐 두려워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장사를 하시고 싶은데...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사를 하게 되면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자본이 많이 들면 빚내면서 까지 과연 하다 보면...혹시나 안 되면 이제 장사비로 다 까먹고 나면 빚만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사례10)

- 사례16의 경우 본인의 땅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싶지만 관련해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지 못해 그리고 비싼 자격증교육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해안가에 조그만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그냥 돈벌이가 아니고 나중에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 마주 보면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게스트하우스를 하려면 바리스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쿠키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조그만한 것들 받아 보려고 생각을 하는 데 막상 그거 알아볼 데가 없어요. 어떻게 어떤 노선으로 알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은 전문학원에 가면은 백만원 이상을 줘야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서 무료 교육하는데 그거 알아보기도 어렵고(사례16)

- 따라서 창업관련 농촌지역 일자리확보를 위해 창업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을 원스탑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에 접근처의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성이 낮아 농촌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불 할 수 없으며 사례 10처럼 공동체사업이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주로 이장이 그 일을 맡아서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른 이장으로 인해 마을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공동체라는 게...공동체로 하다보면 개인 사업이 아니다보면, 적극적인 것도 없고. 과연 그걸 맡은 사람만 힘이 드는 거라...예를 들어가지고 지도소든 도청에서 직

원이 나와서 직접 차려서 하는 거 같으면 하지만, 그 마을에서 공동체로 해서 이제 마련해서 하면 과연 그게, 내가 지금 ...△△△ 회장이지만 회장이 그걸 맡아서 한다? 다음에 이제 임기가 3년이면, 3년 끝나면 다음 회장이 과연 그걸 맡아서 하겠느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사례10)

3) 6차산업(생산-가공-판매-관광)의 어려움

-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로 6차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례10은 6차산업의 활성화는 판로이며 특히 제주도내 내수시장에서 가공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6차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아니면 혹시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런 거는 관광하고 연결해가지고.) 관광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는 막상 해봐야, 우리도 여기는 이제 밀감 농사 아십니까? 밀감농사하고 복합영농 일부. 집집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더덕도 좀 하고 감자도 좀 하고 하는데, 그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과연 도 안에 소비가 되냐하면 안 되거든요마씨. 밀감은 너도 나도 다 하는 거고 하니깐(사례10)

4) 다양하지 않은 농촌지역 일자리

- 농사를 짓지않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례10처럼 서비스직이며 주로 호텔과 식당일 임. 사례11은 농촌지역에서 편한 일은 없지만 식당이나 농사, 양어장 등 서비스와 농어업직은 있다고 봄. 이렇게 농촌지역에 전문직이나 관리사무직이 없고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는 것은 농촌지역에 관련 직종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농촌지역 여성들을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양성하려는 지원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해봐야 △△△호텔 같은 데는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던가. 알바 같은거, 식당 같은 거 한다던가 뭐 그런 거죠(사례1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안한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식당이나 농사나 그런 쪽들은 많아요. 여기는 양어장도 많고 식당도 많고 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고 보거든요(사례11)

라.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욕구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건강, 자녀양육 및 본인의 교육지원, 문화 및 행정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1)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 먼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면접자들은 농사짓는 지역을 관광화 해 자신의 밭에서 생산물의 관광, 판매, 숙박관련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했음

가) 농촌 전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개발 필요

- 사례13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봄.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전 지역을 관광화 해 사계절 브랜드개발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원정책을 요구했음

다른 데에 일자리를 구해주는 대신 자기네 밭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돌담이 멋있는 여기, 여기에 가면 제주도서 잡힌 해물을 만들어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준다. 거기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지...요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 농사지어서 자기네가 생활을 못하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 나가서 막 잘 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오히려 가정을 깨지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밭이든 남의 것을 임대해서 하는 농업인이든 간에, 그 밭이든 과수원이든 거기에 맞게,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반만이라도 소득이 들어오게, 그걸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지...감귤 밭에 사계절 관광객들이 오게 해야 되요. 봄에는 꽃이 피게, 여름에는 청귤로 만든 효소 주스, 가을 되면 감귤 따기, 겨울 되면 감귤 과즙 만들기. 그래서 ‘계절별로 돌담이 아름다운, 포토 존이 제일 멋있는 제주도 감귤 과수원 100선’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 짹 신문에, 전국의 라디오 방송에 3개월만 뿌려주면 감귤 농가..뭐 한 관에 얼마 뭐 보조하고 필요 없다니깐요. △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당근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몽골같이 텐트하나 쳐놓고 텐트에다 감귤주스 만들고 감귤쿠키 만들고....위에 좋은 당근 주스 파는 거. 그렇게 선정을 해줘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감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 제주도 농사짓는 데를 관광화 시키면서 분명히 돈 안 들이면서 산다니까요. 관광지예요, 제주도는(사례13)

나) 판로개척과 규제완화 필요

- 사례12는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과 특히,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힐링프로그램이 제공되길 원했음

SNS를 활용한 판매 마케팅 그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 예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농사짓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12)

- 사례13은 다양한 교육활동의 지원이 교육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여성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제공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봄. 또한 블로그를 활용한 판매 그리고 생산물유통관련 교육을 통한 판매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렇게 교육을 받다보니까 교육이 △△△시민만 받는 게 아니고, 귀농하신 분, 다른 농사지으시는 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유통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직접유통도 있지만 간접유통으로 한 다리 이렇게 건너서 하시는 분들이 또 교육 받다보면 만나서 거기서도 팔리고...남자보단 여자한테는 감성이 있어서.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똑같이 블로그를 해도 손으로 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감성적인 글을 써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보게 만드는 건 여자들이 나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컴퓨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유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농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사짓는 법은 다 알아요(사례13)

- 사례10은 여성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기계를 대여하지만 문제는 같은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계를 원함으로 인해 순번을 기다려야하며 또한, 기계가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농가소득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함. 따라서 원활한 농기계 대여와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감 밭에 정전하는 거, 파쇄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원이 잘 안돼(파쇄기가 대여해주는 양이 작아서 그런가요?) 대여도 하긴 하는데, 대여를 하려면 순번이 돌아오려면 기간이 오래

걸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여성들이 도울 수 있는 거는 인건비 줄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농사일을 하려고 하거든. 사람을 안 빌어서 되도록. 인건비 나가다 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뭐 기계가 왔다고 해가지고 전부 기계로 되는 게 아니니까(사례10)

- 또한, 사례13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을 가공해 가공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판매에 관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왜냐하면 가공식품을 팔려고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토로함

허가 문제! 감귤 과즙을 제가 집에서 잘 만들거든요... 그걸 집에서 과수원에서 체험하고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허가 문제가 까다로워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허가를 받고, 감귤 따려고 온 사람한테 팔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맥락이 딱 끊기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뭐를 제조해서 팔려고 하면 가공식품에 대한 허가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농가들이 감귤 즙을 내서 뭘 만들어 팔고 싶어도 거기서 끊겨서 한발 자국도 못 나가요(사례13)

- 따라서 여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의 판매를 농촌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농촌지역에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계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2) 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홍보는 문화의 개선과 여성의 인식변화로 나타남

가) 여성이 교육을 받아도 홍보지 않는 문화 필요

- 사례13은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활동에 대해 욕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교육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적으로 저는...친목 모임이 있고, 교육이 있다...거짓말해요. 요새 촌에서 신나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목 모이는 날, 동창회 모인다고 해놓고 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면,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이게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히 해요...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안 맞으니깐 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육을 가요... “난 필요한 데, 여기 갈래요.” “이러니까 나한테 욕하지 말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정당하게, 그걸 해도 옆에 사람들이 흉을 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자가 발전하지요(사례13)

나) 남녀의 인식 변화 필요

- 이러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사례6은 여성과 남성의 인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봄. 농촌지역의 경우 성평등교육과 성인지에 대해 잘 모르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녀모두에게 교육경험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따라서 농촌지역의 가부장제문화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고취를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남녀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래서 농촌지역 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성도 스스로.(여성도 스스로 인식을 좀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평등, 성인지.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못해예.(못함에도 불구하고 좀 배워가지고?) 예. 그런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그래서 교육상담을 안 해주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한 두 번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근데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교육 받으러 안 오잖아.) 그러니깐요. 여성들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보통 일다 끝내서 가요. 이 시간에 맞춰줘야지.(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다 앞치마 안 하잖아.) 그니까 싸워서 가야지(그러니까 나는 남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받아야 돼. 남자들이(사례6)

3) 건강관련 지원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사례10은 건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을 사례11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와 난타를 사례12는 마음을 관리하는 상담교육 등 신체, 정신, 심리에 대한 건강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 저녁에 이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가정주부니까...뭐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가정에 음식 같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지(사례10)

원하는 교육 강좌요? 그런 웃음치료 해가지고...우리가 이런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저는 개인적으로 난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예(사례11)

농업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본적인 정보 교환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고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교육도 가끔 있었으면 좋겠어요...상담기법이라든가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12)

4) 자녀양육 및 본인의 교육지원

- 심층면접자들은 자녀의 양육교육을 위해 방과 후 혼자 있는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원했으며 본인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외국어교육과 창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관련 서류와 세무관련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12는 농촌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자녀돌봄지원을 모든 농가로 확대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농가의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돌봄요청이 있을 경우 돌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이 아닌 그런 부담이 없이 평범한 집 아이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옛날부터 주민센터 이런데 가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다문화가정이거나 꼭 결손가정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도 엄마, 아빠가 바쁘면 돌보지 못할 수도 있죠...하면서 그런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했더니, 다 눈에 보여 지는 거 그런 아이들만...그런 아이들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뭐해줄 거냐고 따지면서 간다니깐? 아무데나 안가요. 너무 많이 여기서 저기서 해주는 혜택이 많아서. 우리 아이도 금방 커 가니까 그렇긴 한데...앞으로도 농사꾼 집안에 아이들은 엄마가 다 챙겨주면 좋지만 밤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사례12)

- 사례11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을 위해 이들이 외국기업에 지원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계활동을 위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를 원했음

◇◇◇이 되고 하면은 전부다 영업 쪽으로, 관광 쪽으로만 다 나셔야된다고 이런 발에 농사짓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여기 복합 상가도 완전 크게 생긴다고 하던데 호텔도 생기고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그거에 맞춰서 더 많아질 것...□□□□이 되기 때문에 영어문제라든지 그런 게 해결이 안되면은 못 들어가겠지만은...외국어 공부 있지 않습니까요? 외국어 공부를 저는..영어학원 같은 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버렸어, 애들이 안다니다 보니까요...어른들도 영어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적으로...어느 순간 단기간 조금만 해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꼭 영어만이 아니라도 중국어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중국어하고 영어겠쬬.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례11)

- 또한, 사례12는 농사와 농산물 가공 및 판매 그리고 창업 또는 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류정리와 세무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를 원했음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류정리라든가 그런 게 좀 약하고 이런 세무 관련한 것도 약해서 가끔은 너무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사례12)

5) 문화지원 및 행정지원

가) 40~70대를 위한 소통공간 필요

- 심층면접결과 사례6은 농촌지역에서는 40대에서 70대까지를 젊은이로 취급하고 있으며 노인관련 복지시설에는 80대 이상이 주로 가고 있음이 발견됨.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고려해 40대에서 70대까지 여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사례11은 부녀회사무실의 확보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소통과 교육을 통해 40대에서 60대까지의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내가 일하다가 어깨도 빠근하고 이러면 가서 쉬었다가 올 수 있는,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원하지예. 그런 것들은 사실 노인 위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여성 위주로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65세 이상은 잘 안가고요. 한 80세 이상 돼야 갑니다. 한 75세 이상. 그 전에는 다 밭에서 일하고 영 합니까. 거의 거동을 못해야 가지...어쨌거나 40대, 50대, 60대, 70대도 하여튼 중반까지는. 전에 가면 다 젊은 사람들이랜예. 거기 가면 따돌림 받을 걸?(사례6)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이런

부녀회 사무실, 부녀회사무실이나...아니면 정기적으로 여성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왜 여자들이 놀다가 스트레스 풀려고 우리 노인회관처럼, 노인당처럼 놀 수 있게끔 노래방 시설도 되어있고 그냥 그 속에서 앉아서 강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여성들을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한데 부녀회원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딱히 없어요(사례11)

나) 문화/학습센터/여가지원 필요

- 사례11은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읍면에 문화공간이 있어야하며 그 공간에서 운동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한다고 봄. 또한,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지원 관련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까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에는 헬스장도 하나 없거든요?...호텔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공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그게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해버리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잖아...그냥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모아놔 가지고 무료강습이라고 하면...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학습센터 같은 게 △△에 하나쯤 있었으면은...일자리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사례 11)

- 사례13은 농촌지역 여성의 여가활동을 위해 ‘농촌지역 여성 놀러가는 날 추진’을 제안하고 있음. 사례13은 농촌지역 여성에게 여가의 제공은 주변 지역교류를 통한 아이디어를 얻어 생산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제주도 안에 들어온 작가들, 예술인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비오는 날. 그건 필요할 것 같아. 갑자기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때 “모여라” 하면, 뭐 차 한 대 딱 와줘서 몇 군데 해서 맛있는 점심 먹고, 맛있는 커피 사먹게 해주고, 아니면 그런데 가서 전시회도 보고. 뭐 좋은 책 나온 데 있으면, △△△ 미술관? 거기 가서도 한 번씩 보게 해주고. 제주도 안에 너무 많아요. 난 큰돈 안 들이고, 여자들 좀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아요...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딱 정해가지고 이 날은 여자들이 일하다가 놀러가는 날! 쉽게 그냥. 여자들 놀러 가는 날!(사례13)

-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생활을 위해 농촌지역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다) 행정지원 필요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들은 전담공무원의 필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직거래를 위한 대행기관필요를 제안함
- 사례6은 지방에서 여성농민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배치가 여성농민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흩어진 여성농민관련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세워 해마다 실행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봄

지방에서는 여성농민들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안 되예. 그거는 승진관계나 이런 것들 막 꺼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여성농민을 담당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편리함이 뭘까요?) 편리함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실태조라라든지 이런 것도 더 꼼꼼하게 챙겨 놓을 수 있고. 여성농민들을 위한 사업들도 더 꼼꼼하게 챙겨 놓을 수 있고. 지금 여성농민들도 보면, 지금 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부서가 엄청 많아예. 부서가 많고 농협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 이것저것, 이걸 취합하는 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마씨. 그런 것들을 해야만 정말 여성 농민에 대한 정책을 바로 펼 수가 있는 거죠(사례6)

- 또한, 사례12는 행정서류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상품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다양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직거래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하기에는 힘들어 서류와 직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 및 대행할 수 있는 제도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지원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서류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복잡해요. 한 번 하면 힘든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생략해도 될 거 같은데 행정에서는 어차피 교과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 안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할 때도 있어요...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누군가 그거를, 유통을 옛날에는 다 농협이나 감협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서

하게 되면은 농협, 감협에서는 자기네 어떤 이득 취할 건 다 취해요. 농민들이 가격을 받든 말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한 집 걸러 한 집, 다 택배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것까지 해지면 좋은데 농민들도 버겁잖아요.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데 택배를 하려면 사람들 고객 수준에도 맞춰야 되고 전화도 잘 받아야 되고, 블로그 관리, 인터넷...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어느 한 군데서 정말 제대로 된 물건들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협에도 뭐 불로초라든가 명품으로 나가는 데가 있지만 그 너무 높은 규정에 힘들게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12)

3. 소결

-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공통된 어려움,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관련 어려움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실시했음. 조사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촌지역 여성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여가 없는 생활’, ‘농촌지역의 가부장제 문화’, ‘자녀교육환경의 미비’로 나타남
 - ‘여가 없는 생활’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여가를 즐길 만한 문화센터가 없으며 농촌지역의 일만하는 문화때문에 ‘쉬고’싶어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니 마을 어른들의 눈치가 보여서 쉬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은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제주지역 농업이 단일 영농에서 복합영농으로, 노지농업과 시설농업을 병행하면서 ‘농한기’가 사라져 ‘쉬’과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이 휴식을 누리 지 못하는 것은 노동력의 피폐화를 의미하며 농촌지역 의 문화관련 시설의 부재로 농촌지역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도시와의 차별을 의미함.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의 노동력 보호와 지역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쉬’과 ‘여가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농촌지역의 가부장제 문화’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와 활발한 교육활동을 여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었으며 몇몇 친정마을에서는 딸이 ‘부녀회원’이 되지 못하고 며느리만 ‘부녀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 여성의 사회참

여와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문화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시기하게 만듦으로 인해 여성들의 연대와 내부결속을 저해해 결국 여성의 역량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의 가부장제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농촌지역의 '자녀교육환경의 미비'와 시내에만 공립학교가 밀집된 교육현실로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시내로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가거나 주말에만 남편이 남아 있는 농촌지역에 와서 생활하거나 자녀들만 시내로 보내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농현상과 분거가족의 형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농사일의 단절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의 자녀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여성 농업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혼자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농사인력 확보의 문제, 6차 산업 등 농업관련 일자리 창업의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사계절·복합영농으로 농촌지역의 농사인력부족의 문제는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심각한 문제임. 심층면접에서도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사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특히, 농업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나누어져있어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의 경우 남성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가구에 대한 인력업체 우선 연계와 여성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6차 사업과 관련해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농업관련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있어 여성 농업인이 관련 창업을 하고 싶어도 농사를 지으면서 창업관련 행정절차와 창업 후 경영·회계·고객관리·판로개척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다양한 소득활동을 위해 관련 업무를 자원 및 대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농촌지역 여성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오랜 농사로 인한 근골격계통의 극심한 통증과 소득활동의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 농약으로 인한 농약중독 등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여성의 신체적 건강 지원 외 정신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심층면접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관련 어려움으로 집 근처에서 취업관련 자격증·어학관련 교육의 부족, 여성 농업인이 겸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농산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 여성 비농업인에게는 다양하지 않는 일자리의 어려움이 있었음
 - 농촌지역 여성들은 지역의 변화에 맞는 취·창업지원을 원했으며 지역별로 외국기업으로 인해 창출될 다양한 직종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농촌지역 지역과 연계해 관광객이 농촌지역으로 찾아와 여성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어 여성 농업인이 찾아가지 않고도 자신의 밭에서 관광·농산물판매·숙박관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일자리는 농업, 어업, 호텔과 식당관련 서비스직 등 일자리 관련 직종이 협소하며 전문직이나 관리사무직이 없어 단순직에 집중되어 있음. 농촌지역 여성들은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도 농촌지역 여성을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양성하려는 계획도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함

- 농촌지역 여성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여성이 운영하는 자신의 밭에서 소득활동이 창출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 지역을 브랜드화해 홍보해 줄 것을 원했으며 창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육 및 취·창업관련 인프라구축, 취·창업관련 서비스 대행, 판로 및 식품관련 규제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촌지역 지역사회의 양성평등교육과 건강관리·여가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요약 및 지원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지원방안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농촌지역 여성·농업여성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욕구를 살펴봄. 셋째, 농촌지역 여성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의 어려움, 농업의 어려움, 일자리를 구하는 어려움, 필요한 정책욕구에 대해 살펴봄
-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분석한 후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확대를 위해 추진해야할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요약 및 시사점

가.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1) ‘쉽’이 필요한 농촌

- 농촌여성의 농가소득기여도는 높고 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사기간·농업경영에서 의사결정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농가소득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이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 및 문화 만족도는 2.71로 가족 관계 만족도(3.62), 지역만족도(3.60), 건강만족도(3.12)보다 낮게 나타났음. 또한 농촌지역 여성의 1주일 평균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 6시간 이하가 50.1%로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하루 1시간의 여가시간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지역 여성들이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심층면접결과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공간의 부재,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상황, 농촌지역의 일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농촌지역 여성들의 거주지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여가·문화시설부족(25.1%)이었으며 복지관련 제도의 필요성 욕구에서도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지원이 평균 4.25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농가소득이 적은 농촌지역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활동보다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은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농촌지역의 모든 여성이 일하는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쉴 수가 없음
- 농촌지역 여성에게 휴식이 없다는 사실은 노동력 피폐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여가’

가 없다는 사실은 농촌지역 여성들이 자신들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도 주변환경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여성에게 ‘쉼’ 즉 여가생활이 필요함

2)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

- 농촌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제문화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비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남편의 허락, 농사는 반반 남녀가 나누어 하지만 가사는 여성의 책임,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문화 등임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나태는 행동’으로 비하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허락이 사회활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가족의 이해’가 31.2%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가족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30.6%)이었지만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들은 농사는 남편과 반반 나누어하지만 가사는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여전히 친정마을에서 며느리는 부녀회 회원으로 받아주지만 친정마을에 거주하는 딸은 부녀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심층면접에서 드러남
-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문화는 여성끼리의 연대를 저해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농촌지역에 필요함

3)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

- 제주지역에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역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이 나타났음
-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젊은 농촌지역 여성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후 자녀가 대학을 갈 때까지 시내로 이사한 후 다시 자녀가 대학을 입학한 후 농촌으로 재이주하는 경향이 많았음. 또한, 남편은 농사를 짓고 여성들만 자녀와 함께 시내로 이주하는 ‘분거가족’ 또한 농촌지역에 많았음. 설문조사에서도

이사항 의향이 있는 30~40대 농촌지역 여성은 보육 및 보육시설문제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젊은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교육환경미비, 시내에 국공립이 모여 있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함

나. 여성 농업인의 영농실태

1)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인력지원 필요

- 심층면접결과 혼자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의 어려운 점은 농번기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남자일손을 구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농사의 경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적절한 시기에 일손부족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기 어려워 농사수확량이 적어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서도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소득증대를 위해 ‘농번기 일손부족문제해결지원’(29.5%)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혼·사별을 고려해 제때에 여성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농기계개발과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이 필요함

2) 세대간 소통을 위한 모임장소 필요

- 조사결과 젊은 여성 농업인은 모임을 통해 세대 간 소통 및 정보교환을 원했으며 이러한 소통과 정보교환은 농업관련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더 효율적 영농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봄. 심층면접결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40~70대는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함
- 특히, 젊은 여성 농업인과 나이든 농업인을 연결하는 멘토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후계양성과 여성이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 마을회관, 주민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등에 여성모임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여성 농업인 모임 및 단체에서 멘토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피로를 풀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지원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은 노지 밀감에서 하우스 밀감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밀감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일작물을 통한 영농활동이 복합영농으로 바뀌면서 사계절 밤낮으로 24시간 농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농업인은 오랜 농사로 인한 허리, 다리, 어깨 등 근골격계통의 극심한 통증과 농산물가공상품을 밤까지 택배로 보내는 노동으로 신경을 쓰다보니 머리와 소화기 안되는 위장장애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음
- 설문조사결과 60대 이상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상태가 다른 연령대보다 좋지 않았으며 우울증의 경우도 이혼·별거 중인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이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건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다. 농촌지역의 일자리 실태

1) 6차산업, 마을기업, 창업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할 대행서비스 기관 필요

- 농촌지역 여성들은 창업과 6차산업의 뭇돈 마련과 판로개척이 어렵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며 소득창출도 어려워 농업관련 다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설문조사결과 30~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향후 농업관련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농업인보다 여성 비농업인이 더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창업할 의사가 있어도 농사일이 바빠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언제 시작을 해야 하며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를 관리하는지를 잘 몰라 창업을 하지 못했음. 따라서 6차산업, 마을기업, 창업에 농촌지역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서비스 기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일자리관련 교육센터 필요

-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산 것은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사업'(32.4%)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외자 유치기업 등으로 농촌지역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의

변화를 반영한 농촌지역의 인적자원구축 교육컨텐츠가 필요함. 이를 수행할 교육센터도 필요함.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 비농업인들의 직종발굴을 위해 집 근처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이에 적합한 자격증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교육센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농촌지역의 브랜드화

- 심층면접결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자신의 밭에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임.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전 지역을 관광화해 사계절 브랜드개발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2. 지원방안

-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제고,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가.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

1)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지원 필요

- 제주지역은 단일작물을 통한 영농활동이 복합영농으로 바뀌고 있으며 시설농업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 여성들의 농업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추석이나 설날 등 밤늦은 택배작업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 육체적·심리적 피로도가 높았으며 특히, 60대 이상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상태는 다른 연령대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혼인유형과 가구유형에 따라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 단위로 중장년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을 위한 찜질방 운영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을 의료·심리상담으로 넓히고 그 대상도 고령여성·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해야 함

2) 농촌지역 주민 대상 양성평등교육실시

- 농촌지역 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병행의 어려움 해소 딸과 며느리에 대한 구별짓기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함
- 현재, 공무원과 농협직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을 농촌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발전기금을 통해 농촌지역의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농촌지역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단위사업신청 시 양성평등교육이수여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조치도 필요함

3) ‘농촌지역 여성 문화의 날’제정

-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며 특히, 제주 농촌지역 여성들의 여가시간은 농촌지역 여성의 과반수이상이 하루 1시간의 여가시간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들이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노동력 피폐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신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며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쉽’ 즉 여가생활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 여가를 통한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지역 여성 문화의 날’을 제정해 도내 문화시설 방문 및 문화예술관람,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

1) 농번기 일손부족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과 고령농민들이 제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해야 함

- 농번기 일손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농번기 일손부족의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단기노동자에 대한 농촌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임. 노동자의 입장에서 단기고용보다 장기고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계약형태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콜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과 구직을 미리 예약제로 받아, 구인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노동인력을, 구직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번기 일손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농번기 때는 콜센터에서 공공근로, 인력센터, 대학·기업·도내자원 봉사팀, 군인·예비군 등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농업 인력들의 신청을 받아 특히 혼자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과 고령농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판로개척지원

- 여성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소득확보 방안을 위해 판로를 개척해 지원해야 함
- 마을마다 농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마트를 건립하고 SNS마케팅, 전자상거래, 블로그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지원과 농촌지역 여성대상 농산물가공·식품판매·유통관련 교육/농가민박·펜션관련 교육/농촌지역 체험·교육농장 운영교육 등을 지원해야 함

3) 여성 농업인 전담공무원 필요

-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들은 보육과 돌봄, 직업능력강화, 일자리개발, 지역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의 욕구반영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부서로 흩어진 여성 농업인대상 사업들을 통합해 장기적인 여성 농업인 정책을 세워 해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 전담공무원이 필요함
- 여성농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 전담공무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 농촌지역 여성일자리 창출

1)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인프라구축

-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는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며 교육을 통해 일자리
에 맞는 근로능력을 갖추는 것임
- 농촌지역의 변화에 부응해 관광산업, 외자 유치기업이 원하는 근로자를 농촌지역
지역에서 수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인적자원구축이 필요함
- 여성 비농업인들의 직종발굴을 위해 적합한 자격증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교육프로
그램개발과 체계적 교육을 수행할 있는 취·창업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관련 교육 및 관련 업무를 대행할 서비스 기관으로 농촌지
역에 맞는 농촌형 여성 취·창업센터가 필요함

2) 농촌지역 관광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자신의 밭에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전 지역을 관광화하고 사계절 브랜드개발과 도내·외 홍보를 체계
적으로 지원해야 함
- 도시 중심의 관광콘텐츠개발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
용한 관광콘텐츠개발과 마을의 사계절 특징을 브랜드로 개발해 농가소득창출과 일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3)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일자리 연구지원

- 농촌지역 지역의 구성원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를 것임. 제주지역의 경우 농가소득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크
며 농촌지역의 고령화, 여성화를 고려할 때 농촌지역의 발전은 여성들의 적극적
인 사회참여와 연계되어 있음
-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연구물과 농촌지역 일자리에 대한
조사데이터도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다문화 등 인
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일자리조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강경희. 2007. 「제주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승진·김철민. 2013.,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 노동력확보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4. 「경기도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 경기도의회.
- 김병률·전익수·윤종열·민자혜·박미성·김말징·김배성·김정섭·한재환. 2010. 「농어촌 고용 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성주인, 김용욱·박자경. 2015. 「협업과 현장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송미령·권인혜. 2014.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송미령·노승철. 2013.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송미령·민자혜. 2013., 「농촌의 일자리 창출사례78선」.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심재현·노승철. 2014. 「농촌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지역 경제연구원.
- 정회훈. 2015. 「경북 농촌 보육정보센터, 농촌지역 여성 종합지원기능 강화해야」. 대구경북연구원.
- 진명숙·박성정. 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경험분석:진안지역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미영. 2015.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활성화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실태조사 및 정착지원방안 연구」.
- 통계청. 2014. 「2013년 농림어업조사」.
- 가와테도쿠아. 2013. “일본 6차산업화 정책동향: 여성 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 농업』 (159): 7-28.

- Alston, Margaret. 1995. "Women and Their Work in Australian Farms." *Rural Sociology*. 60(3): 521-532.
- Dixon, Ruth B. 1982. "Women in Agriculture : Counting the Labor Force in Developing Coun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3): 539-565.
- Haugen, Marits. 1990. "Female Farmers in Norwegian Agriculture : From Traditional Women to Professional Farmers." *Sociologia Ruralis*. 15(2): 197-209
- Jacoby, Hanan G. 1992. "Productivity of men women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peasant agriculture of the Peruvian Sierr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7(1&2): 265-287.
- Quisumbing, Agnes R. 1996. " Male-Femal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 Methodological Issues and Empirical Evidence." *World Development*. 24: 1579-1595.

통계청. e-나라지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2월).

여성 농업인 광장 <http://www.mafra.go.kr/woman/>

통계청 인구구조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부 록

설문조사지

제주지역 농촌 여성 생활실태 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박사 ☎ 064-710-4973

조사책임자: 미래리서치 대표 양진철 ☎ 064-755-0073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SQ 1) 거주지	1) 제주시 2) 서귀포시	_____읍/면
SQ 2) 거주기간	1) 1년 이하 ☐면접중단 2) 2~5년 3) 6~10년 4) 11~20년 5) 20년 초과	
SQ 3)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7) 80대이상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A. 경제생활

문1. 귀하는 현재 농업(축산 포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겸업(가사와 농업이외에 종사하고 있는 일이 있음) ➡ 문1-1로 2) 전업 ➡ 문2로
3) 아니오 ➡ 문1-3으로

문1-1. 귀하의 겸업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 | | |
|--|-----------------------|
|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류 판매(예: 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 |
| 2) 농촌관광사업(예: 농촌체험, 농가민박 등) | |
| 3) 농업임금노동(예: 품삯노동) | 4) 자영업(예: 장사, 가게운영 등) |
| 5) 일반 직장 취업 | 6)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
| 7) 공공근로 | 8) 기타 (_____) |

문1-2. 귀하가 겸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문2로 이동)

- | | |
|---------------------------|----------------------------------|
| 1)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하려고(노후자금 마련) |
| 3)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 4)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
| 5)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 6) 남편과 시댁의 뜻에 따라 |
| 7) 생산한 농산물과 농촌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 8) 기타(_____) |

문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
| 1) 관리직 | 2) 전문직 | 3) 사무직 | 4) 서비스·판매직 | 5) 생산직 |
| 6) 단순노무직 | 7) 자영업자 | 8) 전업주부 | 9) 학생 | |
| 10) 일을 하고 있지 않음(➡ 문17로 이동) | | | | |
| 11) 기타(_____) | | | | |

문1-3-1.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문1-3-2.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 문17로 이동)

문2. 귀하가 농사일을 하신 기간은 결혼 전과 결혼 후 대략 몇 년 정도입니까?

결혼 전 약 _____년, 결혼 후 약 _____년

문3. 귀하가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 2) 배우자의 본가(시댁)가 농업에 종사
3)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4) 귀농한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귀농 남편 선택)
5) 농업이 좋아서 농업종사(본인 선택) 6) 기타()

문4. 현재 귀하는 귀하의 농사일 중 몇 %정도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1) 거의 전부 2) 80% 정도 3) 60~70% 정도
4) 절반 정도 5) 30~40% 정도 6) 30% 미만

문5. 귀하가 하루에 농사일을 하시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평 소 약 _____시 간

문6. 귀하의 농사작업 시 가장 필요한 농작업기구는 무엇입니까?

- 1) 쪽파 탈피기 2) 채소 파종기 3) 소형트랙터
4) 소형 파쇄기 5) 소형동력농약분무기 6) 기타()

문7. 귀대에서 농사짓는 농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 _____ 노지: _____

- 1) 1,000평 미만 2) 1,000~2,000평 미만 3) 2,000~3,000평 미만
4) 3,000~5,000평 미만 5) 5,000평~10,000평 미만 6) 10,000평 이상

문8. 귀하의 농업종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자기 농업에 종사 2) 남의 농업에 종사 3) 자기 농업을 하면서 남의 농업에 종사

문9. 귀댁이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 중 주력품목(판매액이 가장 많은)은 무엇입니까?

- 1) 정곡(미곡, 잡곡, 두류, 서류) 2) 채소류 3) 화훼류
4) 특용작물(유채, 참깨, 땅콩 등) 5) 과실류(감귤, 키위, 딸기 등)
6) 축산 7) 기타()

문10. 귀댁에서 지난 1년간 생산한 농·축산물의 총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 1) 판매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원~500만원 미만
4) 500~1,000만원 미만 5) 1,000~3,000만원 미만 6) 3,000~5,000만원 미만
7) 5,000만원~1억원 미만 8) 1억 이상

문11. 지난 1년간 귀댁의 전체 농가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기타소득 포함)은 대략 얼마가 됩니까?

- 1) 500만원 미만 2) 500~1,000만원 미만 3) 1,000~2,000만원 미만
4) 2,000~3,000만원 미만 5) 3,000~4,000만원 미만 6) 4,000~5,000만원 미만
7) 5,000만원~6,000만원 미만 8) 6,000만원~1억원 미만 9) 1억 이상

문12. 귀댁의 자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있다	없다	금 액(만원)
1) 부동산			
2) 자동차			
3) 농기계			
4) 금융자산(계,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			

문13. 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4. 귀댁의 농가 경영주는 누구입니까?

- 1) 본인 2) 남편 3) 친정부모
4) 시댁부모 5) 부부공동 6) 기타()

문15. 귀하가 농사짓는 농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1) 본인 2) 남편 3) 친정부모 4) 시댁부모
5) 친척 혹은 타인 6) 부부공동 7) 기타()

문16. 귀하는 농업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1) 전혀 관여하지 않음 2) 다소 관여 3) 전적으로 관여

문17.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전체 소득(농업소득, 농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에서 귀하의 본인 기여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전부 2) 80% 정도 3) 60~70% 정도
4) 절반 정도 5) 30~40% 정도 6) 30% 미만

문18. 귀하는 귀댁의 소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권한(혼자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거의 전부 2) 80% 정도 3) 60~70% 정도
4) 절반 정도 5) 30~40% 정도 6) 30% 미만 7) 전혀 없다

문19. 귀댁에는 가계부채가 있습니까?

- 1) 없음 2) 500만원 미만 3) 500~1,000만원 미만
4) 1,000~3,000만원 미만 5) 3,000~5,000만원 미만 6) 5,000만원~1억원 미만
7) 1억 이상

문20. 귀하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 1) 없다 2) 집 3) 땅 4) 자동차 5) 농기계 6) 농산물거래통장
7) 본인 명의 예금통장 8) 본인 명의 보험 9) 기타 금융자산(계, 적금, 증권 등)
10) 기타()

문21. 귀하는 농사를 계속할 또는 (현재 농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22로 2) 없다 ➡ 문21-1로

문21-1. 귀하가 농사를 계속할 또는 해보실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 여자에게는 힘든 일이어서
3) 남들이 무시하니까 4) 내 건강으로는 무리가 될 것 같아서
5)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6) 농사일 또는 농기계사용법을 알지 못해서

1) 본인(대략 하루: _____시간) 2) 다른 가족 3) 보호시설 등 4) 도우미 등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 6) 해당사항 없음

C. 여가, 문화, 교육, 지역사회활동

문30. 귀하가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1주일 평균 _____ 시간

문31. 귀하가 TV시청 이외에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택 1)

- | | | |
|---------------------------------|---------------|--------------|
| 1) 신문, 책읽기 | 2) 낮잠 자기 | 3) 컴퓨터, 인터넷 |
| 4) 화투, 오락 | 5) 산책, 운동 | 6) 이웃, 친구 모임 |
| 7) 종교활동 | 8) 쇼핑, 나들이 | 9) 취미활동 |
| 10) 자격증 등 시험준비 | 11) 농산물(음식)가공 | 12) 단체활동 |
| 13) 기타 () | | |

문32. 귀하는 지난 1년간 전시회, 음악·미술 공연, 영화, 연예(쇼)공연, 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몇 번 정도 관람하셨습니다?

- 1) 없다 2) 있다(1년에 평균 _____ 번)

문33. 귀하는 농촌에서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돌봐야할 가족이 있어서 | 2) 일이 바빠 시간이 없어서 |
| 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4) 가까운 곳에 그런 문화시설이 없어서 |
| 5) 다른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 6)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
| 7)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 8) 기타 () |

문34. 평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문35. 귀하는 지난 3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문36으로 2) 있다 ☞ 문35-1로

문35-1. 귀하는 어떤 종류의 교육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 1) 기초학력교육 | 2)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 3) 농업관련 기술·기계·가공 교육 |
| 4) 부기/회계와 재무관리 | 5) 자격증 취득교육 | 6) 건강, 운동 7) 교양, 취미 |

- 8) 리더십교육 9) 자녀교육, 상담 등 10) 창업·취업교육
11) 기타 ()

문36. 귀하는 교육훈련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1) 희망하지 않는다 ☞ 문37로 2) 희망 한다 ☞ 문36-1로

문36-1. 귀하는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기를 가장 희망하십니까?

- 1) 기초학력교육 2)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3) 농업관련 (기초)기술·기계·가공 교육
4) 부업 및 자격증 취득교육 5) 건강, 운동 강좌 6) 교양, 취미 강좌
7) 정치 및 리더십교육 8) 자녀교육, 상담 등 9) 회계 및 경영관련 교육
10) 판매 및 고객관리교육 11) 외국어 교육 12) 창업·취업교육
13) 기타 ()

문37. 귀하는 평소 교육훈련 참여시 어떤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 2)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
3)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
5)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6) 집을 비우기 힘들다
7) 저녁시간에 하는 교육이 없다 8) 별다른 불편 사항이 없다
9) 기타 ()

문38. 귀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지역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 1) 예 ☞ 문38-1로 2) 아니오 ☞ 문38-2로

문38-1. 귀하는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1) 마을부녀회(또는 노인회) 2)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3) 농협 또는 축협
4) 여성농업인단체(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여성농민회)
5) 지역여성단체 6) 계(친목, 동창회) 7) 기타()

문38-2. 귀하가 지역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바빠서 참여할 틈이 없어서 2) 모임·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 연장자나 남성 중심이어서 내 의견을 나타내기 어려워 4) 가족과 남편이 반대해서

- 5) 언제, 어디서 어떤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른다 6)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7) 기타 ()

문39. 귀하는 직업, 건강, 소득, 가족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D. 건강, 복지, 안전 실태

문40.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 1) 전혀 좋지 않음 2) 별로 좋지 않음 3) 보통 4) 대체로 좋음
5) 매우 좋음

문41.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42로 2) 아니오 ☞ 문41-1로

문41-1. 검진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시간이 없어서 2) 병원이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3)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4) 건강하기 때문에
5) 다른 병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6) 기타()

문4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43.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읍·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 2) 약간 불만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문44.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의 거주 환경에 대해 가장 불만은 무엇입니까?

- 1)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부족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족 3) 여성 복지시설 부족

- 4) 의료시설 부족 5) 여가 문화시설부족 6) 대중교통 불편
7) 마트 등 쇼핑시설 부족 8) 방범 보안상태 취약 9) 공동농산물가공시설부족
10) 클린하우스 등 쓰레기 처리시설 미비 11) 기타()

문45.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음 ☞ 문45-1로 2) 없음 ☞ 문46으로

문45-1. 귀하가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이유 2) 보육 및 보육시설 문제 3) 구직 및 직장문제
4) 건강 의료시설 문제 5) 가족 간 분가 및 합가 문제 6) 안전문제
7) 교통문제 8) 주거문제 9) 기타()

문46.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의 여성, 아동, 노인들은 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험노출 대상	문46-1. 위험 정도					문46-2. 위험종류	
	매우 위험	대체로 위험	보통	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	위험노출 대상	1)성폭력 2)가정폭력 3)교통사고 4)강도/ 절도 5)농기계사고 6)그 외 사고 7)위험하지 않다
1) 여성	①	②	③	④	⑤	1) 여성	
2) 아동	①	②	③	④	⑤	2) 아동	
3) 노인	①	②	③	④	⑤	3) 노인	

문47. 귀하는 농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2)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3) 농기계나 시설사용이 어렵다 4)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5)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
6)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7)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계발 등을 할 데가 부족하다 8)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9) 기타()

E. 농촌 및 농업관련 정책수요

문48. 귀하는 다음과 같은 농촌 및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과 제도를 아시거나 이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인지여부		이용여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여성농업인센터	①	②	①	②
2) 농가도우미제도	①	②	①	②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①	②	①	②
4)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①	②	①	②
5)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①	②	①	②
6) 농어촌지역 방문건강서비스 제도	①	②	①	②

문49. 다음은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필요하 지않다	별로 필요하 지않다	보통	약간필 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정 내 노부모 및 노약자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보육제도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취학 자녀 통학버스 운영 및 방과 후 학습확대	①	②	③	④	⑤
4) 농번기 가족식사 및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제도	①	②	③	④	⑤
5) 농촌여성의 문화생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농촌 중장년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①	②	③	④	⑤
7) 농촌지역 여성의 취·창업 지원 센터 건립	①	②	③	④	⑤
8)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9) 출산전후 여성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등, 경찰마을자치회 순찰강화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확충	①	②	③	④	⑤

문50. 귀하는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들에 비해 일을 많이 하며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50-1로

2) 아니오 ☞ 51로

- 3) 마을 여성들을 위한 소통 공간 4)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5)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어린이집 6) 기타()

문55. 귀하는 농촌지역 고령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고령 농촌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 2) 고령여성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수리·시설개량지원
- 3)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4)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5) 문화·여가생활 지원
- 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7) 외출 등 이동서비스에 대한 지원
- 8) 기타()

문56. 귀하는 후계여성농어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 1) 농지 관련 대출지원 2) 영농 경영교육지원
- 3)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4)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 5) 기타()

문57. 귀하는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
- 2)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
- 3)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 4) 기타()

F. 개인관련 사항

문58. 현재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

문59. 귀댁의 가구형태는?

- 1) 1인가구 2) 부부가구(2인) 3) 부부+미혼자녀 4) 한부모+자녀
5) 조부모+부부+자녀 6) 조손가구 7) 부부+노부모 8) 기타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보고서 2016-01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발 행 일 2016년 5월 31일

발 행 인 현 혜 순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 쇄 소 디자인들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07-5